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토론문화 부실

불교계 토론문화는 정착되고 있는가? 토론은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참구다. 불교가 새로운 세기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키 위해 끼워야 할 첫 단추로 '성숙한 토론문화'을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열렸던 공청회, 포럼, 세미나는 모두 20여차례. 불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중공사가 매월 한 두번씩 마련될 만큼 불교계 토론문화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행·발표등 내용성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노출되고 있고 말그대로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6월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워크숍은 주최측의 노력과 취지에는 아랑곳 없이 발제자의 무성의한 발표태도, 토론자의 발제자에 대한 '얼굴세워주기' 식의 칭찬이 난무했다. 5월 열린 불교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는 발제만 있었을 뿐 토론은 없었다.

여론수렴 기능강화
'사이버 토론'도 확충

토론문화는 자기 신념 혹은 학문에 대한 확신이나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는 문화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확립해가는 작업이다. 그런데 현 불교계에서는 쟁점이나 학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치는 모습을 흔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내용성 키우기에도 노력해야 한다. 토론 주제도 종단이나 종책과 관련한 부분들뿐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몫으로 남아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청년불자들이 들끓이고 있는 '사이버 토론'을 양성하고, 수렴된 의견을 현실에 반영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넷 웹진 '연꽃' 11월개설
어린이 사이버포교 나선다

불교어린이지도자련

21세기 사이버포교의 새 장을 여는 최초의 인터넷 불교어린이 웹진 '연꽃'이 빠르면 오는 11월 선보인다.

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은 지난 86년부터 교사지도서인 월간 〈동련〉과 어린이법회교재 〈연꽃〉 등을 발간해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스님, 이하 대불어)가 준비중인 차세대 포교사업이다. 이 인터넷 어린이 웹진은 타종교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다.

현재 준비작업중인 인터넷 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은 〈동련〉과 〈연꽃〉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법회 운영과 포교를 위한 설법문안, 불교교리,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 불자들이 직접 참여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코너를 중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화상정보 제공과 다른 지역의 어린이포교단체나 해외포교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불어는 웹진 운영을 위한 전체 계획을 마련해 놓고, 조만간 전체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대불어 최미선 사무국장은 "대불어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를 중심으로 종교관련 사이트수를 조사한 결과 불교사이트 수는 전체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개신교의 사이트수는 70%에 육박했다"면서 "인터넷 사이버포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2~3년내에 한층 성숙된 사이버포교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9세기말 제작된 금미륵보살좌상. 1974년 9월 금강산 만폭동 금강대에서 발견된 국보급 순금불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문화재 1만여점중에는 불교성보가 상당수 있다.

북한 비공개문화재 1만점 '공개'

경향신문 CD롬 제작

금동석가여래좌상(13~14세기), 금미륵보살좌상(9~10세기), 분장자기불상집(15세기) 등 북한의 비공개 문화재 1만여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 소개된다.

경향신문사 산하 한민족 문화네트워크 연구소는 지난해 5월 〈조선 유적 유물 도감〉 등 북한에서 발간된 문화재 관련 도감·도록 30여권에 대한 사용권을 북한의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체결하고, 1만여점에 달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해 CD롬으로 제작했다.

또 경향신문사는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제작한 CD롬 '7000년의 문화재보'도 입수했다.

이들 자료는 그동안 '반목'에 그쳤던 한반도 역사 및 문화의 복원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 · 성주사 · 장유암

10월에는 현욱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풍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효시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참배 합니다.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사찰환경수호 결의대회 연다

10월 12일 조계사서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정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과 교구본사 주지들은 2일 한국의집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돼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보존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다음달 12일 조계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총무원은 "사찰환경 보존을 위해 전사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미미하기만 하다"며 결의대회 개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총무원은 이번 결의대회에 전국 교구본말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결의대회 전까지 홍보를 극대화하고 종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구본사와 관람료사찰, 주요사찰에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 부착하고,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본말사주지회의 때 대정부 결의문 채택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종회 차원의 대정부 결의문 및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지지성명 발표, 국회의원 지구당에 항의공문 발송 및 방문,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전국사찰 정진법회봉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21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및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조계사 성역화사업사무(니) 의제 시행, 교구호법 국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청사신축 동참" 당부
혜암종정 교시발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8월 28일 교시를 발표, 총무원 청사 신축사업에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교시 요지.

가람은 내로는 장(藏)하여 삼보가 상주하고 외로는 방(放)하여 전법도생하니 처처가 가람이요, 일체가 가람 아님이 없으니 형체도 없고 경계도 없도다.

다만 중상을 피하여 벽을 두르고 눈비를 피하여 지붕을 얹었으니 납자의 수행을 증장케 하고, 불도가 신심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로다.

육조의 산문을 삼각산에 둔 것은 비전면면한 정종맥(正宗脈)을 계승함이었으되, 정화 이래 영예와 오욕이 함께 했으니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시절인연이다.

다행이 당금에 이르러 고산 총무원장이 조계사를 종단의 중심도량으로 바로잡고 흐트러진 종풍을 수습하여 진작코자 하니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은 수희동참하여 불법을 만교에 빛낼 대가람의 진면목을 현시하라.

"민영교도소 종교자유 보장"

법무부, 조계종에 회신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8월 24일 조계종총무원에 회신을 보내 "종교단체에 의한 교도소 운영 시 특정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할 수 없도록하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민영교도소는 문제점보다는 실익이 크다는 일반적 평가가 있고, 외국의 경우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국내 외국스님-해외파견 포교사 '지원'

문화부, 예산안 마련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스님과 해외파견 포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와 여당은 2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외국인 스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5억여원의 예산안을 책정, 이달 하순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단체 선정기준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公告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는
본회 회칙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開催함을 公告하오니
同門여러분의 많은 同參 바랍니다.

· 일시 : 1999.9.15(수) 오후4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안건 : 임원선출에 관한 건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長 혜 총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 금 주 : 불 교 방 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05-5660~1)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관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5-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5-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95, 마하몰 대구지사 053)759-9006, 불교대구방송 사업팀 053)427-5119 · 부산 : 심장원 051)464-2586,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68-5055, 다성불교사 051)332-0289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9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180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3)282-780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255-8811 · 전주 : 마하몰 전주지사 0561)747-6108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1등 : 2명 (고승개심해탈 67매/세트)
·2등 : 3명 (고신다기 및 다기함/세트)
·3등 : 5명 (고신다기/세트)
·4등 : 10명 (문구업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마하몰상 : 200명(불성계걸림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사 설

여의도문화원에 거는 기대

여의도는 국회와 각 방송사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한마디로 정치, 언론, 금융 등 여론 주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1일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여의도에 불교문화원을 개설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 활동이 기대되는 바가 크다.

120평의 넓은 공간에 법당, 회의실, 차담실 등이 마련되어 법회를 항상 열고 신행단체들의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강습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것이라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여의도 불교문화원은 여타의 포교원과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여의도라는 장소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처음으로 종단적 차원에서 개설하는 도심포교원이란 점이다. 국회 정각회, KBS불자회, 금융단불자회, 연예인불자회 등 많은 신행단체들이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터라 아쉬운 바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불교문화원의 개원으로 이들 직장·직능불자회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차 여의도 불교문화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 하니 재가불자들의 참여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 비공개로 사찰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찰운영방식을 보여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종단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인 포교전략으로 개설하는 최초의 도심포교당이란 점이다. 종단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운영하는 최초의 개척포교당이자 종단 포교방향을 시험하는 장이란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게 된다.

사실 종단은 이제까지 포교를 3대 사업의 하나로 말해 왔지만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종단 차원에서 종교부지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존의 도심포교당들은 거의가 종단의 지원은 전혀 없이 오직 개인 원력으로 개설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영세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많은 문제점도 뒤따르게 되었다.

예컨대 경제적 뒷받침이 안되어 중도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였고, 개인적 원력에 의하다 보니 법당의 주불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의식을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혀 통일성을 보일 수가 없었다. 심지어 불교포교당이란 이름을 내걸기는 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외도나 사이비 행위를 일삼는 곳도 없지 않았다.

포교는 정법을 확산할 때 포교일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만 많이 끌어들였다고 포교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도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는 불교를 빙자한 상행위를 하는 것일뿐 불교의 포교는 결코 아닌 것이다.

개인 원력으로 출발한 기존의 도심포교당들은 일정단계까지 발전하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예가 많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종단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 것인가는 정체상태에 있는 타 포교당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최초로 개설된 여의도 불교문화원의 성공 여부는 이 땅의 전체 불교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애로와 난관이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포교사 82개팀 활동

직능·지역별 1017명 참여…'현장 포교' 극대화
조계종 포교사단 11월 중앙운영위 발족

조계종 포교사들이 자치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포교팀과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활발한 팀별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문 포교역량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서울·경기,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 5개 단위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군, 경찰, 교도소 △장의봉사, 복지시설, 자원봉사, 상담 △사찰안내, 신행단체, 직장포교등 4개분야로 나누어 4차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017명으로 조직된 14개 분야 82개 전문포교팀을 구성, 현장 위주의 팀별 포교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를 통한 포교사증 취득이후 개별적 포교 활동 이외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포교사들이 직능·계층별로 전문포교팀을 자발적으로 구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홀로' 포교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포교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포교사들이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회(상임위원장 김기병) 등 6개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별·포교분야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실상 자치적인 포교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포교사단은 중앙 및 지역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포교법 개정을 위한 포교원과의 협의, 포교사단 정관 초안 작업 등을 서둘러 오는 11월 20, 21일 전국 팀장 수련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포교분야는 장의봉사, 군포교, 사찰안내 등의 순. 직장 등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필요한 분야에서 포교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령은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남·여 비율은 비슷한 편이다. 아직까지는 포교사(2천여명)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지만, 포교팀이 부족한 청소년·어린이분야를 보완하는 등 내년까지 2500여명의 포교사를 대상으로 70% 정도인 1700여명을 130여개의 팀으로 조직·운영할 계획이다.

서영부 서울경기지역 상임위원은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포교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 성, 배치하기 위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포교팀을 구성했다"며 "신심과 능력,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전문가들이 현장 활동 중심의 포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종교지도자 잇달은 만남

10월 로마-11월 암만…고산스님 참석키로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10, 11월 잇따라 열린다. 로마교황청은 10월 24~29일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연다. 11월 25~29일 요르단 암만에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는 7차 총회가 열린다.

로마교황청은 로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대주제를 '제3차 천년의 전야:다른 종교들간의 협력'으로 정하고, 전체토의와 분임토의를 거쳐 선언문 형식의 문건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백여명의 전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산 조계종총무원장과 최창규 성균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일치위원회 총무 김성태 신부가 참석한다.

고산스님은 또 11월 25~29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7차 총회에 KCRP회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WCRP 총회는 70년 창립 총회를 가진 이후 5년마다 열리며, 총회는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정성운 기자

여의도 불교문화원 개원식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일 여의도불교문화원 법당에서 총무원장 고산,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 호계원장 월서 스님을 비롯 권익현 국회정각회 고문, 홍순우 금융감독원 감사실장, 장영효 MBC불자회 총무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 및 개원식을 거행했다. <인터뷰 4면>

여의도불교문화원은 주지로 임명된 종서스님(조계사 상임포교사)이 상주하며, 매일 오전6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한다. 법당 겸 선방과 차담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정성운 기자

졸업고사실시 '합의'

기본교육기관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기본교육기관장(학장) 회의를 개최했다.

해인사승가대학 백양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등 14개 기본교육기관(전체 19개) 학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사미·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종무방침을 결의하고 학인들의 면학풍토 조성을 위해 승가대학에서 졸업고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학년별 시험과 졸업고사의 방법(논문 또는 시험, 설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승가대학에서는 그동안 시험제도가 없어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강원에서는 강사 스님에 대한 결례행위가 수시로 노출되는 등 학인들의 수행 기풍이 문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사업국 폐지

출판업무 포교원이관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재무부 사업국을 폐지하고 사업국 산하의 조계종출판사 업무를 포교원으로 이관키로 30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국장 정인스님을 대기발령했다.

94년 신설된 사업국 폐지는 그동안 사업국이 종단 수익사업을 관장했으나, 달력 제작 및 판매 등을 하며 폐지여론이 있었다. 사업국 산하의 조계종출판사의 포교원으로의 이관은 그동안 출판물이 주로 포교원이 생산한 신도교육 및 포교 자료에 집중돼 있어 포교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8~11기 출신 8안거 성만자 구족계 수지자격"

기초선원운영위 결정…사미니기초선원 내년 개원

사미 기초선원 입방자(교과 1안거 이상 이수자) 중 행자교육원 8~11기 출신이 한해 정규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에게 구족계 수지 자격이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회(위원장 무여·축서사주지)는 8월31일 교육원에서 제18차 임시회의를 열고 기초선원이 개원된 97년 이전의 교육행정 공백을 보완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사미니에 대해서는 8·9기 가운데 올 10월말까지 8안거자에게 올해 구족계 수계자격을 주고, 사미니 기초선원이 개원되는 내년부터는 8기에서 16기까지 8안거 이상자에게 수계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초선원운영위는 또 10일부터 10월8일까지 동화사·백담사에서 기초선원 가을교과안거를 결제키로 하고, 기초선원장에 금산사 영진스님을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국어사전 불교용어 오류검토 보고서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스님)은 5종의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불교용어중 오류를 범하고 있는 2백57개의 용어에 대한 수정 대안문을 마련하여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오류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무원 문화부는 3월부터 국어사전 불교용어 검토작업에 착수해 4월 1차 보고서를 내고, 문제점이 드러난 4백여 단어를 지적했다. 또 이 가운데 오류가 심각한 2백57개의 단어에 대해서 대안문을 마련하고 7~8월 두 달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종욱 기자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선출" 요구

청림회·일여회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 내 종책연구모임인 청림회와 일여회는 8월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42회 임시중앙종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종회의원 탄우스님 사퇴 △총무원의 과행적 인사행정 시정 △동국학원 이사후보 사퇴 후 재선출을 요구했다.

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건립과 관련해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병원 건립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동국학원 불교병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일여회 회장 성관, 간사 장적, 청림회 회장 세영, 간사 월우스님과 정념, 여연스님이 참석했다.

두 모임은 성명서에서 "141회 임시종회에 불참한 이유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종회가 소수세력에 의해 이권결탁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며 "142회 종회를 맞이하여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종도들에게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요즘엔 테크노로 통한다지?

대한불교 무량종 임원 공고

원로원장	봉불사	파옹
종회의장	칠보정사	혜안
총무원장	은암정사	지은
총무원상임부원장	무량정사	령관
(감찰원장 경북대구종무원장겸임)	용주사	만오
교육원장	상락암	무운
종책자문위원장	팔보사	대범
종책자문위원	성주사	고담
수원지원장	건불사	대산
인천지원장	홍불사	성안
김포지원장	길손사	도안
경남종무원장	당포사	지암
상주	보리정사	지오
서무국장		김동복(청산)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 총 림 부산 은암정사 / 교육원 충주 성주사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무량정사)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전화 02)3216-1600

탈 종 공 고

하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에 따르지 못하기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귀하

사찰명 : 팔보사
성 명 : 장춘석(대범)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63-34

사찰명 : 성주사
성 명 : 이철우(고담)
주 소 : 충북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572

사찰명 : 상락암
성 명 : 서경일(무운)
주 소 : 서울 동작구 흑석2동 279-7호

사찰명 : 은암정사
성 명 : 양영수(지은)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사찰명 : 칠보정사
성 명 : 정동식(혜안)
주 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사찰명 : 칠보정사
성 명 : 박보덕, 황보현, 조춘기
주 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사찰명 : 용주사
성 명 : 배태웅(만오), 이혁구(수도)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50-1

사찰명 : 보리정사
성 명 : 채옥석
주 소 : 경북 상주시 연원동 586

사찰명 : 당포사
성 명 : 김도철(지암)
주 소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533

사찰명 : 은암정사
성 명 : 김성태(지공)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사찰명 : 삼성암
성 명 : 양춘자
주 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9

사찰명 : 무량사
성 명 : 지유천(인덕)
주 소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동리

대한불교 관음종 귀하

사찰명 : 길손사
성 명 : 구자광(도안)
주 소 : 인천시 서구 마전동 133-1

사찰명 : 홍불사
성 명 : 양채웅(성안)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01-13

사미의제 10월 전면실시

조계종 사미(니) 위계확립 5대 종무방침 발표

의제 미착용자 제도적 제재조치
작년 시행령 공포이후 학인들 반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 전국 교구본사 주지 및 기본교육기관 학장들은 2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사미·사미니 의제를 10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총무원·교육원의 '사미·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종무방침'을 종헌종법령 준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며 △종단의 법통 수호와 승가 위계 질서 확립을 위해 예비승들의 어떠한 집단 행동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이 이같은 5대 종무방침을 결의한 배경은 예비승려인 학인들이 종단과 어른 스님들의 사미(니)의제 시행에 반대하는 등 종단의 위계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월28일 총무원이 사미(니)의제 시행령을 공포하고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와 전국강원교직자회의, 종무회의 등에서 사미의제 시행을 거듭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미 강원에서 의제 시행을 공개적 반대하는 한편 전국강원학인연합이 교계 신문을 통해 사미의제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게재, 종단의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인상을 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강원에서 사미승들이 비구스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등 승가위계 질서가 허물어진다는 위기의식 팽배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강원의 강사스님들은 "학인들이 무서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미의제를 강력하게 실시해 위계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학인스님들은 사미(니) 의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외활동에서 신도들로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 상실 △세속적 권위주의(등급제, 계급제) 조장 등을 들고 있지만, 조계종의 예비승려로서 종단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피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계의 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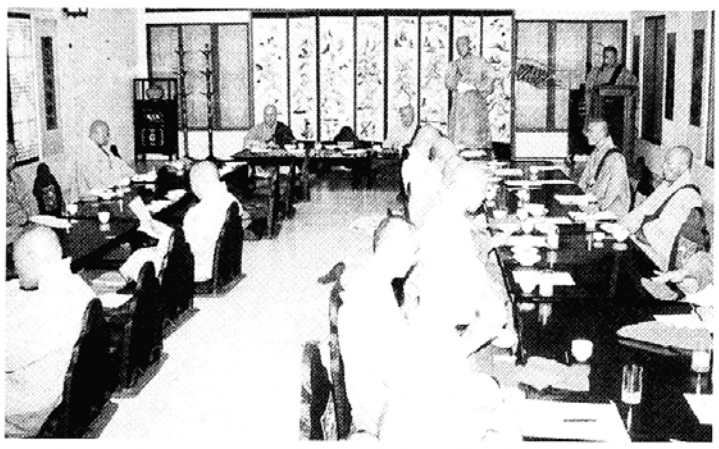
학인 스님들도 행자기간만 마치면 '스님'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행자 과정을 마치고 전국의 강원이나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과,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의 사미·사미니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비구·비구니 스님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종단의 법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6~7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예비승려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란게 중론이다. 청정승가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위한 철저한 하심과 인욕공부가 절실하다는 것이 원로스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종단 안팎에서도 지난해 종도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종령이 사문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승풍진작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위계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종단의 확고한 의지와 교직자의 적극적 찬성 등을 배경으로 발표된 이번 5대 종무방침은 반드시 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본사주지 및 기본교육기관 학장들은 2일 한국의집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종무방침을 결의했다.

사미(니) 위계확립을 위한 5대 종무방침

1. 전국 본·말사 및 승가기본교육기관은 10월1일까지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 수계자에게 사미(니)의제를 착용케 하고 결과를 종단에 보고할 것
2. 각 교육기관에서 사미(니) 의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종단 예산 지원 중단
3. 의제 미착용 예비승이 총무원·교육원 합동감찰반에 적발시 1차 1년, 2차 2년 유급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구족계 수지 자격을 제한
3. 사미의제에 관한 종무방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주동하는 예비승은 종헌·종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4. 승가대학 학인의 무단전학을 금하며, 전학은 학장의 허락과 교육원의 승인을 받을 것.

회의록 2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고산스님 본사에 '성역화 화주' 당부
교구 호법국장 신분증 발급 역할강화
수행환경 보존 대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사 성역화사업

2일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 첫 안건은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이었다. 총무원은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전종도들이 참여하라는 8월 28일자 종정 혜암스님의 교시를 발표했다.

혜암스님은 "흐트러진 종풍을 수습하여 진작코자 하니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은 수희동참하여 불법을 만고에 빛낼 대가람의 진면목을 현시(顯示)하라"고 교시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조계사 성역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조계사를 성역화한다면 모든 종도와 신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뜻을 합쳐 조계종의 위상을 높이는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자"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또 "5백만명의 신도로부터 1만원 이상 시주받고 독지가가 나서면 700~800억원이 조성될 수 있다"며 화주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호법국장 신분증 발급

본사주지들은 또 교구 호법국장 신분증을 발급해 교구 호법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호법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분증은 본사주지스님이 임명한 호법국장에 대해 호법부에서 신원조회 후 본사주지 명의로 총무원에서 발급키로 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종헌 종법의 수호와 승가의 기풍진작을 통하여 승단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위해 교구호법국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후 교구호법국에 조사권부여, 종단 호법부와 교구호법국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교구 내 사건에 대해 교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행환경 보존 결의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행환경 보존 등 김대중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무원과 본사주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행환경과 성보문화재 보존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 △국립공원입장료의 즉각 폐지 등 3개항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애초 김대중대통령의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공약 이행, 민영교도소 설치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으나, 더 연구키로 하고 삭제했다. 정성운 기자

목어

간다라 미술전

8월29일은 간다라미술 서울전시가 끝나는 날이었다.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10대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은 다양했다.

아이들 손잡고 나온 가족관람이 많았고, 나이 지긋한 불자들이 2~3명 또는 4~5명씩 함께 입장했다. 청소년들도 그룹지어왔다. 외국인 스님도 있었고 수녀도 있었고 전직장관도 보였다. 사암연합의 버스도 출동했다. 모두들 전시를 놓칠세라 열일 제쳐놓고 나온 모습이었다.

전시장에는 감동이 흘렀다. 불상이 없었던 무불상 시대를 지나 최초로 불상을 탄생시킨 간다라 미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전시작품들은 주로 기원후 1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조성됐다.

기원후 1세기, 경전의 제4결집과 대승불교가 탄생한 시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간다라미술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있다. 정면을 보고 있는 예배불상이 아닌 작품들은 초기불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 하듯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설법을 듣는듯 작품에 빨려들었다. 어머니 마야부인과 이모, 마부 찬타카, 이복동생 난다 등 부처님 주변의 인물들도 만났다.

어느 날 부처님은 우루벨라에 들러 배화교도이던 가섭 3형제와 그 무리를 교화하였다. 그때 불의 사당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독의 불을 뿜는 코브라를 빛으로 제도한 부처님의 모습이 불입상과 부조 '독룡이 든 발우를 보이는 붓다'로 표현됐다. 불입상의 두 손은 훼손됐지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처님 표정은 그대로 자비였다.

얼굴과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고 오른손에 발우를 든 '아쇼카 施土'는 공양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시는 2개월 동안 7만여명이 관람했고, 부산전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조형화한 1900~1600년전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감동의 교훈은 무엇일까. 문화의 세기가 목전에 와 있다. 이제 불사의 양태가 달라져야 한다. 간다라미술처럼 천년 2천년 이후에도 감동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불사를 하자.

최정희(본지 편집국장)

통도사 어떻게 돼가나

총무원 임명 현문주지직대 출입저지
문수사 관룡사 해남사 정화측 점유
'월하스님 모시기'엔 양측 이견없어

총무원의 통도사 주지직무대리 임명 후에도 통도사 정상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27일 통도사 주지직무대리로 임명된 현문스님은 28일 총무국장 시공(연임), 기획국장 성본(신임), 교무국장 초현(신), 재무국장 현초(연), 사회국장 명현(연), 포교국장 상원(신), 호법국장 지건스님(연)을 임명했다.

현문스님은 이날 7국장과 함께 통도사에 들어가 월하스님에게 주지직무대리 임명과 7직 인선을 보고하고 종무에 임하려 했으나, 월하스님이 주장자를 휘두르며 쫓아내 성전암으로 돌아갔다. 3일 현재까지 통도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통도사는 현재 월하스님이 임명한 현대, 원천, 현초, 동하스님 등이 월하스님의 지시에 따라 총무 교무 재무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다. 일상적인 재일불공과 초하루 보름법회에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총무원 직영사찰로 지정된 문수사 관룡사 해남사도 월하스님이 주지로 임명한 도각 정인 성본스님이 점유하고 있다.

종무소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등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번 하안거 결제에 방부를 냈던 수좌들에 중간에 모두 떠나는 등 사실상 선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좌들은 지난 7월 6일 월하스님이 수좌들에게 산중총회를 열려던 현문스님 일행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하자 선원을 떠나기도 했다.

통도사의 한 스님은 "결제 중 수좌들이 선원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총림으로서의 통도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산철결제라는 명분으로 지난 해 조계종사태에 참여했던 스님들 20여명이 통도사 선원에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

월하스님이 현문스님을 상대로 1일 울산지원에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현문스님은 "통도사 대중들은 월하스님의 유아독존적 사찰 운영에 대해 내심 반대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통도사 정상화를 위해 대중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문스님은 또 "우리는 월하스님을 문중의 어른으로 모실 것이지만, 통도사가 정화개혁회의의 본거지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을 통도사에서 퇴거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하스님측의 동하스님도 "결국 통도사는 한 집안이므로 월하스님을 중심으로 한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하스님 모시기'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도사 문제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놓고 있는 꼴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국정토 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

관정경에 관정이란 왕이 즉위하거나 전법(傳法) 수계(受戒) 할 때 또는 수도자(修道者)가 일정한 계위(階位)에 오를 때 사해(동, 서, 남, 북의 바다)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하여 주는 불사입니다.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전륜성왕이나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 공덕을 짓게 됨으로 현세에는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며, 복덕이 구족하여 빈곤하지 아니하며, 뜻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희유하고 성스러운 불사이며, 일생중 단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모든 불자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대덕문화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시 1999년 9월7일(음7월28일) 11시
주최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추진위원회
문의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T.02)3216-0165

■후원 :
한국불교중단협의회 · 대한불교 중정협의회 · 불교TV · 청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노인복지회 · 삼론법보신문사

⊙ 제 2회 관정수기 대법회 임원

대 법 주 이 대 산 대종사 (대한불교 종정 협의회장)
관정증사 전석봉 대화상 진지마 대화상 신각화 대화상 박팔봉 대화상 김혜승 대화상 이신수 대화상 사혜광 대화상
마정증사 김법진 대화상 최대운 대화상 류정봉 대화상 김법광 대화상 노우담 대화상 이만혜 대화상 이정수 대화상
연비법사 김오봉 대화상 임인봉 대화상 조법진 대화상 이종덕 대화상 최상순 대화상 서혜공 대화상 이용석 대화상

⊙ 고문 · 자문위원

고 문 강영순(향운) 이의동(원인) 배사옥(석왕) 도월천(대월) 김진오(해운) 윤원주(진여성) 방우순(대명화) 송동수(마명) 박현주(도안) 이연옥(대도심) 김점주(법장화) 이기남(설운) 신청월(청월) 강숙조(지화) 정성기(정각)
자문위원 장정배(혜일) 최천안(보현) 이분임(지인) 이지형(동림) 이종진(대원심) 성영옥(일심화) 구순옥(보덕행) 류기복(원화) 김기열(공덕심) 신순자(마하) 한상옥(선혜) 박순애(대정심) 김선조(법화) 김영숙(법륜화) 강선구(어옥순) 박명자

⊙ 대회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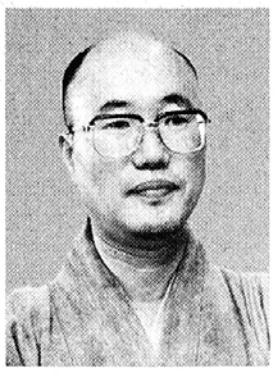
대 회 장 이 혜 공 스님 (혜명정사 회주)
부대회장 채 법 원 스님 (원진암 주지)

봉행위원회 위원장 김진봉 스님 (연화원 주지) / 부위원장 박상준 스님 (천보사 주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택봉 스님 (지장암 주지) / 부위원장 정법작 스님 (관음사 회주)
준비위원회 위원장 배향담 스님 (동림사 주지) / 부위원장 주도경 스님 (무량사 주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스님 (보림사 주지) / 부위원장 조지경 스님 (천용사 주지)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청봉 스님 (옥예원 원장) / 부위원장 김지겸 스님 (청국사 주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해암 스님 (무학사 주지) / 부위원장 허지호 스님 (태고정사주지)
문화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스님 (연화사 주지) / 부위원장 구본암 스님 (불도사 주지)
법요위원회 위원장 윤지운 스님 (우암정사 법사) / 부위원장 서혜공 스님 (화엄선원 원장)
동원위원회 위원장 이지해 스님 (용화선원 원장) / 부위원장 유지도 스님 (보안사 주지)
호법위원회 위원장 이지광 스님 (삼룡사 주지) / 부위원장 류의완 스님 (성불사 주지)
예경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스님 (청용사주지) / 부위원장 장묘안 스님 (보현사 주지)
지도위원회 위원장 정대안 스님 (안덕사 주지) / 부위원장 김달봉 스님 (동자암 주지)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여의도를 포교 1번지로…"

여의도 불교문화원장 원택스님



"여의도를 정치·금융·방송·연예 1번지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여의도지역에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펼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일 조계종총무원 직할포교당으로 문을 연 여의도불교문화원 초대 원장 원택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여의도 포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불사라고 강조했다.

직장직능단체 의견수렴 사랑방처럼 이용했으면…

종단직할 포교당인 만큼 새로운 운영방법을 실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원택스님은 "여의도불교문화원을 이용하는 직장·직능단체의 대표자 9~1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과 재정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여의도지역 불교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원회도 위촉해 직장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주길 당부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불자들과 단체들이 문화원의 주인입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제8회 행원문화상 발표

역경 이창섭씨 문학 성낙주씨
예술 김회경씨 대중예술 김용림씨


◇이창섭씨


◇성낙주씨


◇김회경씨


◇김용림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8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이창섭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문학상에 성낙주씨(노원중학교 교사), 예술상에 김회경씨(국악실내악단 오느름 대표), 대중예술상에 김용림씨(탤런트)가 각각 선정됐다.

이창섭씨는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법화경〉〈천태오소부〉〈오등회원〉 등 경전과 선서(禪書)를 번역하는 등 역경과 교학 발전에 힘써왔으며, 성낙주씨는 장편 불교소설 '차크라바르틴' '왕은 없다' 등을 통해 한국 불교소설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회경씨는 96년 '불빛에 피는 꽃'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를 작곡하는 등 불음 포교에 앞장섰고, 김용림씨는 불교방송에서 9년간 '신행365일' 프로를 진행하며 신행 포교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장 홍윤식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부문은 예술상"이라며 "후보로 올라온 가수 김태곤씨도 범패와 현대음악을 접목시키려는 의욕과 폭넓은 활동을 인정받았으나 창작실적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29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교차로

'관무량수경 강설' 출판기념회



혜경 한국불교법화종유지재단 이사장 스님은 1일 대학로 흥사단 건물 3층 강당에서 〈관무량수경 강설〉(집문당 간) 〈법화경이야기〉(범우사 간)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美 교회현황 살피고 귀국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은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라 워싱턴에 신설할 심인당 헌공불사 준비작업을 점검하고 LA 불광심인당을 찾아 교화현황을 살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양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1일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종 기초선원장에



영진 금산사 스님은 8월31일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선원장에 선출됐다.

도선사 주지 진산식



광복 도선사 주지는 6일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주지 진산식을 거행했다.

우란분절 개강법회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8월25일 삼화불교대학 법당에서 우란분절 및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성훈따주기 강의



무구 서울 수효사 주지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수효사문화원에서 성훈따주기 강의를 실시한다. (02)313-3060

'99 자원봉사자 대회



지도 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스님은 14일 오후2시 대구 한국통신 봉덕전화국 4층 강당에서 99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053)476-6631

밀교문화硏에 1천만원 기탁



대자심 진각종 대전수는 최근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에 연구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장경호거사 24주기 추모법회



박윤흔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은 5일 대원회 대법당에서 대원회 설립자인 故 대원장경호 거사 24주기 추모법회를 거행했다.

일초스님 '능엄경' 회향법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15일 오후2시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금화사 주지 일초스님의 〈능엄경〉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05-5305

KDI 초빙석좌교수에



박세일 前 청와대 불자회장(前 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경영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임명돼 가을학기부터 연구와 강의를 맡는다.

회갑기념 저서 출판기념회

김희오 동국대 교수(국제관계학)는 10일 오후 6시30분 경주 콩코드호텔 1층 에메랄드 홀에서 화갑기념 저서인 〈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현대지역정치론〉 출판기념회를 거행한다. (0561)745-7000

정년퇴임 논문 봉정식



이재순 건국대 교수는 17일 오후6시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3층에서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갖는다. (02)450-3566

강남에 '영봉학원' 개원



문명진 한마음선원 신도회 부회장은 지난 2월 교사직을 퇴직하고 최근 강남구 논현동 101-5 영봉빌딩에 '영봉학원'을 개원했다. (02)548-0131

보림회 창립법회

성상현 대한불교보림회 회장은 8월21일 서울 아현포교원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가졌다. 보림회는 장의·웨딩·돌·회갑연사업등 불교식 통과의례를 연구·개발해 저가로 서비스를 대행한다.

옥수복지관 명심보감 강의



김병조 불자연예인은 10일 오후2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워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개강좌에 나선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장에



이상규 천태종 금강합창단 지휘자(한양대 국악과 교수)는 최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 및 지휘자로 임명됐다.

대부도 둥지청소년집 위문

김인택 서울불교청년회 회장은 5일 대부도 자현사 둥지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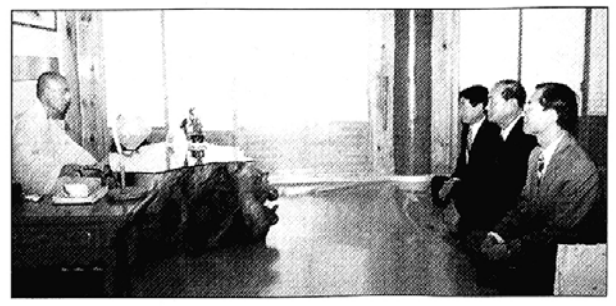
인 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최연(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부집행위원장, 사진 왼쪽) △기획실장 겸 총무부장 임동현(전 포교사단 사무국장·사진 오른쪽)





진각종 ◇회당학원 △심인중 교장 정희영 △심인고 교장 박노선 ◇진각증 총금강회 서울지부 △수석부회장 진산·일정지 △총무 성정·대성지 △감사 현암·시명 ◇진각복지재단 △과장 정은숙


◇8월27일 해인사로 혜암종정스님을 예방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창기씨(오른쪽서 두번째).

백창기 중신회장 종정 예방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임 백창기 회장은 8월 27일과 30일 각각 종정 혜암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당선 인사차 예방했다.

8월27일 혜인사 원당암에서 백 회장의 신임인사를 받은 혜암스님은 "중앙신도회장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책임감을 가지고 삼보를 호지하고 불교를 지켜주기 바란다. 대장부의 굳건한 마음으로 멀리 보고 정의롭고도 정성스럽게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30일 총무원을 예방한 백 회장은 "신도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신행을 활성화시키고 종단의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산스님은 "신도회가 화합을 이뤄 불교계의 난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및 임원단 취임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다"



과천복지관 제주서 장애인 스쿠버 교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승)이 주관하는 장애인 스쿠버다이빙 체험행사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도 서귀포 운섬에서 개최됐다.

장애인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하반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각 15명씩 30명이 참가했으며, 2일 과천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제주도 서귀포시 운섬으로 장소를 이동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스님다이버모임인 '천수천안 등우회' 스님 5명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안순진 노인대학장 별세



안순진 정각노인대학장이 2일 오후 12시 5분 노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85세.

안순진 보살은 1932년 경성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상)를 졸업, 해방전 불교신우회 발기위원, 해방후 건국준비위원 위촉, 87년 통일민주당 김영삼대통령후보 불교담당 특별보좌역, 전국여성불교연합회 초대회장, 불교도총연합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총무원장 여성봉사상을 수상했다.

5일 오전 11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의예식장 11호실에서 발인. (02)363-5299

충격 티베트 달라이라마 제도는 끝나는가?

차기 달라이라마는 인도인, 유럽인, 혹은 여성일 수도 있다. 중국의 압력속에 15세 선출은 불가능할 수도…



불교저널 제2호 / 신국판 / 240쪽 / 가격 7,000원

영화와 불교 〈마음의 고향〉에서 〈화엄경〉까지 목호찬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법구경〉

발굴 불교소설 〈가야진 용왕당기우록〉 태허당

특집 불교와 환경 환경을 통한 연기의 개선운동 도법
사찰 환경보존 안전핀이 없다 김태형
불교와 환경(라이나노이) / 바른 농사, 바른 세상(김맹수)
생태환경에 대한 불교적 각성

대행스님 독일법회
한국 비구니스님의 독일 첫 법회

종교간의 대화—가톨릭 수원교구 대천동 성당 방상복 신부
"천주님께 108배 하는 신부" 박연진

스승예찬 벽안의 수행자를 독려하기 위해 화를 내시는 스님
구산스님께 진 빚 로버트 버스웰

르포 중국에 남긴 한국고승의 족적을 찾아서—조영록
삼국·고려스님의 구법성지 천태산을 가다

제1회 만해축전
만해문학의 사상적 의미—시대의 현실과 맞서기 위한 출가

새롭게 불붙는 여성불교
가족과 개인의 행복을 비는 기복불교라는 비판속에서도 실천불교를 향한 여성불교계의 움직임은 힘차기만 하다.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 / 스리랑카의 여성불교 外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 윤청광
백호주의 극복한 호주불교 다렌 넬슨

위기에 처한 불교유산
위험 문화유산이 된 유적, 앙코르 돔

칼라화보 동트는 운주사 / 통도사 옥련암 아미타 삼존도 / 대행큰스님 독일대법회 / 아잔타 석굴 벽화 / 달라이 라마의 보좌 / 앙코르 돔의 불두와 노스님 / 용수로 뒤덮인 관음상 / 평온한 불교도들
현대불교시 감상
신인소설 아름다운 계절(백자오)
미술 운주사의 부처님들(신명순)
연극 장호의 시극 〈수리뫼〉(김홍우)
영화 임권택의 불교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문학산)
만화 맨질스님(정수일) / 달마와 무제
옛날 이야기속으로 사면과 보은
사찰탐방기 칠불사(최장수)



투고를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불교시사논평,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2.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글
3. 불교를 소재로한 시, 소설, 동화, 동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만화 등
4. 불교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의 평론
5.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
6.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7.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8.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필명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명과 주소 전화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우)100-380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면빌딩
전화 02)2285-2421/2 FAX 02)2285-2420

구독신청 전화 (02)2285-2421~2 팩스 (02)2285-2420

탐방 불자약사 보리회

외롭고 아픈 사람들의 '약손'



◇불자약사보리회는 1년 내내 점심을 김밥으로 때워가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무료 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약사 14명이 결성
탑골공원서 무료 투약

"할머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데요. 조금씩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다음달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니까 그때 또 나오세요."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탑골공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적게는 1천3백여명에서 많을땐 2천여명에 이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실직노숙자들이 봉사활동을 나온 대한불교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의 무료 검진을 받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다.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약손이 되어주는 불자약사보리회. 98년 9월 14명의 약사들이 모여 결성한 신행회로, 1년째 탑골공원에서 무료 검진 및 투약을 실시해 오고 있다. 회원들이 갹출하는 회비와 의약품도 한계가 있어 매월 약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는 1년 열두달 점심을 김밥 한줄로 때우며 자비 실천하고 있다.

유선인화 총무는 "이제는 목이 쉬어가며 질서를 잡아주는 든든한 할아버지도 생겼고, 조건없는 베품에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5만원이 든 봉투를 넌지시 내미는 젊은 아저씨 후원자도 생겼다"고 말했다.

백숙희 회장은 "어느 누구나 부처님 말씀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실천하고픈 마음은 많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내실있는 모임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천원 1구좌 운동을 벌이며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불사약사보리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사보살의 화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829-21-0593-249(백숙희) 도필선 기자

대중속에 꽃피는 '직장불심'

경불회 환자위해 음악회 열어
심 상 노인 영정사진 무료 촬영
포항운불 지역장애인 수송 봉사

8월31일 오후6시30분 경희의료원 로비.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회장 황보추)가 연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한창이다. 환자복 차림에 링거를 꼽고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환자, 목발을 짚은 환자, 손에 깁스를 한 환자 등을 비롯 그 가족으로 보이는 2백여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윤충 병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강수 불자가수회 회장을 비롯 10여 명의 불자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우스갯 소리를 하는 사이 환자들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배어났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 듯 했다. '홍콩아가씨' 금사향씨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가 '환자들을 위한 작음 음악회'를 개최한건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매주 정기법회를 열며 개인 신행활동에만 주력해온 경불회는 그동안 일반 신행회는 물론 직장직능불자회들이 포교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앞장서 왔던데서 벗어나 타종교인을 비롯한 일반인을 향한 포교전략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불교 대중화' 새들짜기에 나선 것은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허애영)도 마찬가지다. 2일 석왕사에서 부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갖고, 포교 전선에 나섰다.

심상은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해 불교를 인식시킨 뒤 점차 그 가족과 이웃들로 포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애영 회장은 "창립이후 줄곧 포교를 위한 동우회 활동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지만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찍은 불교사진 전시회를 갖는게 고작이었다"며 "불자들에 한정된 포교가 아닌 타종교인들까지 포용하는 포교방안을 강구하는 대중화운동을 벌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직능불자회가 대중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경불회는 8월31일 '환자를 위한 작은음악회'를 열어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법의 향기를 전했다.

포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권용재)는 장애인 무료수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달리는 법당' 포항운불련 회원들이 달려가 장애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며, 불교에 호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신행활동 외에 생활 속 깊숙히 파고드는 포교활동에 나선 직장직능불자회의 이같은 활동은 '불교대중화' 방안 모색이라는 점 외에도 직장내에서 불자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도 되고 있어 각 불교단체에 포교활동 모델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장애인들의 손발이 됩시다"

하이텔 칠연회 수계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정기문)는 11~12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9년 후반기 수계법회 및 칠연회 전국모임을 개최한다.

하이텔불동은 하이텔내 중증장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만날수 있도록 결성된 칠연회 소모임을 계기로 누구나 불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전국모임은 저녁예불, 회원간 자기소개, 퀴즈쇼, 경매, 노래자랑,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에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참여한다.

정기문 대표시샵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불·정불·과천신도회
운문사·표충사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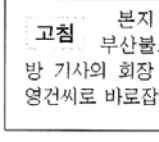
평생불자회, 정부 과천종합청사 불자 모임 정불회, 과천신도회는 8월28~29일 청도 운문사, 밀양 표충사 합동 성지순례를 가졌다. 〈사진〉

정불회와 과천신도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의 인연으로 지역 신도회와 직장불자회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지순례단은 첫날 운문사에서 천배 철야 관음정진, 금강경독경에 이어 둘째날 표충사와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사명대사 비를 참배했다. 운문사 주지 혜은스님은 투병담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신행하면 부처님께서 꼭 가피를 주신다"며 "정법에 귀의해 부끄러움이 없는 불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모임에선

한화갑·노무현의원 가입



새정치국민회의 불교신행모임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8월말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사진왼쪽)과 노무현 동남발전특위 위원장(오른쪽)의 회원가입을 추인하고, 두 의원을 연등회 고문과 부회장에 추대했다.

서경인 교사련 창립 2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1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서울·경기·인천지부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초청법사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연합회는 그동안 매월 한차례씩 정기법회(홀수달)와 성지순례(짝수달)를 가진 것은 물론 청소년포교를 위해 힘써 왔다.

'좋은방송을…' 41호발간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6월부터 8월까지의 방송모니터 모음집인 〈좋은 방송을 위하여〉 통권 4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논단 '불교의 방송 참여 전략과 프로그램 활용방안', '통합 방송법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침 본지 제234호 5면 부산불교거사림회 탐방 기사의 회장 서영건씨를 엄영건씨로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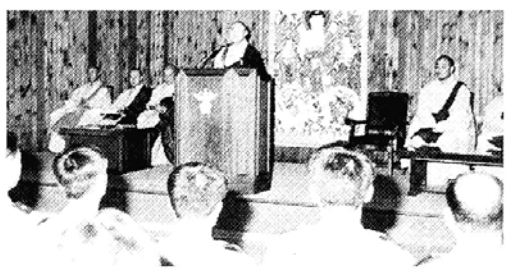
부천 원종종합복지관 개관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8월 31일 지역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원종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영담스님을 비롯해 원혜영(부천시장) 안익순(부천 시의회 의장)씨 등이 참석했다.



연꽃마을 우만어린이집 개원

연꽃마을은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우만2동 소재 우만어린이집 개원식을 8월 30일 거행했다. 우만2동 어린이집(원장 김미경)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 이날 개원식에는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을 비롯해 심재덕(수원시장) 김영서(수원시의회 의장) 이우영(수원시 팔달구청장) 양종천(수원시의회 의원) 등 지역인사와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경찰서 경승실 개원법회

경기 화성경찰서 경승실장 성호스님(조계종 연수국장)은 8월31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증명법사로 경승실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정오, 용주사 총무 심경, 천불사 총무 도운,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과 우재항 서장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화성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소속 불자 경찰관 등 5백여명이 함께 했다.



불기협 연수회 성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 99년도 하계 연수회가 8월 28~29일 양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불기협의 이번 연수회는 예불 및 108배 정진, 사찰순례, '교계 현실과 불교언론의 나아갈 방향'(김병규 문화일보 전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의 사진촬영 기법'(조명동 경향신문 전 사진부장)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신간

육바라밀이 어렵다고요 ?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4×6판 / 186면 / 3,500원

보시바라밀 정진바라밀 지계바라밀 선정바라밀 인욕바라밀 반야바라밀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
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
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
이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160면 / 값 3,5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조형물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국판 / 320면 / 7,000원

이야기로 푼 '오분향 예불문'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240면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이렇게 들었다

화합

성냄과 원한 대중을 어지럽힌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생했던 조계종 분규의 상처는 아직도 깨끗이 아물지 않았다. 최근 조계종이 내린 영축총림해제 결의에 대해 울산지법이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다수 불자들은 지난번과 같은 분규가 또 일어날까 걱정이 크다. 많은 불자들은 더 이상의 잡음이 없는 화합된 승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화합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찰하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틀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망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인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헤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집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실상을 살삽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사문 고오타마는 두 말을 버려 없애어 이 말로 저를 괴란(壞亂)하지 않고 저 말로 이를 괴란하지 않으며 쟁송이 있으면 잘 화합시키고 이미 화합하면 그 환희를 더하며 말하는 바가 있으면 화합을 떠나지 않고 성실합이 마음에 들어가 말하는 바는 때를 안다. 또 고오타마는 악구(惡口)를 버렸다. 만일 추한 말로 사람을 손상하면 그의 결원(結怨)을 더 하고 원한과 미움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 추한 말은 아주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여러 사람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바로써 염증을 내지 않는다. 〈범동경〉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악행을 범하고 남을 앞에 두고 욕지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 고 하시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다섯가지 역죄(逆罪)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일, 부처님의 몸을 상하여 피가 나게 하는 일이다.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십륜경〉

해외동포 포용하자



정진우
경불련 간사

우리 민족처럼 많은 아픔을 간직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천번의 외세 침략은 물론이거니와 그 처절했던 일제 36년간 식민의 경험,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현대에 점철되었던 그 많은 차별과 배타 등등.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찬찬히 그 아픔을 되새기고 감싸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새천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외국국적 동포를 규정하여 그들에 대해 출입국의 자유, 2년까지의 체류,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를때 의료보험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 법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외로 나간 중국 조선족(220만명), 옛 소련의 고려인(50만명), 조선국적의 재일동포(15만명) 등이 제외되었다. 이 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들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 진지하게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겨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한국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해 줄수 있는 일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나누는 정이며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목탁소리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최근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조사' 결과는 불교계에 청신호를 밝혀주었다. 불교는 노령인구가 많고 청소년종교인은 으레 개신교가 많다는 선입견을 깬 것이다. 물론 가톨릭까지 합하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불교 청소년인구가 4년전 통계청 전체인구조사보다 8%정도 늘어났다는 결과에 대해 불교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반가워하는 이가 상당수다.

매년 이런 조사를 해서 불교포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 인구가 늘어난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등이 결성돼 청소년 포교를 열심히 한 결과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결과가 3,123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였기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보다는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적 사안에서 벗어나 한발짝 더나아가 미래불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포교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이 불자라고 대답한 청소년가운데 70.9%가 신행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어린이와 청소년법회가 시작됐던 80년대초나 21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이나 어린이·청소년법회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한문경전, 구태의연한 법문내용 등은 사이버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넷(net)세대인 청소년들을 사찰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사찰이 변해야하고 지도법사들이 깨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여전히 과제로만 남아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포교, 힙합과 랩으로 전하는 신세대 찬불가등 청소년을 찾아가는 포교방안을 마련하자. 청소년불자가 늘었다고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한사람의 청소년불자가 미래불교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불교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종단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침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인터넷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전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재 보존정책 절실

이번 현대불교에서 거의 모든 목조문화재에 퍼져있다는 흰개미의 피해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사찰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불교문화재는 불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족의 것이고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한 귀중한 불교문화재가 관계부처의 예산 및 인력타령속에서 하나하나 훼손 또는 멸실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과연 인력과 예산만의 문제일까. 얼마전 신라시대 금관이 미국전시회에 출품되는 과정에서 미국측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는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유럽순회전에 참가한 국보 감산사부처님은 전시되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문화재일각에선 수백점에 달하는 국보급 문화재 진품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나 외교논리가 우선돼 묵살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한낱 구호나 수식어에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재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식〈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지혜모으고 화합해야 통도사문제 해결가능

얼마전 지방법원에서 통도사 총림 하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불보종찰 통도사는 총림이든 총림이 아니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행의 장임에는 변함이 없다. 통도사가 긴 시간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컷을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워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불법을 전하는 수행도량을 사람의 욕심이나 세속법의 심판으로 무너뜨리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과 스님들이 보다 한결같은 신행을 꾸려갈 수 있도록 통도사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화합의 길을 가길 기대한다. 모든 조건을 떠나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불교전체를 위하는 마음만이 통도사의 조속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김용장〈부산시 북구 덕포동〉

불사금 빙자 불자 우롱 장삿속 법회 근절해야

3달전 수유동의 한 회관에서 '삼중스님 교화기금마련 법회'란 행사에 동참했다. 아는 도반이 법문행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삼중스님은 나오지 않고 삼중스님의 영상비디오만 몇분 틀어주고 18만원짜리 염주세트를 나눠주어 받아왔다. 염주판매대금은 교도소 등 교화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해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로로 한달에 3만원씩 3번 보냈다. 그런데 '현대불교'를 보니 이 법회가 염주를 판매하기 위한 사기성 법회라는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었다. 스님의 복장으로 불자들을 속이고 부처님법을 펴는 법회를 염주판매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 더구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법회가 한두번이 아니라 전국을 돌며 수십차례 열렸다고 하니 언론에서 이런 사기성 행사는 하루빨리 그 진상을 파헤쳐 더이상의 피해를 보는 불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강수옥〈서울 강북구 번 2동〉

승가의 세속적 생일잔치 다시 생각하자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당신 생일이라고 또는 환갑이라고 무슨 잔치같은 것을 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산문에는 생일과 환갑, 칠순을 행기는 세간의 풍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공부한 수행자에게는 이러한 일을 일체 찾아볼 수 없으니 승가에 세속적인 형태의 요란한 생일잔치니 환갑잔치니 하는 행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굳이 축하해야 한다면 수행자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이 모두의 생일잔치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고 신도들이 굳이 차려주는 경우 조촐하고도 뜻있는 모임이어야 할것이다.

동묵〈전북 전주시〉

목·소·리

터키난민을 돕자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오늘날 지구촌 시대를 살고있는 많은 인류가 민족과 국가간에 서로 이해하고 어려울 때 온정을 베풀면 지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최근 터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다.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 마을을 잃은 사람 등 의식주 모두를 잃은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진이라는 지구의 대 재앙앞에 터키국민들은 넋을 놓고 바라만 볼 뿐 져 땅속깊이 묻힌 가족의 시신은 찾을 생각도 못하고 다친 부상자들은 의약품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산 사람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다 잃었다. 도로는 유실되고 땅은 뒤집혀져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터키 지진소식을 TV, 신문 등으로만 보고있는 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여나 TV뉴스속의 터키 지진소식을 접하며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감각적으로 흘려보내는 국민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먼나라의,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나라의 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터키는 한국전쟁때 1만5천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한국을 도왔고 그 전쟁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나라이다.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때 우리가 보답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일을 보고 돕고자 하는 것은 종교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반인도 능히 마음을 내야하며 특히 부처님의 사상과 행적을 따르고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와 동체대비를 강조하는 우리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들을 우리 일처럼 나의 일처럼 도와야 하며 측은지심을 내야 한다. 지난 94~95년 아프리카 르완다난민 돕기를 전개하여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을 실현하였듯이 지진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터키인들에게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한다.

봉선회 임시총회 공고

운악산문 봉선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해

▶일 시 : 2543년 9월 11일 오후 2시
▶장 소 : 봉선사 청풍루
▶안 건 : 장학금에 관하여
봉선회 활성화
기타

불기 2543년 9월 1일

봉선회 회장 인묵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전통의식(범패, 바라무, 착복무)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 습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범패,작법) :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99학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 과정(범패, 작법)	요일/과정	습의(梵唄) 과정(불전의식)
월	18:30-20:00(학교강의실)	화	18:30-20:00(학교강의실)
목	18:30-20:00(학교강의실)	금	18:30-20:00(학교강의실)

응시자격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자
○각 과정(어산, 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가자일 경우)

접수일자 99.8.30(월) - 9.10(금)
면접일자 99.9.11(토) 오후2시
개강일자 99.9.13(월)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3층) T. 02)921-342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가을과 음악과 불심 '하모니'

- 9일 남양주 백천사 '산사음악회'
- 13일 부산KBS홀 '자비실천 음악회'
- 15일 경주서 동국대 국악과 정기연주회
- 10월2일 신흥사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
- 10월19일 불교음악硏 '운문스님 기념음악회'



◇올 가을 전국에서 불교 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중앙국악관현악단과 불교연합합창단의 연주로 2월 27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된 국악교성곡 '혜초'의 장면.

걸망 하나 짊어 지고 어디론가 더나고 싶은 계절.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을 덮고 가을이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사를 잠시 접어두고 아름다운 선율에 의지해 달콤한 휴식을 취하기 좋은 때다.

마침 백천사 산사 음악회' '운문스님 기념 음악회' '민족화합 자비 실천 음악회' '동국대 국악과 정기 연주회' '김영동의 산사 음악회' 등 대형 무대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9일 백천사 앞 마당에서 저녁7시 '제2회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례 및 시민을 위한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심진스님이 '무상초' '우리 가는 길' '어머니' '산사' '사모곡' 등을, 불자 가수 머루와 다래가 출연해 찬불가요로 음성공양하며 가수 송창식도 나온다. 이외에도 티벳스님들이 사후에 축생으로 태어나지 말도록 기원하는 고유의 티벳춤인 사자춤과 사슴춤을 선사한다. (0346)577-6433

13일 오후1시 부산KBS홀에서 열리는 '민족화합 자비실천 음악회' 역시 대구불교방송 예술단의 관현악과 합창이 펼쳐진다. 분단의 아픔과 지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이 마련된다. (051)867-1515

15일 저녁7시30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동국대 국악과 정기 연주회'도 빼놓을 수 없다. 1부에서는 시나위 합주, 범패 등 불교 음악의 정수가 연주되며 바라무와 나비무, 승무 등도 곁들여 진다. 2부에서는 창부타령과 아리랑 등 전통 민요들이 국악관현악의 반주에 맞춰 연주돼 관객들의 흥을 돋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0561)770-2509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10월2일 '99 관광엑스포'의 일환으로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를 공연한다. '초원' '산행' 등 기존곡과 6월에 발표한 신곡 '메아리' '노을' 등 20여곡이 연주될 신흥사 음악회에는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 또 중간에 삽입되는 코러스는 보컬그룹이 연주를 맡는다. (0392)636-7393

10월19일 한국불교음악협회(가칭)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합창'을 주제로 한 '운문스님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수많은 찬불가를 만들어 불교음악에 큰 공헌을 한 운문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스님이 작사한 '예불가' '산회가' '보현행원' 등을 시립국악교향악단의 반주에 맞춰 사찰 연합합창단 8백여명이 연주한다. 또 정부기교수(중앙대 한국음악과)가 불교를 소재로 창작한 오페레타 '아미타불'도 공연될 예정이다.

가을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회는 불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 주최로 1·2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4회 동양 음악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 범패의 유형과 가창'을 주제로 법현스님(동국대교수)이 발표하고 있다.

동양 불교성악 총체적 조명

서울서 열린 '동양 음악학 국제학술회의'

6개국 불교음악학자 7명 각국 전통불교음악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불교 성악을 동양 불교 음악과의 비교를 통해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국제 음악 학술대회가 열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은 1·2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4회 동양 음악학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 불교권 각 나라의 전통 불교 성악의 역사와 특징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티벳, 중국 등 6개국 불교 음악학자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한다.

▨ '한국 범패의 역사' -권오성교수(한양대):범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하동 쌍계사의 '진감선사 대공탑비문'에서 보인다. 진감선사가 당에 가서 범패를 배워 귀국한 후 제자들에게 어산(범패)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세조때 학자인 김수온이 저술한 〈사리영응기〉에 의하면 조선시대 범패에 사용됐던 악기는 29종으로 악공은 45명이며 그외에 죽간자 2인, 가자 10인, 집화무동 10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범패의 유형과 가창' -법현스님(동국대):불교 의식 진행시 불려지는 모든 염불을 지칭하는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청은 한글로 구성되었으나 안채비, 바깥채비는 한문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범패는 소리를 직접 가창하지 않고서는 소리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범패의 모든 유형의 소리는 음반화 작업이 필요하다.

▨ '인도의 불교 성악' -리트위크 사니알교수(인도 바나라스 힌두대):북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종교 음악인 '드루빠드'는 양식별로 유파들을 통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비해 네팔 불교음악인 '챠르야'는 13세기 후 인도에서 불교가 붕괴 됐을 때 카투만드 계곡에 남은 불교유파들이 의식과 명상에 이용되면서 보존됐다.

▨일본 불교 성가 '쇼묘' -아리이고준(일본 우에노학원 음악 연구원)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 성가를 '쇼묘'라 하는데 이것은 1960년 이래 일본 음악의 원류로서 재발견되어지고 있다. '쇼묘'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것은 752년 동대사대불(東大寺大佛) 개안공양(開眼供養)에서 4곡이 불려지면서 부터다. 1472년 발간된 '성명집(聲明集)'은 현존 세계최고의 악보집이다.

▨북경의 불교음악-티에청(중국음악 연구소 연구원):북경에는 지화사(智化寺)로 대표되는 도시의 음악인 경음악과 시골 음악인 '겁음악'이 있었다. 두 유파는 악대편제가 같으며 모두 관악기와 타악기를 사용했지만 타악기를 더 중시했다. 1953년까지 지화사에는 예승(藝僧)이 19명 남아 있었고 절에 들어가 7년 동안 엄격한 혼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 '티벳 불교성가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 -앨리스에게드(라디오 프리 아시아 음악감독):티벳의 불교음악인 '드비앙(dbyangs)'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티벳의 종교 지도자인 판디타(1183~1251)의 음악 논문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티벳어와 산스크리트어의 언어적 음양의 차이 때문에 인도의 음계는 티벳의 성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몽고의 불교 가곡' -자무스(중국중앙민족대학 연구원):몽고의 불교 가곡은 불교의 탄생이야기와 고승들의 역사 이야기 등 서사가곡이 대부분이다. 원나라 멸망후 13세기 중엽에 티벳에서 전해진 몽고 불교 성악은 몽고 라마승이 아침저녁으로 과독(課讀)하거나 법회 송경할 때 사용하는 '송경조'와 의식가곡 및 서사가곡 등을 포함하는 '불교가곡' 등으로 나뉜다. 김주일 기자

사색의 자취 그림과 글로

원성스님 첫수필집 '풍경' 펴내

천진무구한 동자승의 동글동글한 얼굴을 일러스트처럼 곱게 그려온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이 생활과 사색의 자취를 그림과 글로 풀어낸 첫 수필집 〈풍경〉(이레 刊)을 엮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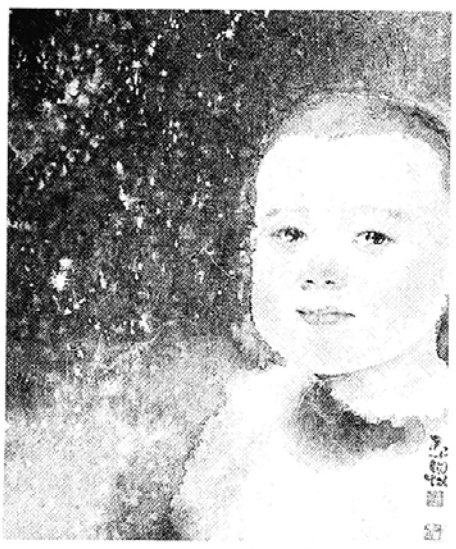
고교 2학년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출가해 겪은 눈물겨운 삭발과정, 어머니를 못잊어 눈물짓던 하루하루, 예불, 공양 등 산사의 일상을 담은 글과 솔바람, 첫눈 등 자연에 대한 감상을 담은 글 등 80여수의 시와 각 시마다 그림이 수록됐다.

그림과 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각 장은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돌이켜보게 하는 묘한 여운을 남긴다. 또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젊은 수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구도나 심오한 선의 세계가 아닌 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스님의 그림은 여백을 살린 다양하고 독창적인 묘사와 기법의 구현을로 보는 이들에게 가슴이 저릴 정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장난기 어리고, 싫어싫어, 몰라몰라 투의 떼쓰는 듯한 스님의 글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원성스님의 '첫삭발'.

日소장 백제문화재 '첫 고국나들이'

미륵보살반가상 '볼 기회'



미륵보살반가상, 일광삼존상(一光三尊像)등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급 백제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9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금동제 미륵보살반가상〈사진〉은 7세기에 제작됐으며, 충남 공주시 절터 석탑 안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광삼존상 역시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금제수식, 금동제 수면대금구등 47점이 선보인다. 오종욱 기자



◇사라비티의 기적

'간다라 미술대전' 서울 관람 7만명 10일부터 부산에서

미술 애호가의 관심 속에 열렸던 '간다라미술대전'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10일부터 11월10일까지 부산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파키스탄의 국보급 간다라 미술품들이 유례없이 한 자리에 모인 세계적 수준의 전시였던 '간다라미술대전' 서울 전시(6월30일~8월29일)에서는 7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에서 열리는 '간다라미술대전'은 부산불교연합회 등이 후원하며, 10일 오후 3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부처님 고행상' '불입상' '불두' 등 120여점이 선보인다. (051)637-6556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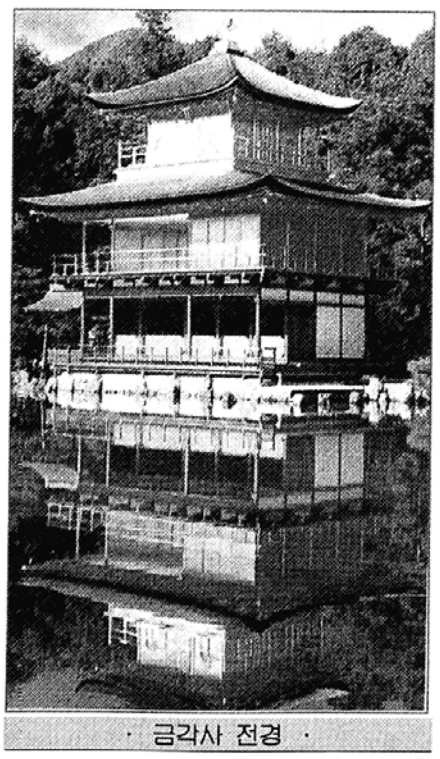
문화재청, 국보·보물등 159건 수록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문화재보수사업의 수리내용을 수록한 〈'97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97년에 완료된 문화재보수사업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수리(국보 6건, 보물 57건, 사적 62건, 중요민속자료 24건) 159건을 수록, 문화재 연혁·주변환경·수리내용·수리전·후 사진·시공도면 등을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 성곽, 석탑, 고분등 문화재 수리에 대한 정보를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함으로써, 기록보존뿐 아니라 학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불교 성지순례

21세기를 맞는 한일 불교 친선의 상징 법회와
관서지방의 일본불교 핵심사찰을 참배하는 행사를 안내합니다.



· 금각사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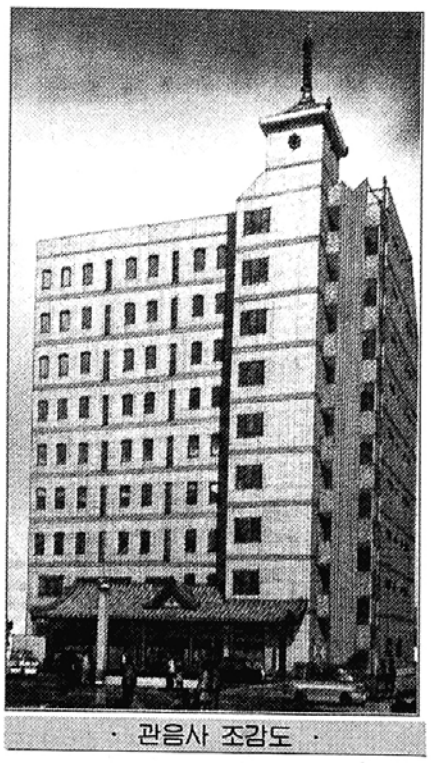
아 래

日字	地域	時間	日 程
12월03일 (금)	오사카 교 토	11:55 18:00	오사카 도착후 교토 이동 삼십삼간당 참배후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4일 (토)	교 토 나 라 오사카	09:00 18:00	조식 후 호텔 출발 금각사, 광륭사, 동본원사 참배후 나라동대사대불, 법륭사, 약사사, 비조사 참배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5일 (일)	오사카	09:00 18:00	조식후 호텔 출발 ※관음사 행사 참석 오사카성,신사이바시, 도톰보리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6일 (월)	오사카	09:00 15:10	조식후 숙소 출발 사천왕사 참배후 공항 이동 오사카 출발

- 가 는 때 : 1999. 12. 3 - 12. 6 (3박4일)
- 가 는 곳 : 오사카, 교토, 나라
- 동 참 비 : 1인당 89만원정 (신청금 20만원 포함)
- 접수마감 : 1999. 10. 31 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임조선사 (0344)903-9121 임조스님
원주불교회관 (0371)764-9888 이선행법사
광주연합회.(062) 226-4729 이장국거사
부산반야포교원 (051)761-1908 김종호 법사
제주 (064)757-1622 김매강 보살
제주한라불교 (064)755-2203 조인석국장
서울 평불협 (02)735-5558 이지범 국장

- 수속대행 : 두성관광 (02-730-6100)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관음사 조감도 ·

버리고 사는 마음… | 윤청광 지음

화제의 책

겸익스님 삶과 사상 소설적 구성



불교의 계율과 정신을 전해 준 겸익스님. 신간 〈버리고 사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일세〉는 겸익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한 일대기로 윤청광씨가 쓴 고승열전 시리즈의 스물 네 번째권. 인도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계율인 오부 율장을 들여와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님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열반에 들기전 제자와의 대화 한토막이다. "스님, 어디로 가신다 하십니까?" "온 곳도 따로 없거늘 가는 곳인들 따로 있겠느냐.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름 생겨남이며,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이라…." 언어와 문화 刊, 값 8천원.

존재, 그 완성으로… | 구선스님 지음

화제의 책

마음 觀하여 空 증득하기까지



존재란 무엇인가. 구선스님(영양 연화사 주지)이 펴낸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觀〉은 이러한 의문을 주제로 쓰여졌다. 1부 '생명의 본성과 존재의 시발' 편에서는 존재가 의식의 틀을 갖추어 가는 과정과 생명이 영혼과 육체를 갖추어 가는 과정, 그리고 기타 생명의 이치에 대해 현재 시기까지를 기점으로 다섯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2부 '마음을 관(觀)하는 법'에서는 존재가 자기 내부의식을 발현시켜 스스로의 의식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방법과 내부의식 각각에 있는 공(空)을 증득하는 방법을 네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봉성기획 刊, 값 1만5천원.

인도 명상여행 | 박지명 지음

화제의 책

인도의 사상·문화 일목요연 정리



히말라야 명상요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명씨가 쓴 〈인도 명상 여행〉은 인도의 정신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인도의 사상과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책. 인도 고대사상의 핵심인 베다사상부터 현대의 사상에 많은 영향과 자각을 일깨워 주는 인도의 종교 및 수행자들의 철학과 행동을 수록하고 있다. 또 인도의 성지 및 인도인들의 생활과 특색있는 문화도 해설하고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인도 정신세계의 중심이 되는 경전들의 핵심사상을 해설하여 경이로운 철학세계도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하남 刊, 값 1만원.

새로나온 책



△완전한 깨달음(혜공 지음)= 부처님께서 깨달은 무아연기 중도는 무엇인가.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절대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했던 저자 김경환씨(법명 해공)의 체험담과 마하리쉬 등 수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다. 이 책은 구도자의 길, 101가지 지혜, 도와 종교에 관하여, 깨달음의 노래 등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리수 刊, 값 7천원.



△인간혁명과 경영창조(노부호 지음)= 정보화 시대에 인간혁명과 경영창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각 개인의 특이성과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 개발, 인정해 주는 조직이 아니라면 존립의 의미와 가능성도 없다. 시장경제원칙과 인간적 경영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자율과 책임의 기업가 정신으로 한국경제를 되찾을 수 있다. 오늘과 내일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갖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저자 노부호. 삶과 꿈 刊, 값 9천5백원.



△왕생기도와 천도재(문선우 펴냄)= 아직도 맺혔던 한이 있으시다면 놓아버리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광명을 얻으소서…. 자신의 앞길을 닦는 왕생기도문, 낙태아 천도재 왕생기도문 등 9편의 독송용 왕생기도문을 비롯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기도공덕, 천도기도 체험기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생기도와 천도재를 지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하다. 불교서원 刊, 값 3천5백원.



△주역산책(김학원 지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元典)중의 하나인 〈주역〉을 〈역경〉과 〈역전〉 그리고 역학으로 나눠 〈주역〉의 형성과정과 발전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한 책. 원광대학교 김학원 교수가 번역한 이 책에서는 〈주역〉을 뒤덮고 있는 미혹의 운무를 걷어 내어 신비감을 제거함으로써 〈주역〉에 어떠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간됐다. 예문서원 刊, 값 7천8백원.

■김용덕 교수 펴낸 '…불교이야기' 두권

불교설화 111편 '재미와 감동'





사찰에 간직되어 있는 문화재가 눈으로 보는 유형의 문화재라면, 전설은 마음으로 느끼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김용덕교수(한양대 국문학과·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가 사찰에 전해오는 불교 설화를 담은 〈세수하며 코 만지기보다 쉬운 불교이야기〉와 〈한생각 돌이키면 삶이 즐거운 불교이야기〉 두 권을 동시에 펴냈다. 이 두 권에는 '양지스님과 지팡이' '용궁사 옥부처' '은진미륵과 두더지' 등 111백11편의 불교설화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불교설화는 한국문학의 원형이면서 가장 정제된 한국인의 심상이기도 하다.

저자는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의 근원을 일러주는 단군신화 신라사람들의 사랑과 꿈이 담긴 향가와 전설들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며 "점점 외면당하는 불교설화에 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은 시대적 사명이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 불일 刊, 값 각 8천원.

'나는 무엇인가' 참선일기

조정연씨 '…화두참선 수행기'



"나는 무엇인가. 이 의문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경우에 바로 자신의 본모습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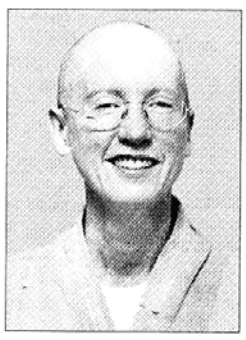
신간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 수행기〉를 내놓은 조정연씨(40)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것이 참선이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94년 수선회에서 참선을 하기 시작해 인천 용화사 등지에서 5년동안 '나'를 찾아 떠났던 참선여행을 처음부터 낱낱이 기록한 수행일기이다. 저자가 참선을 시작한 배경과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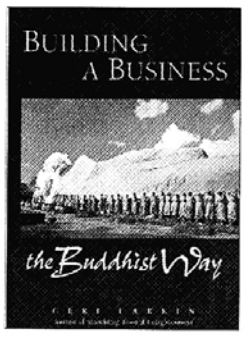
저자는 "나의 수행을 초등학교에 비유하면 3~4학년 수준이다"며 "이 책은 경전과 큰스님의 법문을 인용한 것이 아닌 직접 수행의 길에서 체험했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말했다. 불광 刊, 값 7천원.

노사 모두 이로운 원융경영론

美 파랑스님 '불교경영 윤리'

연말쯤 국내 번역 출간
인사 재고 고객 시간관리
불교사상 입각 방법제시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팽배해진 시장에서도 불자의 도리를 지키며 사업을 번창시키고, 자신과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라면 최근 미국 서점가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인 비구니 파랑(波浪·곁리 랄킨·53) 스님의 〈불교경영윤리(Building A Business the Buddhist Way)〉(Celestial Arts 간)를 한 번쯤 읽어봄직 하다.

이 책은 파랑스님이 20여 년간 대학과 경영컨설팅회사에서 익힌 실물경영과 8년간 삼우스님(美 자혜불교회 법주)에게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투영해 '인간의 가치'를 최고의 경영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생계 수단으로써 사업을 하더라도 나와 타인 즉 노사를 모두 이롭게 하는 원융적 경영관을 소개하고 있다. 또 지금의 시장경제에서 되짚어야 할 '생계'의 바른 의미를 정의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불이(不二)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력·재고·고객·시장 등을 불교사상에 입각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장부의 양식도 함께 게재하고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해준다.

파랑스님은 '시간 관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균등해야 생산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님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아집(我執)을 경계, 원융의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길이야말로 생계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또 지구 환경과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 원칙, 동료와 고객의 가치를 깊이 숙고하는 경영이야 말로 윤회적 경제 철학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랑스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가치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재능 △기술과 재능이 가족과 동료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가 등의 질문을 한 순간도 놓지 않는 수행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랑스님은 "불교적 경영 윤리관은 정직과 윤회적 세계관이 요구되며, 이것이 실현될 때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 윤리관은 적자생존의 시장논리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경영의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파랑스님이 97년 미국에서 설립한 '올바른 삶을 가꾸는 재단(Right Livelihood Seed Capital Fund)'의 교육 교재로도 사용, 호평을 받고 있다.

파랑스님은 이 재단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불교경영윤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올해 말 국역 출간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여성불교계 진단

'불교저널' 9월호 발간



달라이 라마, 여성불교, 불교와 환경 등 국내와 불교계 최대 현안들을 특집으로 집중 조명한 〈불교저널〉 9월호가 나왔다.

달라이 라마 특집 가운데에서는 "다음 달라이 라마는 인도인, 유럽인 혹은 아프리카인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고 있다"라고 달라이 라마가 최근 밝힌 심경을 토대로 쓴 '달라이 라마는 여성도 가능한가'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여성교육원 개설을 계기로 세계 여성불교계를 진단한 여성불교 특집도 읽을 거리다. '한국 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를 비롯하여 스리랑카·미얀마의 여성불교를 조명했다.

〈관련기사 19면〉

우리나라 비구니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법회를 연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회현장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독일 최초의 나치 희생자 천도재와 독일 불교연합 공동대표 바스쾨닉 비구니스님의 인터뷰 등도 실었다.

불교와 환경 특집편에서는 '불교와 환경' '환경을 통한 연기의 개선운동' 제하의 기사를 비롯 최근 우리나라 사찰환경문제를 조명한 '사찰 환경보존 안전핀이 없다'는 기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2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3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4	영도천도	우 룡	효 림
5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7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소 광 섭	서울대출판부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지현	민 족 사
10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 는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절대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죽·음·과·환·생·사·이·의·영·혼·을·제·도·하·는·밀·교·와·정·토·의·가·르·침·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스님 엮음
신국판 / 232쪽 / 6,000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둘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둘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 린포체-

●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보이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죽음 뒤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때 어떻게 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해탈하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적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티벳의 불교책 가운데서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 정토종의 큰스승 열 분의 삶의 자취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티벳불교·환경문제 '관심집중'

스위스서 열린 세계불교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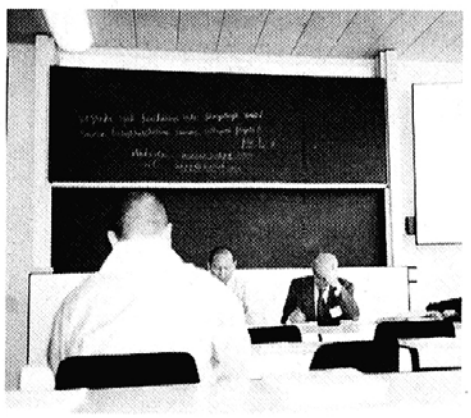
밀교문학등 20여분야
불교학자 200명 참석
현각·해주·현원스님 발표

국제불교학계가 주목하는 분야는 티벳불교와 생명·환경문제, 그리고 선(禪)이다. 이러한 경향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열린 제12회 세계불교학술대회에서 드러났다.

국제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가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율장, 밀교 문학, 중유(中有), 아비달마, 불교 산스크리트어, 논리학과 인식론, 동아시아 불교, 서구의 불교, 초기불교, 대승경전, 전자불전, 불교논리학, 불교에서의 자연가치, 불교와 브라마니즘, 티벳과 네팔의 불교, 새로 발견된 초기 불전, 비로자나 숭배, 철학 등 20여개 분야에서 200여명의 불교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새로 발견된 불전' 분과에서 발표된 간다라지방에서 발견된 경전 주석서의 필사본. 3년전 영국 발굴팀이 발굴한 간다라어 경전주석서 필사본은 2~3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당시에 경전 주석서가 있었음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밝혀졌다. 모두 두루마리 본으로 남아있는 필사본은 살로만 교수(워싱턴대)가 번역까지 완료해 단행본으로 선보였다.

현각스님(동국대)은 '철학' 분과에서 "깨달음은 애벌레가 누에고치로 있다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대단한 정신적 육체적 변화이고, 깨달음은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의 선적일고'를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동아시아불교' 분과에서는 해주스님(동국대)이 의상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어 온 '일승법계도의 저자 문제'를 〈방산석경〉의 사료가치 등의 미비함을 들어 다시 한번 의상작이라고 못박았다.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불교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했다. 뮬러 교수(도요가쿠엔대)는 '원효의 이장의'에 대한 논문을 선보였다. 특히 뮬러 교수는 '전자불전' 분과에서 산스크리트어 한문 한글 영어로 이루어진 전자사전에 대한 자신의 사이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가 담긴 사이트를 시연했으나 대만의 디지털 도서관과 비교됐다는 지적이다.



◇6일간 계속된 세계불교학술대회는 5명이하의 분임토의 위주로 진행됐다. 사진은 철학분과. 제13회 학술대회는 2002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기가 많았던 분과는 '초기 대승불교와 대승불교경전', 인도불교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가장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삼매와 아라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여래장' 분과에서는 여래장이 불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교와 정토' 분과에서 싱가폴의 시 지루스님은 '지장보살과 정토왕생'에서 8세기에 지장신앙이 널리 성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율장 분과에서는 '팔리율장의 비구니 문제', '비구니 율장의 남녀차별주의' 등 비구니 관련 논의가 흥미롭게 벌어졌다.

현각스님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세계학술대회에 나가 학문적인 성숙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불교 관련 서적의 영역화 작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강좌를 동국대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용성스님 선농불교는 대각교 운동"

대각사상硏 9일 대각회 창립30년 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9일 동국대 역암세미나실에서 대각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선농불교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용성스님의 선농불교 실천, 선불교에서의 노동문제, 율장에 나타난 노동금지계율, 현대의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고찰한다.

△백용성의 선농불교-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백용성은 1927년부터 10여년 간 경남 함양의 백운산과 중국 간도의 용정에서 화과원과 선농당을 설립하여 선농불교를 실천에 옮겼다. 선농불교는 중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대원각성(大圓覺性)을 깨우쳐 해탈인, 대자유인, 대각인이 되게 한다는 대각교운동의 전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론과 주장만이 아니라 계율의 회복을 강조하며 실천에 옮긴 점이 다른 주장과 차별되는 백용성의 선농불교는 일제하 선농불교의 효시로 사상 실천의 차원에서 식민지 불교 비판 극복과 함께 전개됐다. 백용성은 승려의 노농 실시, 농촌 계발과 불교의 진흥, 승려의 생활 개선, 반농반선 실시, 민중불교 지향의 입장에서 농업 농촌의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선불교의 노동문제-성본스님(동국대 교수): 백장청규에 의하면 대중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생산노동의 의무로 '보청법'을 제정하고 있다. 백장이 〈선원청규〉를 성문화하여 규정한 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불경불직(不耕不織)의 비난에 대한 자구책임과 동시에 선종교단의 자급자족을 향한 경제 생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백장이 주장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은 선종교단의 숭고한 노동정신이다. 율원에서 독립한 선종교단의 자급자족하는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청이 좌선수행과 똑같은 차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전개된 것이다. 조사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선이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본래심을 참구하는 참선생활로서 좌선, 선문답, 노동 등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것이다.

△인도불교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박경준(동국대 교수): 율장에서 농사나 장사와 같은 직업적인 생산 노동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는 계율은 찾아보기 어렵다. '땅을 파지 말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땅 속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소승율장에 생산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생산노동을 금하고 있는 사의법(四依法)이 여러 계율조항에 우선하는 불문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과 노동은 출가자에게도 허용하는 불교의 전통은 시대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산업즉시불법(資生產業卽是佛法)'이라는 〈법화경〉의 사상으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 청규로, 백용성스님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불교교리와 현대의 기업경영-유필화(성균관대 교수):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뛰어난 실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주듯이, 경영자도 고객이 있는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신다. 모든 기업은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학습하는 직장분위기 등 보이지 않는 자기자본을 꾸준히 쌓아가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으면 신분 직업 지위를 묻지 않고 가르침을 청하는 선재동자의 자세는 기업경영의 자세로 이어가야 한다.

강지연 기자

"문무왕 불교통해 국민화합"

신라문화硏 학술회의서 김복순씨 발표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8월30일 '신라 시대의 불교정책과 문무왕대의 통치정책'을 주제로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문무왕의 불교정책'을 발표한 김복순씨(동국대)는 "문무왕은 대고구려 대당항쟁에 원효 명랑과 같은 고승들에게 자문을 받는등 불교가 국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며 "통일 이후에는 백제 유민인 경흥(憬興)을 국사로 삼는등 새롭게 편입된 영토의 주민들을 불교로 회유하고자 했고 원효 의상의 아미타신앙과 같은 불교신앙을 통해 국민적 화합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조범환 박사는 '신라 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을 통해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불사 등을 통해 관심을 가졌던 경문왕은 진표 미륵신앙의 확산을 막고 황룡사 구층목탑 중수를 통한 화엄종의 재편을 추진하였다"며 "국사직을 선승에게 계속해서 분배함으로써 선종 불교에 대한 회유를 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제석신앙 등의 불교사상을 이용한 진평왕의 왕권강화책을 규명한 '진평왕대의 왕권강화와 제석신앙'(이정숙), 나원리사자 5층석탑등 경주 북부지역에 소재하는 9개의 중요 유적의 특징 등을 밝힌 '경주 북부지역 불적고'(황상주), 사천왕상 보살상 불상 등을 고찰한 '신라 문무왕대의 미술-조각과 금속공예'(최응천)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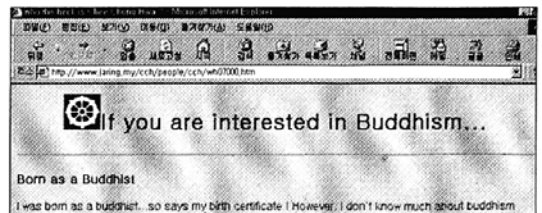
불교춘추 15호 발간

'의상대사'를 특집으로 다룬 〈불교춘추〉 15호가 최근 발간됐다.

역사인물탐구 의상법사 코너에서는 △해동화엄의 현장에서 들리는 화엄종조의 숨결 △의상의 법을 이은 10대 제자와 그 법손들 △의상 설화의 의미와 성격 △중국 종남산에서 일본 고산사까지 △의상의 화엄사상 △소리로 깨닫는 의상의 관음신앙 △신라 관세음신앙의 터전을 마련한 의상 △의상의 통일학 △21세기 기업경영 의상에게서 배워라 △'일승법계도'의 텍스트 문제 등을 담았다.

불교분과 월례발표회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의 제5차 월례발표회가 11일 오후2시 원광대 숭산기념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조용헌), '원효사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후루시(福士慈稔)) 등이 발표된다. 논평은 이병욱 강사(고려대), 이창구 강사(전북대), 남동신 박사(서울대), 박태원 교수(울산대) 등이 맡았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말련 불교청년聯

말레이지아 청년불자 단합 이끌어

'다르마 캠프' 포교프로 정보제공

말레이지아 현대불교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단체가 바로 말레이지아불교청년연합회(이하 청년연합회). 인터넷에 개설된 청년연합회 사이트를 방문하면 역사와 활동 그리고 말레이지아 불교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70년에 발족된 이 단체는 말레이지아 전역에 걸쳐 청년불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청년연합회 회원은 고작 20명 안팎이었으나 요즘은 가입 회원이 2백35명이나 되며 말레이지아 불교계의 '행동대' 역할을 해내는 단체로 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청년연합회에서 말레이지아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며 개발하고 있는 '불교포교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말레이지아 불교포교, 교육, 공동체, 인본주의 함양, 지도자 훈련, 문화·출판·국제관계 연구 등 각종 불교사회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청년연합회는 지혜, 자비, 감사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 인류를 위한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최후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말레이지아 불교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말레이지아인들로서 국가에 대한 강한 애국심으로 똑같은 체계로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말레이지아와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회원들 모두가 참종교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연합회는 말레이지아 불교를 발전시키고 재정적인 후원을 도모하기 위해 '야야산벨리아'라는 재단을 설립,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야야산벨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야야산벨리아'는 말레이지아 불교 발전을 위해 청년연합회의 사회복지, 문화, 불교수련, 연구, 교육,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다종교 사회에서의 말레이지아 불교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말레이지아인들의 불교 소양을 높이기 위해 청년회에서 개발한 포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틴 하우사에서 진행된 '전국불자합동결혼식', 12월 국립학교교사를 위한 '다르마캠프', 올해 4월에 개최된 '종교훈련캠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지아 청년불자의 정신적 지도자인 탄 키안 쿤의 강연초록도 열람 가능하다.

지난 한해동안 계속된 이 강연회에서 탄 키안 쿤은 △사회불의와 경제적 후퇴 △기아와 가난의 척결을 위한 공헌 △불교문화와 유산의 증진 △청년을 위한 불교의 평화와 조화사상 교육 등을 주제로 12회 강연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founder.net.ny/YBA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삼해탈 닦으면 마음과 일 '하나'

금강삼매경 ⑦

글쓴이



최유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경전 속의 禪 사상 33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섯 '길' 안내

守一사상은 중국선종과 관계 깊어

〈금강삼매경〉에서 눈에 띄는 선사상의 하나는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켜 여래선에 들어간다(存三守一入如來禪)는 이론이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켜(存三守一) 여래선에 들면 선정(禪定)에 의하여 마음에 숨가쁨이 없다.…… 셋을 보존한다는 것은 삼해탈(三解脫)을 보존하는 것이요, 하나를 지킨다 하는 것은 한 마음(一心)의 여(如)함을 지킨다는 말이다. 여래선에 든다는 것은 이(理)로써 심여(心如)를 관함이니 이와 같은 경지에 들면 곧 실제에 드는 것이다.…… 삼해탈이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이고, 이치로 마음을 관찰한다(理觀心)는 것은 마음이 이치(理)와 같이 맑아서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존삼은 삼해탈을 보존하는 것인데 삼해탈을 잘 닦으면 관(觀)에서 나와 일에 종사하더라도 관의 힘이 아직 남아 있어 나와 남의 상을 취하지 않고 호오(好惡)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서 입(入)과 출(出)을 함께 잊어버려 마음과 일이 둘이 아니게 된다고 한다. 지관(止觀)과의 관계에서 보면 관(觀)에 해당한다. 수일(守一)은 수일심여(守一心如)인데 입관시(入觀時)에는 고요히 일여(一如)의 경지를 지키고 관(觀)에서 나왔을 때에도 일미지심(一味之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수일(守一)이라 한다. 수일은 한결같다는 뜻의 일(一)이라 할 수 있다. 지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止)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래선에 든다는 것은 이(理)를 관찰하는 삼매에 의해 심(心)이 리(理)와 하나가 되는 삼매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삼과 수일에 의해 여래선에 들어가므로 지관(止觀)으로 말하면 지와 관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여래선이다.

이 중에서 수일(守一)의 사상은 특히 선종의 4조 도신(道信)의 수일(守一) 및 5조 홍인(弘忍)의 수심(守心) 사상과의 연관성을 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종파로서의 선종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강삼매경〉은 선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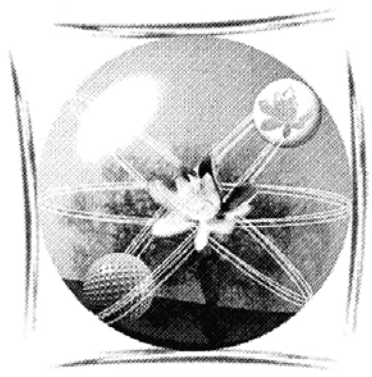
이 경전 전체가 선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됨은 원효의 해설에서도 알 수 있다. 원효가 실천의 입장에서 이 경전을 풀이하는 것을 보고 〈금강삼매경〉에 대한 해설을 마지도록 하겠다. 원효는 이 경전의 핵심을 일미관행(一味觀行)으로 풀이한다. 즉 본론의 6품(無相法, 無生行, 本覺利, 入實際, 眞性空, 如來藏)의 여섯 문으로 관과 행이 두루 포괄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모든 망상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유전하게 된 것은 단지 형상에 집착하여 분별해 온 습관적 질환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흐름을 거슬러 근원에 돌아가고자 하면 먼저 모든 객관적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하여 이를 부수어야만 하므로 처음에 무상법(無相法)을 관해야 함을 밝힌다. 비록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만약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으면, 주관적 생각이 발생하여 본각(本覺)에 계합(契合)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 생각을 없이 할 필요가 있으므로 둘째로 무생행(無生行)을 나타낸다. 모든 일을 행함에 주관적 생각에 집착됨이 없으며, 문득 본각에 계합하게 되니, 이에 의하여 사물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로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셋째로 본각리문(本覺利門)을 밝힌다. 만약 본각에 의지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생은 곧 허망함에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넷째로 실제에 들어감(入實際)을 밝힌다. 안으로는 형상에 집착함이 없고, 주관적 생각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밖으로는 교화하여 본각의 이로움으로써 실제에 들어가니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로움으로써 만 가지 행이 다 갖추어지게 되어, 더불어 참된 성품으로 뛰어나게 되며 모두 진정한 자유에 순조로이 되므로 다섯째로 진성공(眞性空)을 밝힌다. 이 참된 성품에 의해서 만 가지 행이 구비되어 여래장(如來藏) 일미의 근원(一味之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째로 여래장을 나타낸다. 이미 마음의 근원에 돌아오면, 곧 억지로 지어야 할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길을 설하여 대승을 다 포섭한다."

과학산책 기계론적 사고

물체의 운동 정확한 예측 가능

원자세계 설명못해 양자역학 받아들여



원자와 아원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던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들 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동안 이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기본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기에 상당한 저항이 일어났다.

이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서양 과학과 사상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데카르트와 뉴튼적 사고에 깊이 사로잡힌 과학자들에게 이원론적,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통합적, 전체적인 사고를 강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인간을 전체적 조직체라기 보다는 합리적 마음으로 여기게 했다. 그 결과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의 저자인 프리초프 카프라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과 물질 사이의 분리는 우주를 분리된 객체로 구성된 기계조직으로 보고, 분리된 객체는 다시 기본적인 구성체로 환원되며, 이들 구성체의 성질과 상호 작용이 모든 자연 현상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우주관으로 유도하였다. 이 분리의 결과, 세계는 인간 관찰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계적 조직으로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의 객관적 기술이 과학의 이상이 된 것이다.

이런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고를 완성시킨 것은 뉴튼이었다. 뉴튼은 자신이 발명한 수학 도구를 사용하여 신의 개입 없이 천체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17세기 과학의 기념비적 업적인 뉴튼 물리학은 일관성 있는 수학적 세계관을 수립하였으며, 이 이론이 20세기에 이르기까기 과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18~19세기에 들어 뉴튼의 이론은 유성, 달, 혜성 들의 운동을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수의 흐름및 중력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대단한 성공으로 인간은 곧 모든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뉴튼 역학은 우리의 눈으로 관찰되어지는 물체들의 움직임이 천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를 기계적,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하늘은 신비스러움을 잃고 신이 자연에 대해 누리던 지위는 자연법칙으로 대치되었고 신은 우리로부터 한걸음 더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열렬한 종교가이며 비전(秘傳)적 신비주의에도 상당한 지식이 있던 뉴튼 자신은 자신이 발견한 법칙에 무언가의 오류가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나머지 삶을 바쳤다. 그가 고민한 것은 그가 발견한 법칙은 성공적으로 신의 존재를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법칙에서 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어쨌든 뉴튼의 법칙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여 물체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사람들은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 물체를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관찰자)가 관찰 대상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로 관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들과 그들의 운동. 따라서 이 방법론은 이원론적 사고와 기계론적 사고를 조장했다. 뉴튼은 신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주관성(관찰의 주체) 마저도 제거해 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을 거두던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와 뉴튼 역학은 원자와 아원자 세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20세기 들어 그 지위를 양자역학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조원희(본사전략정보실장)

태국 니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⑭

중도 ②

감정에 끄달리지 말라

두려움 갖지 말고 내면 깊이 관하면
집착 · 습관 · 공포 · 고독 등을 볼수 있다

우리는 고립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죽는 것 등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중도의 미덕은 우리에게 고독, 행복,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 사이에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유영하며 바로 세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는 대상은 달라진다. 거리를 걷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식점이다. 길가의 화려한 구두가게는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중도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몸의 무상성과 부정(不淨)한 측면을 보아야 한다.

마하 부아 스님은 제자들에게 명상을 가르친 후 항상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듯이 익숙하지 않는 방법과 규칙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맛있는 음료, 익숙한 여행 등에 기대하던 변화 만을 가지려고 한다. 이때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중도관이 필요하다.

또 마하 부아 스님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할 때, 사리불 존자가 수행자들에게 육체적 고립과 정신적 고립 그리고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고립을 권고한 이유를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곳을 찾아가 보지만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기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마음과 몸이 변화를 겪고 고독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평온이 오든 안오든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활용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까, 평온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내면을 깊이 관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집착, 습관, 공포 등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기 때문이다.

중도는 두려운 고독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숱한 감정들에게 영향 받는 마음과 몸의 변화를 보고 다스리는 것이다. 또 유쾌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도 유익한 경험으로 돌릴 수 있고 또 감정들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편도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순환한다. 우리의 희망과 노여움을 품어주고 편안함을 찾아주기도 하고,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는 마음과 같이 소용돌이 치고 미워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중도는 아주 단순한 과정에서 얻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고, 앉고, 걷고, 집중하는데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때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조급하다. 그래서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번뇌에 빠지든지, 모두 극단을 간다.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깊은 지혜를 얻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중도는 인내의 여정에서 생겨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로 헤매고 있는지 한번쯤 자문해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제 2 회 창작 찬불가 공모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하여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의 일환사업으로 창작찬불가의 의욕과 불교음악인의 발굴기회를 갖고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 높은 찬불가 발굴을 도모하고자 순수찬불가와 대중가요풍의 찬불가를 대상으로 제2회 창작찬불가 공모전을 개최함.

공 모 요 강

1. 공모부분 : (1)합창곡(5분 내,외. 혼성 4중창) (2) 중창곡(5분 내, 외. 여성3부)
(3)독창곡(5분 내,외 순수 및 대중가요)
(대중가요-녹음테잎제출, 반주는 기타 또는 피아노 반주)
2. 응모자격 :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8세 이상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
3. 신청서 교부 : 1999년 11월 20일~ 1999년 1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4. 응모기간 : (1)1999년 12월 1일~ 1999년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층 문화부
5. 심사발표 : 1999년 12월 30일 (입상곡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불교신문에 공고함)
6. 운영 및 심사위원 : 총무원 운영실무자 및 불교음악의 권위자로 구성함.
7. 시상내역 : (1)대상 1인(상금 500만원, 상패) (2)금상 1인(상금 300만원, 상패)
(3)은상 2인(상금 100만원, 상패) (4)동상 3인(상금 50만원, 상패)
(5) 장려상 4명(상패)
8. 응모요령 : (1)1인 부분별 1곡씩 3곡까지 응모 가능함
(2)모든 응모작품은 피아노 반주를 원칙으로 함
(3)작품은 필히 먹으로 정사한 악보 1통(원본)과 복사본 5통을 제출할 것.
(4)작품 속에는 작사, 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 외의 표식은 하지 말 것
(5)응모신청서(본 종단 소정양식) 1부를 제출 할 것
(6)신청서 제출시 작곡자의 이력서 1통과 사진 3장, 가사 및 곡해설 (100자 내외)을 첨부할 것
(7)응모신청금은 1곡당 30,000원
9. 참고사항 : (1)입상자 또는 작품이 결격사유가 발생시 시상 후에도 입상자격을 취소하고, 시상금 및 상장을 회수하며, 향후 모든 종단 행사에 참여 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2)기타 문의사항은 창작찬불가 공모전 주최운영위원회로 할 것.

불기 2543(99)년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주최 : 운영위원회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청사 2층 문화부
전화 02-739-1830, 02-725-1674 팩스 02)722-2606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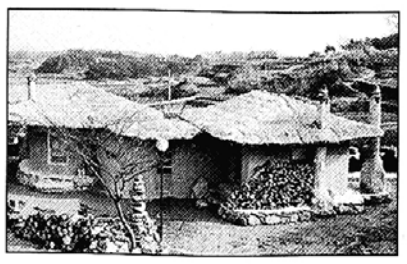
총판대리점 법 우 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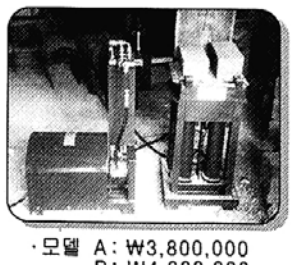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 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시방세계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패션 인테리어 화장 CF 음식

복잡함보다 절제미
화려함보다 소박
과장보다 자연스러움

의식주에 '禪바람'



◇다상과 다기로 연출한 실내 인테리어는 한결 여유와 편안함을 준다.



◇회색터치로 세련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올가을 유행화장법.



◇승가풍의 가람을 특화시킨 침대와 방석세트.



◇무채색이 정갈해보이는 타월과 욕실실내화.



◇발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식기.

선의 상품화 우려시각도

속세가 너무 혼탁해서일까. 겉멋만을 추구하는 삶이 허탈해서일까. 요즘 패션계는 물론이고 리빙, 인테리어, 광고, 화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禪) 스타일'이 유행이다.

물질위주의 서양문화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새 천년에는 동양문화가 한층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동양문화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선(禪)'이 의식주 생활 전반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선(禪) 스타일'은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 시끄러움 등이 아닌 순수, 절제, 정갈함, 고요함, 자연스러움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젠(Zen, 禪의 일본말 발음)'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일은 '자연주의' 흐름과 맞물려 현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생활 속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아의 경지에 몰입해 자아를 찾는 선(禪)의 정신세계를 통해 대안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세계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禪) 바람'이 자칫 선(禪)의 지나친 상품화를 조장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은 "'선(禪) 불교'의 대중화라는 면에서 부정적일 수만은 없지만 대중화에 편승해 선(禪)의 정신세계에 대한 조명없이 외관상의 요소만으로 선(禪)을 상품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선(禪)'이 국제적으로 '젠(Zen)'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중이 마치 '선 스타일'인양 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패션

국내 의류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 의상으로 쇼윈도우에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는 신제품 들은 하나같이 카키색 베이지색 갈색 등 낙엽을 닮은 빛깔들과 '가라앉은 회색'이 물결을 이룬 것은 화려한 장식을 배제한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의 선(禪) 트렌드를 따른 것이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8월17일 열린 '여성복 전시회'는 동양문화의 상징인 '선'이 세계패션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선' 트렌드는 97년부터 미국·파리·밀라노 컬렉션에서 도나 카란, 요지 야마모토, 질 샌더, 레이 가와쿠보, 마우치아 프라다, 드리스반 노튼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반영해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정구호씨를 필두로 한승수, 박병규 씨등 20~30대 카리어 우먼과 전문직 남성을 타겟으로 선(禪) 스타일의 옷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체 니켄리프 이경은 디자인실장은 "세기말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 '허무' '절제'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선(禪)'이라는 점에서 동·서양 룸 디자이너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화려한 색깔로 치장되던 인테리어가 담백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의 선방(禪房) 이미지를 닮은 인테리어로 집안풍경을 바꾸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속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를 희백색 너른 공간의 여백에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가구 몇점만으로 꾸며 정갈한 승가풍을 연출하고 있다. 거기에 옛 선방에서처럼 거친 닥종이로 천장과 벽 바닥을 발라 동양의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효과까지 연출하는 등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최초의 원목가구 회사인 까사미아는 올해 들어 '선 스타일'의 '살림 시리즈'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까사미아는 '살림시리즈' 중에 승가풍의 '가람'을 특화시키고 있는데 가람 침대요, 가람 침대, 가람 식탁의자, 가람 티테이블(T-TABLE)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발우 형식의 오리엔탈 곡그릇과 젓가락 볼, 접시 등도 선보이고 있다. 까사미아 홍보실 김혜영씨는 "앞선 감각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온 본사는 새 천년에는 동양문화가 한층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동양문화 저변에 깔린 불교적 색채를 인테리어 디자인에 응용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반응이 좋다고 귀띔했다.



◇세계 패션계에 동양적인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사진은 불화 이미지를 패션에 녹인 한성대 이기향교수의 의상작품 패션쇼. 사진=고영배기자

화장

화장품 업계에도 선(禪)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려함' 대신 은은하면서도 내추럴리즘을 지향하는 메이크업으로 여성들의 내면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

회색이 가미된 온화한 느낌의 '중간색'을 주류로 단순하면서 간결하게 메이크업을 해 자연스럽고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향이다.

올 가을 메이크업 방향을 '선 사상'에서 잡은 태평양은 '비밀이 담긴 묘한 칼라-시크릿 브론드(Secret Blond)'라는 주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는데 치중하고 있다. LG화학 역시 브라운으로 얼굴 전체에 차분함을 강조하며 엘로우, 와인(보라색 계통), 등을 가미해 동양 여성 고유의 신비로움을 강조한다.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는 '선 스타일'은 색조뿐 아니라 기초화장품에도 도입되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장품회사 랑콤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이드라 젠'을 개발,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피부학적인 효과는 물론 정신적인 평화까지 주겠다는 판매 전략에 세계여성들의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CF

'불교'를 소재로 한 광고가 그 이미지의 과격이나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어필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가리스', '노란 옥시크린', '사리온', '다이제스티브', '시티맨', '스피드 011 산사편' 등의 광고에서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이 소재가 되고 있다. 이들 광고는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불교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로 광고 이미지를 십분 살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컴퓨터업계에서 선보인 불교 소재 광고는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것은 물론 동양의 신비로움을 서구의 합리주의에 대비시킴으로써 이색적이라는 평이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컴퓨터업체인 컴팩의 광고(양손을 합장한 두 명의 스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는 7년간 도를 닦은 끝에 마침내 공중 부양에 성공한 '고수(高手)'와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수(下手)'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IBM 또한 스님들을 모델로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음식

'요리는 문화다.' 최근 요리권론가들은 요리에 대해 유행의 거리를 가장 변화무쌍하게 채색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선(禪) 바람'이 예외없이 요리에도 불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영양의 균형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건강식품에 눈을 돌리면서 사찰음식(禪食)에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사찰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 특히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늘어난 비만인구와 노인,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선방 스님들이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주로 먹던 곡물야채식과 녹차, 감잎차 등 전통차는 선풍적인 인기다. 비지니스맨들의 아침 대용식으로도 호평. 최근에는 또 개인에 맞게 영양특성을 맞춰 공급하는 '디자인 푸드(Design Food)' 개념이 선식에 도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이기향교수가 말하는 선패션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랫동안 만났던 느낌"



"선 패션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입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술의상연구가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직물학과)는 처음 만난 사람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게 바로 '선'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이교수는 현란한 장식보다는 단아하고 깨끗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몸에 꼭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있는 편안한 스타일 즉, 절제미가 돋보이는 단순한 선이 강조된 옷을 추천한다. 특히 올 가을에는 칼라가 없는 몸판에서 연결돼 보통 칼라보다 높게 만들어진 하이넥 디자인의 재킷이 선호되고 있다고.

또 의상의 색깔과 소재에서도 선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색깔에서는 회색톤c] 가미돼 전체적으로 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소재에서는 면 마 실크 모 캐시미어 등 천연소재의 자연미가 강조된 것이 선택되어 진다는 것.

이교수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헝클어지지 않고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게 세계적으로 스타일의 최대 장점"이라며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소품으로 경직된 일상을 벗어나는 맛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마애불 북한산 석가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북한산 석가여래좌상

감실파서 돋을새김으로 좌상 새겨
8각 머리돌 얼굴보호…보물 215호

북한산 거대한 바위면에 감실을 약간 파서 웅대한 좌상을 돋을 새김으로 새긴 것이다. 머리 위에는 8각의 머리판을 끼워넣어 얼굴을 보호하고 있어서 비록 전실은 없어졌지만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박력있는 얼굴에는 단정한 미소가 풍기고 있는데 커다란 코, 크고 긴 귀는 이 불상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상체는 건장하고 당당하지만 각지고 광면적인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어 경직된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지만 잘 쑥한 허리와 절도있는 팔, 장대하고 름직한 하체 등이 특징이며, 우견편단한 불의는 비교적 얇은 편이지만 왼쪽 팔에 묘사된 옷주름은 세로 평행무늬여서 기하학적인 추상성도 나타내고 있다. 대좌도 양련과 복련을 겹친 겹연꽃무늬인데 꽃무늬를 겹으로 묘사한 것이 불상과 잘 조회되고 있으며 전통양식과 추상성을 가미한 이 불상은 고려시대 전반기의 대표적 마애불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보물 215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개당을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해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현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읽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⑨

既無相貌 還有大小麼 既無大小 기무상모 환유대소마 기무대소 還有邊際麼 無邊際故 無內外 환유변제마 무변제고 무내외 無內外故 無遠近 無遠近故 無彼此 무내외고 무원근 무원근고 무피차 無彼此則無往來 無往來則無生死 무피차즉무왕래 무왕래즉무생사 無生死則無古今 無古今則無迷悟 무생사즉무고금 무고금즉무미오 無迷悟則無凡聖 無凡聖 則無染淨 무미오즉무범성 무범성 즉무염정 無染淨則無是非 無是非則一切名言 무염정즉무시비 무시비즉일체명언 俱不可得 旣總無 구불가득 기총무 如是一切根境 一切妄念 乃至種 여시일체근경 일체망념 내지종 種相貌 種種名言 俱不可得 종상모 종종명언 구불가득 此豈非本來空寂 本來無物也 차기비본래공적 본래무물야

이미 모양이 없는데 다시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으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저것과 이것이 없고, 저것과 이것이 없으므로 가고 옴이 없고, 가고 옴이 없으므로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예와 지금이 없고, 예와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됨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른 것도 없다. 옳고 그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름과 말이 붙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없어서 모든 감각기관과 그 대상, 일체의 망령된 생각 내지 갖가지의 모양과 갖가지의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가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공하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然諸法皆空之處 靈知不昧 연제법개공지처 영지불매 不同無情 性自神解 此是汝空寂靈知 부동무정 성자신해 차시여공적영지 淸淨心體 而此淸淨空寂之心 청정심체 이차청정공적지심 是三世諸佛 勝淨明心 亦是衆生 시삼세제불 승정명심 역시중생 本源覺性 悟此而守之者 본원각성 오차이수지자 坐一如而不動解脫 좌일여이부동해탈 迷此而背之者 往六趣 미차이배지자 왕육취 而長劫輪廻 故云迷一心而往六趣者 이장겁윤회 고운미일심이왕육취자 去也動也 悟法界而復一心者 거야동야 오법계이부일심자 來也靜也 雖迷悟之有殊 내야정야 수미오지유수 乃本 源則一也 내본 원즉일야

그러나 모든 법이 공하고 고요한 곳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 않아 생명이 없는 것과는 달라서 성품 스스로가 신령스럽게 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그리고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바탕인 깨친 성품이다.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사람은 절대의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도 해탈할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사람은 육취(六趣:六道)에서 오랜동안 윤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미혹되어 육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는 것이요 동요하는 것이며, 법을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하였다. 비록 미혹되고 깨친 것이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하나이다.

所以云言所法者 謂衆生心 소이운언소법자 위중생심 而此空寂之心 在聖而不增 이차공적지심 재성이부증 在凡而不減 재범이불감

그러므로 '법이라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한 것이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 해서 붙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모양이 없는데 크고작음 있겠는가

이것 저것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공부 쉽게 하려면

청암스님 〈태고사 주지〉



약력
- 1925년 의성 고운사에서 민준스님을 은사로 득도.
- 37년 동래 범어사 일봉스님에게서 보살계와와 비구계 수지.
- 38년 고운사 등운강원 대교과 수료 · 전국선교양종고시위원장 권상로 스님으로부터 대덕법계 품수 · 일본 동경 평림사 임제선원 강습원 수료
- 45년 안동 서악사 주지
- 46년 해동고등공민학교 (안동상고 전신) 설립 이사장
- 66년 삼각산 태고사 주지
- 97년 태고국사 봉찬회 회장
- 99년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태고사 복원 원력세워

삼각산 오르내린 까닭은

중흥조 보우스님 '흠모불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탐 · 진 · 치 3독에 얽매여 고통속에 살고 있는 것을 건지시고자 49년간을 설법하셨는데, 훗날 이 가르침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세존께서 이처럼 설법도생(說法度生)하시고 열반에 드시니, 10대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들이 애통해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참된 법은 불생불멸한다고 일러주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일찍 열반에 드셨나이까, 이제 중생들은 누구에게 법을 배워야 하나이까"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以戒爲師)" 하고 "자기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 法燈明)"고 하셨어요. 후세의 모든 수행자들과 재가불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할겁니다.

나는 1913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동 484번지에서 금녕김씨 파조(派祖)인 김문기(4육신 주도자) 선생의 16대손으로 아버지 김후권과 어머니 해주오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명문집안이었지만 당시는 일제시대라 모두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든 시기여서 흉년이 들면 학교도 못다닐 정도였습니다.

내가 불교에 인연이 닿은 것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학교도 보내준다는 막연한 고마움에서 시작되었어요.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대본산 고운사에서 사비생을 모집해 절에서 먹이고 재워주며 학비도 보태주는 제도였습니다. 보통학교 시절 고운사 사비생에 선발되어 안평 운암사에서 생활하며 처음으로 절밥을 먹게 된 거죠.

사비생으로 있을 때는 머리만 깍고 계를 받지 않았지만, 14살 때 안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운사의 남민준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이설호스님께 계를 받았습니다. 비구계와 보살계는 당시 유명한 율사였던 동래 범어사의 권일봉 스님에게 받았습니다.

이후 27세까지 고운사 등운강원에서 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과를 마칠 때까지 부지런히 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참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운사에는 금당이란 선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 오고가는 선객들이 "고운사에도 쓸만한 수좌가 있구나" 하더군요.

하지만 강원의 도반들은 내가 참선을 하는 줄을 거의 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이도 없고 당시에는 혼자 선어록을 보고 깨우치는 게 참선에 대한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당시 고운사에서는 예불후에 10분간 참선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내가 든 화두는 '이뭣고' 였는데 지금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강원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깨달음이 깊다 하더라도 일자 무식이면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아무리 경을 잘 외운들 깨닫지 못한다면 앵무새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의 옛 스님들이 하셨듯이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원효스님이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지어 백가의 쟁론을 융화하여 통불교 운동을 전개하였다면, 태고보우스님은 자신의 수행면에서도 선과 교를 겸수하였고, 종정면(宗政面)에서도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해 다양한 선과 교의 수행법을 두루 닦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보우스님의 7대손인 조선시대 청허휴정 스님에 이르러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이 나타남으로써 역대로 지향해 오던 통불교(通佛敎)의 흐름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통불교는 한국 불교가 지닌 불교사의 특징인 동시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선 · 교를 아우르는 통불교적 수행관은 휴정스님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敎是佛語)"는 말에서 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휴정스님은 〈선가귀감〉에서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三處傳心)이 선지(禪旨)가 되고, 부처님께서 일생에 말씀하신 것이 교문(敎門)이 되었다"고 한 다음,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교이다. 마음은 선법(禪法)이요 말은 교법(敎法)이다"고 설했습니다.

교론은 공(空)을 설파해 유상(有相)의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선의 목적은 언하(言下)에 활연대오(豁然大悟)케 함으로써 언어와 문자에 사로잡힌 분별을 끊고 자기의 '신령스런 빛(靈光)'이 천지에 비치게 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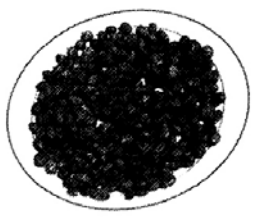
즉 휴정스님의 선교관은 선이 주가 되고, 교는 종이 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봄으로써, 선적(禪的)인 통일불교의 토대를 굳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정스님이 염불에도 큰 관심을 가져 염불과 선의 일치에 노력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상근인(上根人)을 위하여 말씀하시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정토(淨土)이며, 자성(自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 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체험사례 저희 금단화를 복용하여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드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많았지만 지면상 우선 효과를 본 두 분만 먼저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10년 이상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2월부터 금단화를 복용한 후 이번 8월 초에 종합검사를 해 보았더니 간염균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지금은 회복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가족은 신기하여 믿을 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늘 남편의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전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동 승현엄마)

저희 남편은 혈압이 너무 높아 7년째 병원에 다니며 체크를 받고 약을 늘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단화를 복용한 후 4개월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후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늘 신경통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몸 상태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금단화는 저희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김인숙)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신개발품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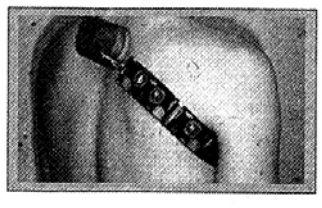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슈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큰스님 수행한담

세상 욕심 줄이세요”



◇94년 4월 태고사에서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 청암스님.

“울력하고 잠자는 시간도 수행의 연장입니다 화두 놓지말고 사세요”

‘인자한 마음’ 교화와 다스림의 근원
무슨일이든 정성 쏟는만큼 결실맺어

性)이 곧 미타(彌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성미타가 자심정토로 이룩됨을 강조한 것이다”고 한 휴정스님의 유심정토(唯心淨土)사상이 그의 선지의 진리와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학인 때의 선과 교과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으로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조혜능 스님처럼 일자무식의 나무꾼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몇세기에 한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깨닫게 되면 육조스님처럼 글을 몰라도 경전에 환하게 되고, 진묵스님처럼 아무리 두꺼운 책도 보는 즉시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글도 참선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공부는 참선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경전을 버리고 선방에만 앉아있다가 잘못되어 허송세월만 한다면 차라리 경전을 읽어 지혜와 공덕을 쌓는 일보다 훨씬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 강원에서도 이론 교육과 함께 참선 실수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체시 일체처(一切時 一切處)에 소소영영(昭昭靈靈)한 그 자리를 찾는 일이 참선입니다.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화두는 잠시라도 놓을 수 없으니, 울력하고 잠자는 시간이 수행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방에서 결제·해제를 할 때만 화두를 잡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울력을 하고 포교를 할 때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해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보람있는 날이 올 겁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 쏟는 만큼 결

아무튼 나는 고운사 강원을 마치고는 일본 동경의 평림사(平林寺) 임제선원(臨濟禪院)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44년 태평양전쟁으로 귀국하기까지 6년간 임제 선지(禪旨)를 가르치는 강습원에서 임제선풍을 익혔어요. 일본의 선원은 한국보다 더욱 엄격하고 위엄이 있다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어요. 관광객들도 절대로 선원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귀국해서 안동 서악사 주지를 맡고 부터는 현 안동상고의 전신인 해동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 이사장을 맡는 등 포교에 힘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불사가 내 수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53년에 삼각산 태고사지를 매수해 태고사지를 복원하고자 했으나 국립공원법 제정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태고보우 스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발심을 하면서 66년 정부 각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를 차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보우스님의 가피로 67년에는 태고 보우국사 비명(碑銘)과 사리탑을 보수해 보물 제 611호와 보물 제749호로 지정받아 더욱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황량한 절터만 남아있던 태고사를 복원하고자 원력을 세운 후 수없이 가파른 삼각산을 오르내리며 불사를 한 것은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보우스님에 대한 흠모와 ‘불사도 큰 수행이다’는 생각 없이는 못할 일이었어요.

태고보우스님은 충혜왕 복위 2년(1341년)에 삼각산에 중흥사를 중창하고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중흥사 동쪽에 태고암을 창건하여 5년간 머물렀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태고사입니다. 보우스님은 이곳에서 중국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본떠 유명한 ‘태고암가’ 1편을 지었어요. 다음은 그중의 한 수인데 음미해 보세요.

그대 보지 못했나(君不見)/ 태고암의 태고적 일을(太古庵中太古事)/ 다만 이렇듯, 지금도 밝고 분명한데(只這如今明歷歷)/ 백천의 삼매가 그 가운데 있어서(百千三昧在其中)/ 사물을 이롭게 하고 인연에 응하면서도 항상 고요하네(利物應緣常寂寂)/ 이 암자는 이 노승만 사는 곳이 아니라(此菴非但老僧居)/ 티끌 모래 수 불조(佛祖)들과 풍격 같이하다(塵沙佛祖同風格).

〈태고집〉에는 보우스님의 사상과 경지를 알 수 있는 법어와 선시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나라와 불교계 전체를 염려하는 그의 혜안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 공민왕이 스님을 불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물었을 때는 “거룩하고 인자한 마음이 모든 교화의 근본이요 다스림의 근원이니, 빛을 돌이켜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하였고, “때의 폐단과 운수의 변화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보우스님은 왕도의 누적된 폐단, 정치의 부패, 불교계의 타락 등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 인심을 순화시키고 정교(政敎)의 혁신을 도모하기를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정자들이 보우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랐던들 고려가 망하고 불교가 쇠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문(一門)으로 통합해 종파의 이름을 도존(道存)으로 할 것 등을 건의한 것은 원효 이래의 원융불교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30여년간 태고사 복원불사에 매진해 왔지만 보우스님이 주석했던 중흥사지 복원 중창불사에 마지막 원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이번 추석전에 〈태고보우국사의 影跡〉이란 단행본을 펴내는 것도 태고보우국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불사가 될 겁니다.

나는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한국불교는 원융불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종파가 태고보우 국사를 중흥조로 받들고 있는만큼 ‘선교쌍수’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원효스님은 법상종, 의상스님은 화엄종, 자장스님은 계율종이었듯이 종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주좌와어묵동정에 걸림없이 소소영영한 한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공부 쉽게 하려면 세상욕심 줄이고 버리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21세기에도 불법이 바르게 유통되어 원효대사의 화쟁사상(和諍思想)으로 화합하고 보우국사의 원융불교(圓融佛敎)로 단합하여 통일된 한국불교로서 끊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 성 모 〈춘천 동제한의원 원장〉

매일 새벽 예불 올리고 절마당 청소
틈틈이 성지 참배로 몸과 마음 평안

매일 새벽4시,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깬다. 춘천 약사동 중턱에 있는 보문사 대웅전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다. 일단 법당안에 들어서면 각 단마다 촛불을 당기고 향을 사룬다. 이어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고 준비운동으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마친 뒤 앉아 금강경과 법성게를 독송한다. 또 오계(五戒)를 지송하고 난 뒤 부처님과 아내,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하루를 열다보면 가수면 상태의 무거운 몸과 마음이 어느새 환희심으로 변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예불을 마친 뒤 대웅전을 나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절마당을 청소한다. 마음을 모아 울력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도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10여년 이상 해오고 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는 오래 됐지만 초심자로 산사를 찾은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인제군 북면 신남리 산꼭대기에 까치둥지 처럼 서 있는 장수사를 밤중에 찾아가 대진 노스님을 뵈었다. 그 때 스님께서는 오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하셨다.

그 뒤부터 스님에게 들은 감동스런 법문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예불이 끝난 뒤 오계를 지킬 것을 암송했다. 그러나 입으로만 중얼 거릴 뿐 마음과 행동으로는 오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목표가 없는 신행 생활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루는 마음에 장애가 생겨 대진스님을 찾아갔더니 나의 게으른 정진 생활을 어떻게 알아 차리셨는지 스님은 “원장은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어”하시며 꾸짖으셨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불자라고 내세우고 다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또 백년하청(白年河淸)이란 말처럼 나의 독실한 수행 생활을 바라는 것이 오탁한 황하의 물이 맑아 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부질 없는 생각일지 모른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던가, 마침내 내게 커다란 번화가 찾아 왔다.

95년 9월에 춘천 석왕사에서 개설한 강원불교대학에 등록을 하고 현재가지 강의를 받으면서부터 생활 모습이 달라졌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테니스를 치다가 무릎 관절을 다친 것이 관절염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나 경사진 곳을 갈 때는 통증이 여간 심한게 아니었다.

그러나 불교 공부에 심취하다 보니 성지를 찾아가 참배하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기도로서 회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통을 무릅쓰고 보문사에서 개최한 갓바위 성지순례에 동참했다. 하지만 악화된 건강탓인지 마음만 앞서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4백여미터의 완만한 경사를 오르는 데도 갑자기 가슴이 조개지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한걸음 한걸음 옮길때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법당안으로 들어 갔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 옆에서는 성지순례를 같이 온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108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 보는 순간 둘과 마음이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건이 안좋을 때 발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보람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재발심을 하며 그 날 성지순례에서 돌아 온 뒤부터 꾸준히 보문사를 찾아가 108배를 했다. 기도의 가피 때문인지 6개월이 지나면서 무릎 관절과 협심증이 호전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각종 성지 순례에도 무리 없이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꽃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의 산'

백두대간 속으로 (2)

지리산 ①

등 등 등, 하늘에 떠 있는 섬 하나. 천왕봉! 하늘을 비집고 선 것도 아니고 하늘이 그만큼 물러나 있지도 않았다. 마치 깍지 낀 손가락처럼,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한몸을 이루고 있었다. 처라리 떠 다니는 물알갱이라 해야 옳을 짙은 안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없애고 있었고, 나와 대상을 눈과 눈꺼풀의 관계로 만들고 있었다. 지리산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시간과 공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일러 준다. 하늘과 땅도, 시작과 끝도 본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순간순간이 창조의 시간이자 소멸의 시간이며, '나'와 '그것'이 꽃잎과 꽃잎에 매달린 이슬의 관계임을 일깨워 준다.

넓이 1억3천만평 둘레 800여리
옛사람들 문수보살 주석처로 믿어

화엄·칠불·쌍계사등 곳곳에 명찰

이슬방울이 떨어진다. 중일한 한 존재의 장엄한 낙하. 다시 뿌리로 돌아간 그것은 또다시 꽃을 피워 올린다. 이슬이 곧 꽃잎이고 꽃잎이 곧 이슬이다.

꽃잎이 떨어진다. 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모습이다. 그것은 다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된다. 비로소 세상은 커다란 한 송이 꽃이 된다.

산에서는 이슬방울 하나도 위대하다. 그것이 곧 우주인 까닭이다. 그래서 산은 위대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백두산이 이 땅의 뿌리라면 지리산은 이 땅의 꽃이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꽃이다. 넓이 440.485㎢(1억 3,348만 평)의 광대한 자락을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의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걸쳐 놓고 있으며 그 둘레가 자그마치 800여 리나 된다.

높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은 심을 제외한 남한 땅의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을 잇는 100리에 가까운 등마루에만도 1,000미터가 넘는 봉우리가 20여 개나 된다. 또 그만큼의 등성이를 가지치며 피아골이나 내원골 같은 계곡을 만들어 섬진강과 낙동강을 살찌운다.

지리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빚는 일은, 꽃이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어찌 감히 면벽한 선승(禪僧)의 향상일로(向上一路)에 비길까만, 고맙게도 지리산은 그것을 허락한다. 대간의 남쪽 들머리가 천왕봉(天王峯)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찰로 치면 사천왕문(四天王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천왕봉이다. 해탈문이 멀지 않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저기 제석봉, 연하봉, 영신봉, 덕광봉, 명선봉을 지나 지리산의 심장이라 할 '지혜의 봉우리(반야봉)'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간다.

지리산은 깨달음의 산이다. 일찍이 옛사람들도 이 산을 불국토로 여겼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 보살이 머물면서 불법(佛法)을 지키고 중생을 깨우치는 도량으로 믿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리(利)'를 딴 지리산(地利山)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리산의 서쪽 기둥격인 노고단(老姑壇)은 신라 때에는 '갈상(葛上)봉'으로 일컬어졌으며,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30개가 넘는 사찰이 골마다 들어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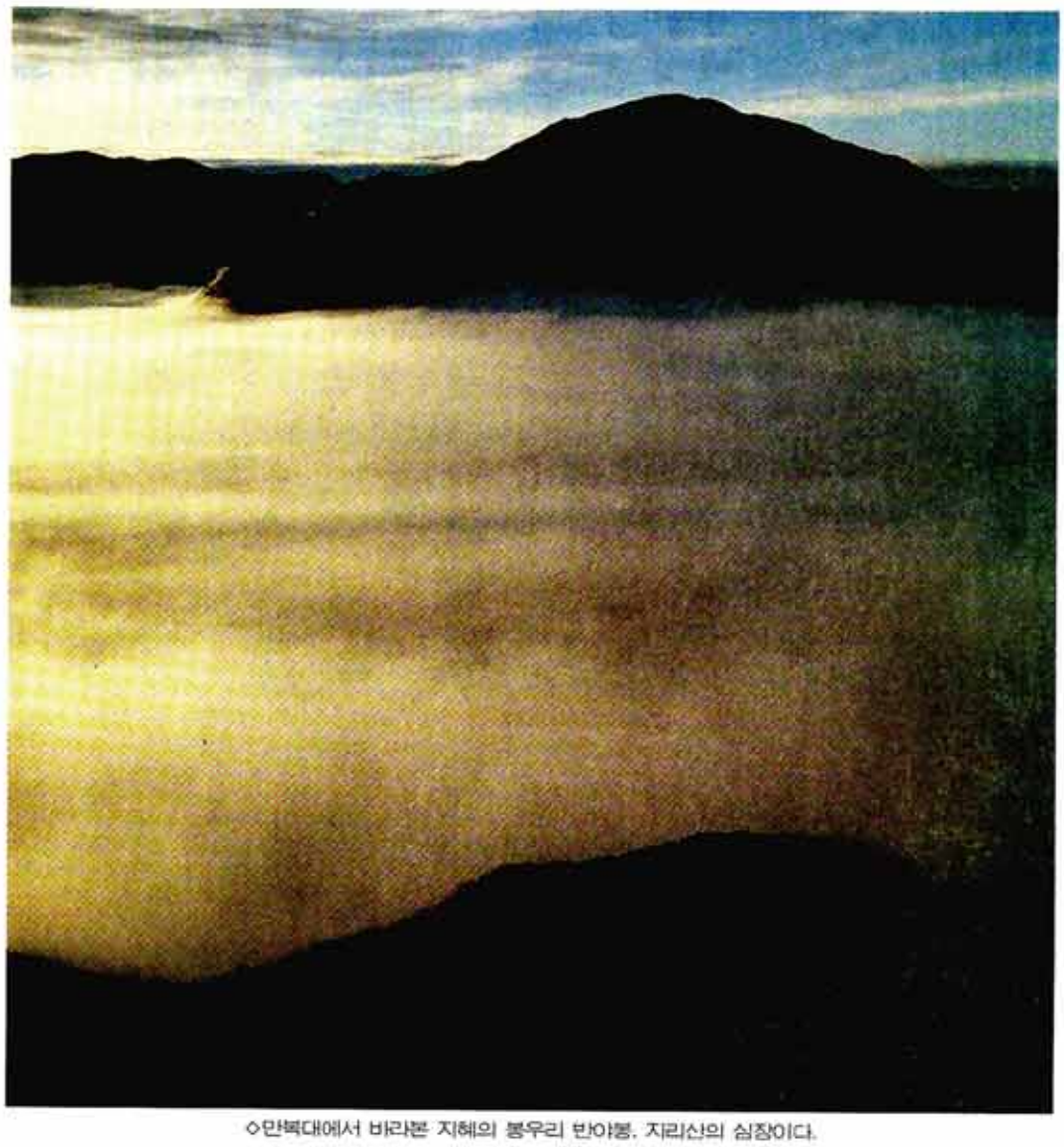
지금도 지리산 자락 그윽한 곳에는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가 끊이질 않고, 눈푸른 납자들의 기상은 산빛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10여 개가 넘는 고찰이 깨달음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그 면면을 살펴보자.

화엄종찰인 화엄사는 754년에 연기 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신라 말기에 도선 국사가 다시 크게 일으킨 사찰이다. 국보 제67호인 각황전과 그 앞에 우뚝 선 국보 제12호인 석등은, 국보 제35호인 사사자 삼층 석탑과 함께 한국 불교의 큰 자랑거리이다. 또한 6·25 때 각황전을 향해 날아가던 총알이 지붕 위로 비껴갔다는 거짓말 같은 얘기는, 화엄사의 부처님이 이 일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대상인가 하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역시 연기 조사가 543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연곡사도 빼 놓을 수 없는 절이다.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부도(동부도 국보 제53호, 북부도 국보 제54호)가 인상적이다.

연곡 조사가 828년에 창건했으며, 도량 앞을 흐르는 계곡물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룬 천은사도 그냥 지나치기 아깝다.

아(亞)자방으로 유명한 칠불사, 고운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가 1,000년 고찰임을 알려 주는 쌍계사, 선문구산의 하나인 실상사 등도 지리산이 얼마나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은 산인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그 밖에도 지리산에는 금대암, 대원사, 벽송사, 안국사, 영원사와 같은 사찰들이 산문을 활짝 열고 있다.



◇만복대에서 바라본 지혜의 봉우리 반야봉. 지리산의 심장이다.



◇중석대에서 바라본 왕시리봉을 비롯한 지리산 남쪽의 줄기들.

대간 종주의 시작(99년 6월 1일)은 비에 젖는 일이었다. 비를 담은 물주머니, 손으로 움켜쥐면 주루루 물이 흐를 것 같은 구름과 어깨동무하며 젖고 또 젖었다. 땀도 참 많이 흘렸다. 다행히도 빗물과 땀은 서로를 배반하지 않았다. 덕분에, 빗물과 함께 온전히 지리산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참으로 장엄한 입문식이었다.

꿈꾸어 본다. 이 길이 끝나는 날, 들꽃에 내려앉은 이슬 방울과 똑같은 질량으로 풀잎 끝에 올라설 수 있기를. 솔잎 끝에 매달릴 수 있기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

글=윤제학(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사진=손재식(사진가)

지리산 10경

1. 천왕일출(天王日出):"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왕봉의 일출은 빼어나다.
2. 직전단풍(稷田丹楓):피아골의 단풍을 이른다.
3. 노고운해(老姑雲海):지리산의 운해는 노고단에서 바라보아야 제격인 모양이다.
4. 반야낙조(般若落照):지혜의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낙조. 빛과 어둠이 둘 아님을 가르치려 함인가?
5. 벽소명월(碧宵明月):푸른 고갯마루를 비추는 밝은 달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까.
6. 세석(細石) 철쭉:연분홍으로 고운 잔물결의 철쭉은 그대로 꽃구름이다.
7. 불일현폭(佛日懸瀑):장군폭비 한 방. 불일 폭포의 말 없는 가르침이다.
8. 연하선경(烟霞仙境):연하봉 아래의 숲속을 거닐면 누구라도 신선이 되고 만다.
9. 칠선계곡(七仙溪谷):천왕봉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며 선경을 이룬다.
10. 섬진청류(蟾津淸流):지리산 푸른 그림자들 안고 흐르는 섬진강 또한 늘 푸르다.

지리산 10경은 70년대 초 구례의 지리산악회에서 뽑은 것인데, 지리산을 이해하는 데 참고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겉에 절경을 두고도 10경이라는 이름에 넋이 팔려 그냥 지나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참선명상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앉았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의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여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건강한 방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정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배로스럽거나 피곤한 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몸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투동.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싸이버 성덕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싸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종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C.D.화한,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채작 중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싸이버 에밀레종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30cm
좌대크기 15cm×15cm
종 5cm×11cm
가격: 143,000
■싸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종 17cm×12cm
가격: 200,000
■싸이버 에밀레종(나무사각)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26cm
종 5cm×11cm
가격: 143,000

창포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니어야 할 도구의 하나로 탁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빨다라(鉢多羅 pā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宇)이다
•외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외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 Kg
(새로운 제가 필제품하면 발주 입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에서나 오사 분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시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법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스탠세
•크기 가로720×세로340 ×높이320(단위mm)
•재질 느릅나무
•가격 ₩8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잎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상징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성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중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가격:₩120,000

mahamall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대행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갈파하고 생활속의 선 실천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하나인 이치 알면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대법회 마친 대행스님 기자회견

나를 찾아 고(苦)에서 벗어나자는 감로법문으로 독일인과 교민 3천여명을 해탈의 문으로 안내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이 독일대법회를 마치고 귀국, 8월 3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독일에서의 법회에 대해 "서방의 물질적 현상을 주도하는 정신세계에 관해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한 스님은 명쾌한 어조로 인류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갈파하고 생활속의 선 실천을 강조했다.

-독일 법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강조하신 법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자신은 자기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정신계는 미루고 물질계로만 살아가니 초점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계로 인해 내가 이끌어져 살아야 하는데 정신계가 미약하지요.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일에서 그분들 모습에 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정신계에 입력을 시켰지만 끌고가는 것은 자기 할 탓이지요.

-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라 불화가 끊고 본래의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진리는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숭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리를 좇아 화합해 살아나간다는 것은 말없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파가 서로 이어지듯이 서로 거리가 맞고, 이렇게 말없이 통한다면 각박한 세상은 저절로 순화되고 화합됩니다.

- 평소 강조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지요. 나하나가 공한줄 알면 이 지구가 공한 줄 알게되고 이 지구가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선'을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는 돌이 아닌 생명의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체이니 물한모금을 마셔도 내가 마시는게 아니고 전체 생명들이 마시는 것이지요. 내가 했다할 수도, 안했다할 수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똥을 더럽게 여기지만 몸안에 있을때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요. 모든 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걸림이 없고 구별이 있을 수 없지요.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때 발자국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찰나찰나 고정됨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속의 선입니다.

- 21세기에는 우리나라에 종교갈등이 더 극심해 지지 않을까 사회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현재도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한 공기주머니안에 담겨있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공기주머니안에 함께 있으면서 내것이니, 누구것이니 하고 탐욕을 부리니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형상만을 보지말고 본뜻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라는 이치를 안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요.

- 1972년 선원이 개원된 이래 전국에 14개 지원, 해외에 9개 지원을 두는 등 급성장을 하고있고 최근 안양의 본원도 새롭게 중창불사를 했습니다. 포교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함이 없이 하는 것이 포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이룬 것도 없어요. 나라는 형상을 보지말고 그 뜻을 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면 남을 원망하지 않게되고 또 스스로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불사에 참여하다보니 원력이 결실을 본 것이지요.

이경숙기자

"유럽 정신계에 신선한 충격"
법문집 '해탈의 문' 주문쇄도

독일 현지 반응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에는 7월31일 대행스님 독일대법회에 참가했던 현지인들의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이 대행스님의 설법에 크게 감동받았다는 토로이며 현장에서 구입한 대행스님의 법문집 〈Das Tor zur Befreiung(해탈의 문)〉을 읽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고 싶으니 책을 보내달라는 내용들이다. 편지내용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의학박사 잉게보그 헤세노박은 "훌륭하신 대행스님의 법회에 참석하는 기쁨과 한마음합창단의 감동적인 음성을 듣는 기쁨을 가졌다"며 "법회장에서 〈Das Tor zur Befreiung(해탈의 문)〉 책을 구입해 잘 읽고 있고 정신적 스승인 빌리기스 신부님에게도 이 책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퀼른에 있는 불교센터 슈타트라움의 베르너 하이덴라이시는 "대행큰스님의 불성을 설하시는 비유적 표현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아울러 대행스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나를 인상깊게 사로잡았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모든 분들의 친절한 영접 역시 감명깊었다"고 썼다.

"조직화된 종교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큰 격차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고 토로한 카스텐 클라이스트는 "그러나 대행스님 법회는 나의 그러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아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뮌헨에 사는 F. 단게르스는 "〈해탈의 문〉으로 천천히 그리고 명상하면서 공부해 갈것"이라며 "스님께서 불교를 설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마음깊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뿌리 믿는 나무 푸르게 살듯 불성만이 자기 이끌 수 있어

"의심하지 마세요
고기가 어떻게 말 하느냐고
나무도 돌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는 한번 죽고 또 한번 죽고 또 한번 죽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아주 여러해 만에 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고 신도들도 항상 신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중생을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런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모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물가를 이렇게 가다보니까 아주 큰 잉어같은 고기가 있었는데 처음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입도 이만큼 찢어지고 몸통도 산산이 찢겨져 아주 바짝 말라서 그냥 볼 수가 없이 된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너는 고기의 모습을 가졌으니 사람으로 금방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순간 다시 생각하기를 '내 물방울과 저 물방울이 둘이 아니고 한 물방울이라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수없이 겪고나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고기는 서슴없이 나한테로 달겨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살면서 고기의 모습으로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살아온 게 너무나 안스럽고 또 한가지는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또 자기와 같이 살게 해논 게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심하지 마세요. 고기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의심하지 마세요. 저런 나무도 돌도 다 말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 축생과 또 이 물에서 노는 생명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차원이 다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고기라는 것은 사람으로 금새 환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만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6년을 살았습니다. 6년을 사는 동안에 참 너무나 잘 알아서 환생을 하게끔 했죠. 어디다가 심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대답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느냐. 생활속에서 살림하는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우리 스님네들도 그거는 꼭 알아야만 되겠다는 얘기죠. 길에 다니며 봐도 그렇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가고 오다가도 그렇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봐도 내가 본 게 인연이에요. 본 게 인연이고 들은 게 인연이에요. 고기들을 몰아서 모두 죽인다 이럴 때도 그거 본 게 인연이거든요. 보지 않았으면 인연이 아닐텐데 봤으니까 인연이다 이겁니다. 또 닭을 몰아서 그냥 죽인다 이럴 때도 그거 본 게 인연이죠. 그러기 때문에 고기가 백마리라 하면 백마리 수효대로 다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령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령은 백마리를 한데 합쳐놔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백마리를 한데 합쳐서 하나로 탄생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백마리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탄생케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또 한마리를 소생케 할려면 내가 둘 아니게 안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생물이니까요. 물론 다 생물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넣으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넣으면 넣는 대로 넣는 사이가 없어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어 줄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 하신 분들은 다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 이 소리를 듣고서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환생을 시켜도 나와 같이 알았기 때문에 그건 큰 부처의 한도량으로서 아마 발을 디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디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것이 천년만에도 될 수 있고 몇 백년만에도 될 수 있고 또 몇 십년만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본인이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 연이 닿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구가 다 닭을 먹어야 산다 이럴 때 닭을 스무마리를 잡는다면 스무마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천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차원이 제일 나은 닭, 그러니까 닭생활에서 벗어나서 좀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 선택해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런 닭은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여잔지 남잔지도 알고 어떻게 살고 있는 것도 한 집안에 살면서 다 알아요. 자기한테 모이주는 주인을 알아서 눈이 오면 신발이 젖으니까 신발위에 턱 하니 앉아서 신발에 눈이 맞지 않게 하는 그런 닭도 있어요. 이것저것 보면서 난 너무나 신기했어요. 모두가 생명이 있고 말을 하고 생각이 있고 그래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모두가 살아있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아까 말한 그 닭을 천도할때 만약에 이 지구안에 사람이 아주 적어서 십리가 다 한번씩 만날 수 있다면 스무마리를 다 사람으로 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틈에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면 그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극치적으로 돌아야 하니까 말이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모습을 바꿔서 진화시켜서 인도환생으로서 하되 스무마리를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영을 스무개를 한데다 합치면 영이 몇개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영도 없는 거지마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스무마리라도 영을 한데 합치니까 영이지요 그냥. 그래서 하나만 태어나게 하되 그렇게 수레바퀴에 걸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지 말고 이 부처님법을 배워서 앞으로는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환생을 시켰죠. 시킨 게 아니라 저절로 시켜졌죠. 사람이 생각을 한 생각을 잘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한생각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생각하기가 어려죠. 그냥 생각하는 거 하고 한 생각 하는 다른 겁니다. 육체하나를 가지고도 부정됨이 없어서 모든 생명들이 이 오장육부 안에 들어있으니 이거는 공생이다 이런 겁니다. 공생으로 살고 공심으로 살아라. 공생으로 살고 공심으로 살고 공체로 살고 공용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공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식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대로 자기가 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싱그럽고 정말 이지 잘 살수 있다는 사실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것이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고무줄 같은 법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고 이 법은 자유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한생각으로서 그 상황을 봐서 하나로 하려면 하나로 하고 둘로 하려면 둘로 하고 셋으로 하려면 셋으로 하고 아주 안하려면 안하고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축생은 사람을 한번 거쳐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면 바로 위의 축생으로 태어나서 또 그런 고생을 해야 하고 더 큰 축생으로 또 태어나야 하니까 사람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그냥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것도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 16면으로 계속

찰나찰나 없어지는데 왜 붙들고 늘어져요
"못한다"에 걸리면 밝은 생각 나오지 않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생명 내모습

☞ 15면에서 계속

들어놓은 게 있어야 어느 때에 확 자기 앞에 닥쳤을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찰나에 해버리죠. 이거는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그래요.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선도 뛰어넘고 팔정도도 뛰어넘고 십이연기법도 공법이 돼서 뛰어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이 공부는 그냥 찰나에 이렇게 한생각에 생각이 지혜로와지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거죠.

그만큼 우리가 놓고 가다보면 정말 오로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바로 내면의 공심처가 있다. 또 공심가운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물을 한그릇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아니다.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누가 먹었다 이게 먹었다 저게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 게 인연이니까 말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전부 난리에 죽고 그런 영가가 누적이 되면은 나라가 좋지 않고 세계가 좋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별성은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촛불이요. 별성하고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도를 하러 왔을때 이 사람은 전자에 죄가 많으니까 천도가 안되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긴사람 보면 길게
짧은사람 보면 짧게
한마음 되어 주세요

저래서 안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자기 심정으로 그냥 해줘도 되는 이치죠. 또 이 공부하는데 죄가 있고 없고 이거를 따지고 또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남한테 이익되게 해줄려면 무조건이지 어떻게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는 것이지 이 부처님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이예요. 무조건 무주상이예요. 공심으로서 그냥 무주상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고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찰나면은 사람이 저 삼천년전으로도 뛰고 삼천년 후로도 뛰고 일초전으로도 뛰고 일초후로도 튈텐데, 이건 생무지니까 마음이 항상 살던 습이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온 습이 있고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거는 정말이지 못해, 우리는 도저히 못해,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해.' 이런 생각때문에 못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로막아서 밝은 생각이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아픈 눈물이 나는 것은 축생이나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이나 모두 이거는 극치에 이르러서, 수레가 돌아가는 데 거기 끄달려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예요.

우리 몸하나의 주머니에서 벗어나야만 이 지구 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내 몸통 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큰 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한 문젠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작업을 해라. 오로지 너가 있으면은 너의 불성도 너한테 있다. 오로지 너의 불성만이 너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를 살게 할 수 있고 공부하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거를 영 말을 믿지를 않아요. 남의 말은 잘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데 왜 안 믿습니까. 꽃나무는 나무든 자기 뿌리가 자기 몸뚱이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안다면 어떻게 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믿는다 안믿는다 그런 언어가 어디 붙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뿌리가 그렇게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여기가서 찾고 저기가서 찾고 타의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절대로. 똥누는 것, 밥먹는 것, 자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깨닫는 것, 이거 대신 누가 해줍디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도시키는 데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란 건 이거 아주 피치못할 아픔이 닥쳐요. 상대방도 나도 더불어 아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봤던들 한철 사는 건데 한철 사는 동안 남을 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살게 돼있어요. 더불어 같이 살게 되는 거라구요. 나를 위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주니까 다 나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신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겁요.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일체만물만생이 다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다 한 말씀이 그것을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거든요. 내가 어느 거를 건졌을 때 내가 건졌다고 할 수 있으랴.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한 사이가 없다 이렇게 밖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다못해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세상에 내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돌하나 나무하나 물 흐르는 것, 산, 팔만대장경 이 모두가 감사 안한 게 없어요. 스승 아닌 게 없다구요.

나는 인간이고 저건 축생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축생도 내 스승이예요. 왜? 내가 그렇게 처참한 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구요. 사람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내가 그 꼴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다 내 스승이예요.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서만이 찢어지는 게 아니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 뭉친 응어리때문에 죽어있어도 어디 한발짝을 떼어놓지 못해요.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사람이 치어죽었죠. 그 혼이 놀라서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없단 말이예요 자기 몸뚱이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몸뚱이를 찾으니까 없더란 얘기예요. 이럴 때 남의 몸뚱이라도 가져야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영 한발짝도 떼놓지 못하거든요. 그래 살아생전에 깨우쳐야지 살아생전에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도 깨우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살던 그 습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얕은 사람이 따로 있고 높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걸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요.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는 뼈 한 무더기로 수없이 진화되고 형성돼서 돌아가는 수레를 얘기 하셨습니다.

'어느때 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난리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그 습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도 안붙잡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몇번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다 와야 그때서야 뒤에 천천히 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미래가 좋은 거예요. 미래가 뭐 다른 건가요, 미래가 오늘이지. 내일이라도 오늘이고 어제라도 오늘이예요. 내일이면 미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이라구요. 과거는 금방 일초전도 과거거든요. 도깨비처럼 사는 세상에서 진짜 나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소리죠.

한철 사는 인생 이래도 한철 저래도 한철 어차피 한번은 죽어요. 이왕 죽을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다구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냥 찰나찰나 한발 한발 떼어놓는 것과 같아요. 한발 떼면 한발 없어지고 한발 떼면 한발 없어지고, 이것 보면 이것 없어지고 저것보면 저것 없어지고, 이사람 만나면 저사람 만나야 하고 이렇게 모두가 되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걸 왜 붙들고 늘어지느냐구요. 하루살이로 살지. 그래서 나는 이래요. 긴 사람을 보면은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한마음으로 돼주라구요. 정말 누구말마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준단 말이야. 이것이 틀리고 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됐거든. 안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긋해서 아프다 이럴때 '이거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내 몸이 고달플텐데 너의 집이 고달퍼해. 그러면 너가 뭐가 좋겠어 모두.' 그러면 그냥저냥 나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은 다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우리가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뭐든지 만들어 쓰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죠.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오신통을 했어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줄수 없으면 허탕"

지 말아야지 그럼. 쉬지않고 돌아가게 할려면은, 아무리 자세히 헤쳐려고 내가 애를 써도 상대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삼분의 일도 안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 조상님들의 문제도 천도시키세요. 왜냐하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것이 그냥 모두 달려있거든요. 죽은 사람한테나 산 사람한테나 그렇게 연결 돼있으니까 모든 것을, 즉 죽은 사람들이 조상들이라면 자기 주인공에다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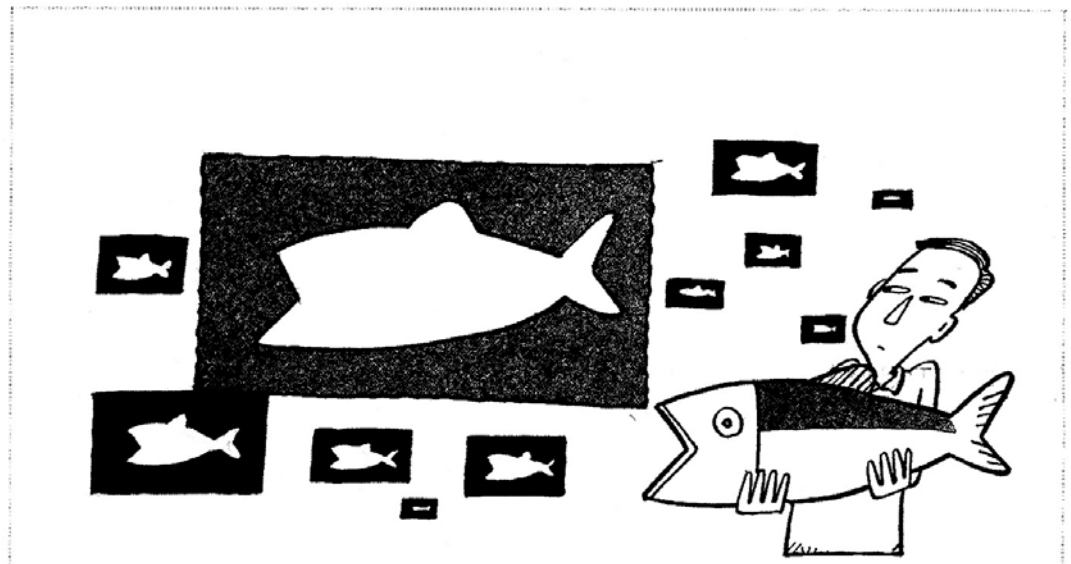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 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살게돼 있어요
사람답게 사람노릇 하는 게 잘사는 거죠

어떠고 이론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그러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길에서 만나더라도 한생각을 내주세요.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를 도와 주더라도 그걸로써 그만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러지도 말고요.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준거니까. 그것은 남들이 눈물을 다 한데 합쳐서 갖다 놓은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레기라고 해도 좋고 눈물 방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그런 걸 기쁘게 내가 줬다고 합시다. 어떻게 내가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도 그냥 함이 없이 놓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 뭐 액운이 안온다고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감기도 안오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다고도 하지 말라구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럼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심이 되고 공식이 되니까 안에 있는 생명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 양으로 모두 작용을 해요. 이게 모든 생명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러니 이 집이 무너지면 자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 이 집이 무너지면 자기 하나 할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사람이 치어죽었죠. 그 혼이 놀라서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없단 말이예요 자기 몸뚱이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몸뚱이를 찾으니까 없더란 얘기예요. 이럴 때 남의 몸뚱이라도 가져야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영 한발짝도 떼놓지 못하거든요. 그래 살아생전에 깨우쳐야지 살아생전에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도 깨우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살던 그 습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얕은 사람이 따로 있고 높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걸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요.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는 뼈 한 무더기로 수없이 진화되고 형성돼서 돌아가는 수레를 얘기 하셨습니다.

'어느때 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난리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그 습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도 안붙잡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몇번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다 와야 그때서야 뒤에 천천히 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미래가 좋은 거예요. 미래가 뭐 다른 건가요, 미래가 오늘이지. 내일이라도 오늘이고 어제라도 오늘이예요. 내일이면 미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이라구요. 과거는 금방 일초전도 과거거든요. 도깨비처럼 사는 세상에서 진짜 나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소리죠.

한철 사는 인생 이래도 한철 저래도 한철 어차피 한번은 죽어요. 이왕 죽을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다구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냥 찰나찰나 한발 한발 떼어놓는 것과 같아요. 한발 떼면 한발 없어지고 한발 떼면 한발 없어지고, 이것 보면 이것 없어지고 저것보면 저것 없어지고, 이사람 만나면 저사람 만나야 하고 이렇게 모두가 되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걸 왜 붙들고 늘어지느냐구요. 하루살이로 살지. 그래서 나는 이래요. 긴 사람을 보면은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한마음으로 돼주라구요. 정말 누구말마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준단 말이야. 이것이 틀리고 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됐거든. 안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긋해서 아프다 이럴때 '이거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내 몸이 고달플텐데 너의 집이 고달퍼해. 그러면 너가 뭐가 좋겠어 모두.' 그러면 그냥저냥 나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은 다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우리가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뭐든지 만들어 쓰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죠.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먹일 줄을 모른다면 그거 허탕이지 그게 무슨 도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고 후년에는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목마른 사람 물 갖다줄 수 없다면 아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다 하는 난설은 다 필요없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이 안계실 때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의 이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 머리깎은 사람만 공부하게끔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를 믿든 안믿든 전부가 불교안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가 불교 주머니 안에서 허둥지둥 난리를 치고 살지 어디 갑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죠. 그리고 항상 선이 끊어지지 않게 선을 하라고 하는데 선이란 건 앉았으면 좌선이고 서 있으면 입선이고 누워서 자는 것은 와선이고 일하는 것은 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다 그냥 공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꼭 좌선하고 앉아야만 선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좌선하고 앉았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하고 앉지 안았을때는 지구가 안돌아가느냐구요. 그러면 그렇게 선을 하는데 어떻게 오줌마렵다고 오줌누러 가고 똥마렵다고 똥을 누러 가느냐고. 일어나든 걸 한데 놓으란 말입니다. 자기 조상을 천도시키려면 전부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라 이 소립니다. 거기다 놓고 자꾸 가다보면 조상들이 자손들의 몸을 빌어서 자기 공부하는 차원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줘요.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구요. 조상도 살다가 착을 가지고 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니 불에 들어가면 타죽을 줄 알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죽을 줄 알고 또 내 몸뚱이를 건너야 되는데 내 몸뚱이 속에 수많은 벌레들이 왕창 커져 가지고 세균들이 모두 널려져 있으니 그걸 밟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공부를 하거든 전부 거기다 돌아니게 넣으세요. '주인공 전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잖어.' 하고 다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상들이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천명이든 그냥 다 자기 아는 것만큼 다 알게 됩니다. 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놓고 해라 이랬느냐 하면 그건 떡이 떡이 아니란 얘깁니다. 살아생전에 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먹던 그 습이 없어져야 둥글게 그냥 부처님 자리로 한자리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습이 있으면 한자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령들한테 그 모든 걸 말없이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로 자기뿌리를 자기가 믿는다면 자기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두 놓고 한자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대로 승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가 영화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배우들이 영화만들때 자기 배역만 하고 딱 몰러나면 그뿐이죠.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하죠. 심지어 물에 빠져 죽는 시늉까지도 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는 것도 영화 배역같은 건데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죽는 거를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서 착을 떼지 못하고 남은 식구들도 떼질 못하니까 내던질 수가 없거든요. 내던지면 살텐데 내던지질 못해요.

그러니 부처님법은 요만큼도 거짓이 없고 진리는 요만큼도 거짓이 없고 에누리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스님네들은 특히 남을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봐도 '이거 무엇에다 쓰지?' 이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쓸 사람이 또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뒀다가 쓰고, 그것이 그 사람네들을 위해서 써줘야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면 안돼요. 그거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번 돈인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푼 벌양으로 그 노동하는 사람,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고 버는 사람, 그 애간장을 태우고 버는 사람, 별사람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보겠냐구요.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나라면 말이예요.

그리고 부모의 조상들을 잘 챙겨서 그 날을 잊지말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자식들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만 외아들이 죽자 아들의 복을 빌며 계속 아들의 제사를 지냈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사는데 꼭 어느 날 그 날짜만 되면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온대요 꿈에. 그러니까 참 이상도 하다, 일년에 한번씩은 꼭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보고 온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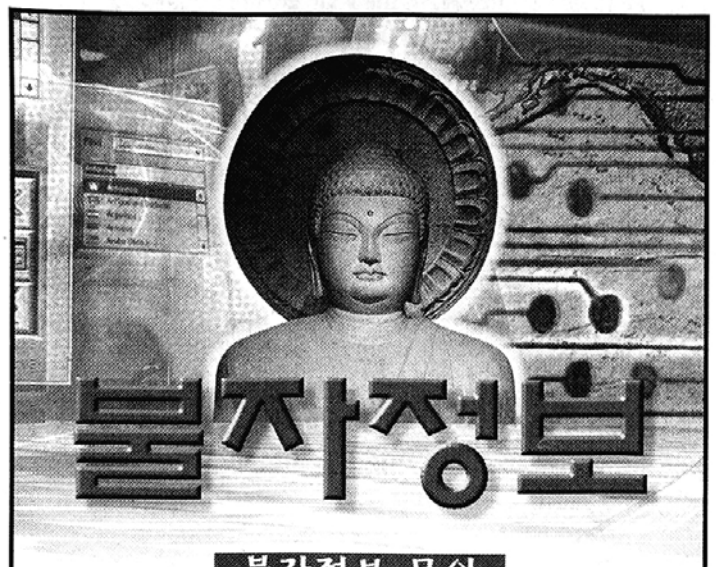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길래 그걸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전생의 어머니다. 전생에서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다. 꿈에 갔던 길을 찾아서 그 집을 한번 가서 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날도 제삿날이라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 집이 있더라는 거죠. 비록 꿈속이지만 몇 해를 두고 다녔으니까 길을 잘 알죠. 들어가보니까 제삿상을 차려놓고 꿈에서 본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자기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서는 그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두 어머니를 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 일이니 사람으로 태어났을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입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노릇 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오늘요 이렇게 듣고 이 공부하신 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또 자식들에게도 연방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해주신다면 둘에 갖다 세워놔도 살 수 있어요.

고침 236호 15면 법공양 기사중 '행복이란 무엇인지요" 답의 맨 마지막 문장 '선은 매우 쉬운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는 '禪에 대해…' 의 질문이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9년 4월 18일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대홍도원
기공 선도법 수련
(진중공, 단전호흡, 활도술)
수양, 수도 및 수련자
※ 숙식가 ※
0446)877-9051
경기 이천 충북 감곡
장 호 원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갑상선·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전화 0667)761-5799
H.P 011)696-4848
팩스 0671)626-4980

귀 비법을 전수해 귀 드립니다
좌골 신경통
오십견(팔에 모든질병)
관절염 / 허리디스크
주름살제거 (살빼는 법)
※모든통증을 제거하는 법
0342)752-3035 (출가상담)
016)288-3035
향 천 사

강좌

男女 철 학원생 모집
◆사주: 대운·행운·신수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발원 소원 성취
귀 달 마 사 포 교 원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02)928-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스님**

과학기술을 이용한 견성공부 수련테프 판매!
①, 화습 집중력기인 릴렉스이즈를 이용하여 관법으로 쉽게 견성할 수 있음
②, 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는다.
③, 八苦해탈/습관/세균/감정/잡념/불안/만성난치로부터 자유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구인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523)
382-7083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50대 전후반
0373)373-4787
019)263-1406

기도 잘하시는 스님 모 십 니 다.
50세~60세사이
02)933-6701

비구니 스님 보세요.
◆몸이 불편하여 대중선방에 못가시는 분
◆쉬면서 건강을 다스리고 싶은 분
◆자유정진이나 자유기도 하고 싶으신 분 오세요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산 42
02)384-5060 약사사

젊은 인재에게 투자하실 분을 찾습니다.
◆절에서 일하면서 신도님들께 인생 및 역학을 상담해 주시길 원하시는 「사찰」이나, 「철학관 사무실」을 제공하실 분
02)3432-9556 **법사**
016)266-1130 **현 도**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새천년 불교문화의 새장
개 견지불교사 장
불교용품 전문백화점(차, 다기, 도자기)
상운중심 1층에 OPEN
●언제 : 9월 10일 (금) 음 8.1 오후 3시
●위치 : 상운중심(조계사 입구)
※OPEN 기념품 및 10만원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이벤트 행사
견지불교사·상운중심점 - 불교용품의 모든 것
TEL 02)739-3032/739-3035 FAX 02)733-5755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철학관 수강생 모집
02)
962-9871
자비원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서울포교당 30평
◇가액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없음
◇아파트 대단지앞(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 740평, 임야 25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미륵불, 해수관음상, 주차장
◆위치 : **구기터널부근**
◆부지 : 60평/ 건물 : 20평
◆가액 : 1억 3000만원
◆특징 : 수목이 우거지고 교통이 편리함. 무속인도 가능함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 부평**
◆대지 : 200평
◆건물 : 법당 20평 / 요사 : 40평
◆가액 : 4억
◆특징 :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명당터에 위치한 고찰임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급) 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142평,대지(등기필)
법당·요사채 37평
◆가격 : 1억 1천만원
(담사후 가격절충)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현재 비어져 있음
0599)933-7988/011)488-3339

포교원 안내
◆위치 : 중랑경찰서 옆
◆법당 : 30평
◆가격 : 보증금 천만원, 월55만원
권리금 2천만원
※ 모두 일체 드림.
02)948-8020

사찰 안내
◆위치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093-1, 1093-2
(원주중앙시장에서 차로 10분거리)
◆건물 : 법당 20평(신축건물)
요사채 55평(슬라브건물)
◆대지 400평(약수터 있음)
◆가격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371)743-6579
011)373-5757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법당: 15평
◇요사: 25평
◇부지: 3,800평
◇가액: 1억 5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3,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 1,500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2)521-7512/018)385-1234

포교원 (급) 안내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전철역 앞
◆규모 : 총45평, 법당15평,
시설최상급, 거실1, 주방1, 목욕탕, 화장실1, 대중화장실 별도, 살림방 3, 상담실 1-살림편리, 5층건물의 5층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총3,500만원)
011)660-4631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가격 : 전세 2천5백만원
매매 3800만원
0591)758-4895

사찰(급) 안내
◆위치 : 천안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각각 반목조 단청)
◆요사채 : 2동(석재 미륵입상, 탑, 대종, 명부시왕 10분 등
◆부지 : 1천 3백평(1년 쌀 한가마 도지)
◆건물 : 사찰등록, 개인소유 등기필
◆가액 : 1억
※ 아늑하며 식수 최고의 맛 ※
0417)566-5892/02)838-2929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가격 절충)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인가에서 100m산중, 바다가 한눈에 보임
◆부지 : 399평, 현 임법당
◆가격 : 2억 5천
051)248-9390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중구 선화동
삼성생명빌딩(도청옆) 대림관광호텔 옆
◆대지 : 50평 3층 법당
◆시설 : 최고시설 완비
◆가격 : 시설비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가격절충
042)256-1016

사찰 안내
◆위치 : 보문산 입구
◆임법당 15평, 기도방 8개
◆가격 : 6천만원
042)255-5063
011)9766-5563

사찰 안내
◆위치 : 영덕과 영해사이
◆규모 : 임법당 총면적 1907평
대지207평, 요사채35평, 밭 1700평
◆특징 : 야산밑 큰 고래산 있음
3층제단 조성
◆가격 : 9천만원
011)653-8375/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양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서울 경기지역 사찰 암자터
◆매입 운영하실분이나 양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토목공사 불사상담
◆성실책임 비밀보장합니다.
011) 8901-5779

토굴 안내
◆위치 : 함양군 덕유산
◆규모 : 대지 25평, 황토집.
5~6평 1체
임법당 및 요사채 30평
◆경관수려, 식수가 좋으며 종교부지 허가 받음.
◆가격 : 5천만원
0597)962-3528/011)842-3525
※현재 스님 거주중

사찰 안내
◆위치 : 부천시 중동Apt. 밀집지역
◆규모 : 5층건물의 5층
시설이나 위치는 모두 A급
◆평수 : 약 75평
◆가격 : 보증금 천만원에 80만원 (전세 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9750-4075

사찰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아파트 앞(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011)563-4454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삼거리
(길음전철역에서 3분거리)
◆평수 : 50평
◆가격 : 전세 7천만원
※ 시설비 무료 (A급시설 완비)
탱화, 부처님 등 일체 조성 완비
0366)432-4347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시내에서 2분거리)
◆대지 : 100평
◆건평 : 110평(다용도실1,2층 약20-30평 별도)
1층 30평 (방3칸 거실큼) 1동
2층 30평 (방3칸 거실큼)
1층 25평 (방2칸 실평수) 2동
2층 25평 (방2칸 실평수)
등으로 사용가능
◆ 전망좋음, 전원주택처럼 트이게 아주 잘지었음.
◆가액: 전세 5500만+은행융자 8천=3억5천
◆받을금액: 2억1500만(가격절충)
0348)959-1997/011)399-79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사찰 안내
비구니스님·보살님 중 운영하실 분
◆위치 : 충주시(충주댐 강변도로변)
◆평수 : 현 사찰150평 부지외 수천평 분할가
◆내용 : 석굴암 및 법당, 요사채, 오층탑, 관세음보살상 아미타불상 산신각 철상각 제2석굴암지와 미륵보살 성지 300평완성, 도로포장완성, 재력투자 한분에게 사찰 양도가능, 주차장 450평 허가 방생최적지
0441)848-1766/019)485-1766
(야)0441)853-2896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사찰 안내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20분거리 광릉 수목원 근접
◆ 부지 580평, 임법당, 요사채, 방6개, 건평63평
◆특징 : 소나무로 둘러친 산 중턱 소쩍새와 온갖 새가 지저귀며 작은 계곡물이 흘러 내리는 서울 근교의 명당터 공부한 식수와 산 정상까지 살림목과 약수가 있으며 주차장 연못, 조경완비
◆ 가액: 답사후 결정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은해사 근접
◆부지 약 1천평
법당 15평, 요사 20평
◆산세좋음
◆가액: 6천 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211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2동)
◆매매희망기간 : 백중전후
◆가액 : 1억 8천만원
※집은 소박한 한옥이나 산세가 편안하며, 넓고 조용한 수양도량으로 식수가 아주 좋음. 도량까지 차량진입가.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토굴 안내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대지 : 144평
◆황토벽돌,찻길연결되어 있음
◆주변에 계곡 有, 경관수려
◆전용허가를 받은 집과 터.
◆가액 : 1천 6백만원
(상담후 절충가)
0416)841-6013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대지 : 85평
◆건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가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특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웅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스님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혜택

(생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자, 만성 신장·심장 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만명이 추가로 장애인으로 편입되며, 이들은 장애수당, 공공시설 요금할인, 고용알선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의차량만 선별 음주단속

(직업훈련) 경찰청은 그동안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됐던 음주운전단속이 용의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음주운전 용의차량은 △급정차하면서 정지선을 초과 △날씨에 맞지 않게 창문을 열고 운전 △음악 등을 크게 틀고 운전 △지그재그로 운전 △차선 급변경 차량 △지나치게 서행하거나 과속하는 차량 등이다.

주부 · 고령자 취업적응 훈련

(주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단기간 기초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직종은 산모돌보는이, 가사보조원, 환자돌보는이, 경비원, 아기돌보는이 등이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경인지역본부 (02)3271-9133

취업상담 무료로 해줍니다

(상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무료로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을 해주는 진로정보센터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빌딩 11층에 개설했다. 개인·집단상담은 물론 전화(080-500-7588) PC통신(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넷츠고의 go careerinfo), 팩스(02-516-2593)로도 상담할 수 있다.

21일부터 하남 환경박람회

(환경박람회) 금세기 마지막 지구촌 환경축제인 '99 국제환경박람회'가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21일부터 한달간 펼쳐진다. 환경박람회는 국내 2백여 환경업체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11개국 3백10여업체가 참여해 각종 첨단 환경기술을 선보인다.

낮잠 자고나면 일 능률적

(건강) 미국에서 최근 사원들에게 낮잠을 권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졸면서 일하는 것보다 낮잠을 한숨 자고 나서 일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판단 때문. 외신에 따르면 공간사정이 여의치 않은 회사는 텐트까지 쳐줄 정도. 한 경영컨설턴트 회사는 공식적으로 낮잠을 권하고 있고, 어떤 건축설계회사는 경영진이 캡슐형 텐트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
"타임머신 발명 과거 미래 가고파"

세계 어린이 21세기 희망 '내가 바라는 세상'

EBS 내년 2월까지 방송



"우린 땅 대신 구름에서 살 거예요.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구름이거든요"(브라질의 7세 소년 니테로이).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화성 같은 우주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와 과거도 가보고 싶어요"(안더구아의 12세 소녀 헤이네세). "모든 판사와 변호사가 사람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할 거예요"(시리아의 7세 소년 미셸)

EBS교육방송이 지난 8월30일 첫방송을 시작한 '내가 바라는 세상'(프랑스 제작)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흥미롭다. 내년 2월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50분에 방송되며, 모두 260명 어린이들이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펼쳐놓는다.

'내가 바라는 세상'에는 타임머신과 불사조가 된 인간 등 그들이 바라보는 21세기는 환상적이고 20세기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는 약간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생각들도 담겨있다.

하지만 20세기 어린이들의 꿈과 환상 속에서 비행기와 컴퓨터 그리고 비디오아트 등 새로운 예술이 나왔듯이 그들의 꿈이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21세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고 이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도 하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미국 소년 더스틴, 남편이 잘 생겼으면 좋겠다는 페루 소녀 비다, 빨간 불일 때는 모두가 멈춰야하는 교통법규를 만들고 싶다는 러시아 소년 미챠 등 이들의 희망은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게 출발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가난과 부의 배분 문제에서부터 남녀의 평등과 결혼, 종교와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사고는 이미 폭넓게 존재한다.

"나는 어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아이티의 8살 소년 그레데릭).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싸움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인도의 10세 소녀 푸르미나). "21세기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인구가 늘어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프랑스 12살 소년 고티예). "제가 밀레니엄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바람은 아이가 울고 아파한다면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영국의 7살 소녀 이자벨).

어린이들의 기대와 꿈은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새희망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재외동포법 개정요구

시민단체 "평등권위배 · 민족공동체 파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안이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악법이라는 비난여론이 높다.

재외동포법은 출입국과 경제활동 등에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직계후손'으로 한정, 정부수립전 해외로 나간 동포는 모두 제외됐다. 따라서 일제시대 만주와 연해주로 간 독립투사 후손 등 중국과 옛 소련 동포 250만명과 징용으로 끌려가 귀화한 재일동포와 후손은 재외동포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 및 재외동포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민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별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외동포는 민족의 존립과 영속을 위한 우리민족의 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에 항의하러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대표 한막스씨는 "러시아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아무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30만 교민이 왜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같은 동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어려운 재외동포를 차별없이 돕는다는 법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꽃제비로 불리는 탈북 식량난민 어린이들.

"탈북 식량난민 30만명"

좋은 벗들, 기자회견서 밝혀
5개월간 중국 동북3성 조사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5개월간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내 북한식량난민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좋은벗들은 또 식량난민중 75.5%가 여성으로 결혼형태의 거주는 51.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중국 농촌총각들과 결혼해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해 소개결혼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을 경우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시론

이 가을에는



현 진
〈청주 관음사 스님〉

어느새 산창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지난 여름의 일들을 정리하기도 전에 가을이 어김없이 우리곁에 다가온 것이다. 가을은 자신을 비추어보는 명경(明鏡)의 시간이며 성찰의 계절이다.

여름의 분주하고 들떴던 마음들을 차분히 갈무리하는 것이 이 가을에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상처는 인내와 관심으로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살면서 한번씩 만나게 되는 고난과 위기는 전부를 놓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놓친 것이라 말해야 옳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질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전부를 다 잃은 것이 아니다. 새삼스런 말 같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었을 때 모두를 상실한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번뇌와 고통이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공부의 기회가 따로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을은 준비하고 땁흘린 자를 사랑한다.

지난 늦여름에 열린 국회 청문회를 이 가을까지 마주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불행이다. 가을의 여백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같아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가끔씩 대본 없는 희화극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뿐이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 서 있는 일이 솔직히 부끄럽다.

가을은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계절이다. 높고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먹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짓과 방종을 벗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의 뜻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거짓없는 자신과 마주 앉아 두런두런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목소리는 메아리되어 멀리 퍼진다.

몇 해 전 미얀마의 어느 사원을 참배하면서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입상으로 조성된 거대한 불상은 참배하는 자의 위치에 따라 그 표정이 달라보였다. 가까이서 올려다보면 근엄하고 권위있는 얼굴로 서 계시고, 먼 뒷자리에서 바라보면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의 사찰에서는 법회가 있을 때 정치인이나 지도층은 앞자리에 서고 서민층은 뒷줄에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무서운 모습으로, 서민들에게는 자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지도층이 부패하고 무능하면 온 나라의 백성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들에게 늘 엄한 모습으로 꾸짖고 그 본분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도 이같았으면 좋겠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멀리 있는 자들은 더 잘 살피는 천수천안의 대통령이길 바란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는 가을 찬서리처럼 경책하고 남에게는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대할 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덕목이 오롯해진다.

> "성찰의 계절이다 국민에게 실망 주는일 없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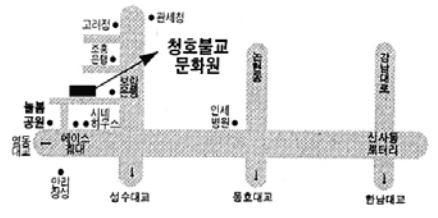
옛스님들은, 별이 빛나는 밤은 잠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오히려 부엉이처럼 깨어 있으라는 뜻이다. 저녁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하지 않으면 타성적인 생활이며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 수련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을의 정서는 자신의 습관을 전환할 수 있는 배경이다. 누구나 자신의 눈 아래에 붙은 티끌을 보지 못한다. 다시말해 자기 허물보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보는데 더 익숙해 있다.

가을에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다. 덕담과 차를 나누는 가을 분위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육조단경 강의

⊙개 강 일 : 1999. 9. 6(月) 오전 10시 30분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12:00
⊙강 사 : 중앙승가대 송 찬 우 교수
⊙수 강 료 : 월 20,000원
⊙주차무료 : 청호주차장 주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 02)517-3052, 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 교통편 ·

1. 전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
- 일반버스 74, 235번
- 좌석버스 774, 235번 타고 도산공원앞 하차(2정류장)

2. 전철 3호선 신사역 하차후
- 일반버스 83, 567번
- 좌석버스 567-1번 타고 늘봄공원앞 하차(2정류장)

레이키 (REIKI 靈氣) 능력 · 전수합니다 ·

레이키와 氣가 같은것이냐 다른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레이키와 氣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에너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에너지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레이키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고급생명 에너지입니다.
레이키는 우리가 <관무량수경>의 일상관(日想觀)을 행할 때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불타는 저녁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감과 함께 뭉클하게 솟아올라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과 자비심을 느낄 때의 그 생명 사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깊은 고뇌와 중한 병을 제거하고 행복하고 환희에 찬 생활을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생명에너지의 꾸준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또 레이키법과 기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기공은 오랫동안 힘들게 수련을 해야 능력을 얻게 되지만 레이키법은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어튠먼트라는 절차만 받으면 바로 능력을 얻게 되는 법이라는데서 기공과는 다른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만 하는 기공을 소(小)기공이라 한다면 레이키법은 사회구제와 인류구제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대(大)기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질병치료에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의 회복, 지구환경의 개선, 인류재해의 예방에도 쓰일 수가 있어 대기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까지 전수를 받은 레이키요법가는 누구나 이런 보살도를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 피어선빌딩
전화 : 02)720-5682 / 725-2311
지도자 박희준(레이키마스터 /티쳐 . 번역전술가)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仙道 생·활·속·의 道
"금선양생법으로 평생건강을"
道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이룬다.



백두산 정기를 온몸에 받으며 수련에 열중하는 최병주 회장

仙道라함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으로서 아무리 학문의깊이가 있다해도 실수련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수련을 잘못하면 오히려 음기가 강해져 감각이 예민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 부작용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도를 통해 우리 몸의 양기를 증장시키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훈훈하고 따뜻한 양기의 소주천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그심성을 온화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 진종자를 이루어 금단을 맺는데 까지 나아갈수

▶수련문의 : 금선학회 02) 512-7057/7233
세계금선학회 회장 최병주

"미래포교 대안 세우자"

새천년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 간담회

"통일법요집 · 불교성전 편찬 필요"
"어린이 전문지도교사 자격제 실시"
"초등생 대상 파라미타 운영해야"



◇안성 너리굴수련원에서 열린 청소년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는 600여명의 지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미래불교의 향방을 가늠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잇따라 열렸다. 28일~29일 '청소년 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안성 너리굴수련원에서 열렸으며, 이어 31일에는 '어린이 포교단체간담회'가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포교원이 실시한 '어린이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와 7월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포교 종책수립을 위해 마련돼, 포교일선에 나선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전문지도자교육기관 개설, 단체간 연대와 정보교류, 재정확보, 시대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소년 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설립 4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앞둔 포교종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전문포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자 연수의 정례적 실시와, 교사불자연합회의 적극적인 결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고등학생불자 포교에 앞서 초등학생 포교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초등파라미타 운영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포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한 파라미타 후원회 결성이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파라미타 연합캠프는 격년제로 실시하되 지역별 캠프를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포교원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포교의 취약지역으로 나타난 서울 경기지역의 파라미타 지부 설립을 적극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파라미타의 지도이념정립과 실현지침서로 〈청소년불교교리문답집〉〈불교청소년 활동프로그램집〉〈문화재답사 길잡이〉 등 교재 발간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 포교 연구실 복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도자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지도자소식지를 발간하고, 현행 법정 이사회에 내부이사 개념을 도입해 재가불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포교단체간담회= 어린이 포교단체 연합의 어린이법회지도자 교육과정 개설과 어린이용 통일법요집, 통일불교성전 편찬, 어린이포교단체 연합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어린이법회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제안은 그동안 불교교육연구원,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해 각 과정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전문지도교사(포교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지도인력 수급과 양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용 통일법요집과 통일불교성전편찬 작업또한 각 사찰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어린이법요집을 통일해 어린시절부터 제대로된 의식교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다. 이같은 작업을 위해 어린이포교단체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단체의 실무자간의 정보교류와 지역단위의 협의체 구성등 어린이포교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교육환경변화와 탈종교시대에 대비 초등교육과정과 연결된 법회 신행프로그램개발, 정보화 시대에 맞춘 통신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어린이포교 활성화 등 미래포교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⑮



서 세 옥 〈화가〉

'線 속의 禪' 삼독 비우는 정진
열린 마음 가지면 심신 밝아져

가장 한국적 전통에 바탕하여 가장 창조적인 예술세계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작가, 산정 서세옥화백(72). 구릿빛 피부며 건장한 체격에서 결코 고희(古稀)를 넘어선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100~300호등 대작을 내놓는 화가다. 대부분 사람 인(人)자를 직선 또는 원으로 병렬시키거나 사방으로 연결해 고통과 환희, 갈등과 화합, 긴장과 휴식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그림은 대상을 재빨리 포착, 최소한의 붓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까지 파고들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작품들 이다.

따라서 그는 독특한 작업 자세를 가지고 있다. 바로 독과상과돌진개, 홀로 서릿발 같은 창(붓)을 잡고 적진(캔버스)을 돌파해야 한다.

"어른 키보다 크고 팔뚝보다 굵은 붓을 한번에 휘둘러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 온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때 몸과 마음의 삼독(三毒)이 모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고희를 넘어선 서화백의 건강비결은 바로 선(線)으로 선(禪)의 경계에 매번 돌진하고, 몸과 마음을 비우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비온 뒤 갠 날처럼 맑은 정신상태', '사물을 보는 열린 마음', '붓과 먹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힘과 능력' 등은 작품을 그리는 태도로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와 제자들 사이에서 허물없는 사람으로 통한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 상태 즉, 열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이것이야 말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일찍이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란 이 세상과 저 우주의 온갖 것들이 모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서화백은 건강한 마음에는 당연히 건강한 신체가 따르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국내외 여성불교운동 흐름 조명

월간 '불교저널' 9월호 특집 신선
대행스님 독일법회 자세히 소개

월간 〈불교저널〉은 9월호에서 조계종 포교원 산하 (가)불교여성거발원 설립을 앞두고 '여성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새롭게 불붙은 여성불교'라는 소제목하에 최근 열렸던 여성불자 워크숍등 여성불교의 흐름을 진단하고,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한편 스리랑카 미얀마의 여성불교를 고찰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오늘날까지의 여성불교현황을 두루 고찰한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자취' 편에서 근현대불교사에서의 여성불교운동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여성운동이 근대성 즉 여성의 자각과 자유,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의 타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비해 여성불자들을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1922년 조선불교여자청년회를 필두로 지역과 단체에서 수십여개의 여성불자조직이 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성불자들의 적극적인 신행노력과 불교외호의 지극정성이 오늘의 한국불교를 지탱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리랑카의 여성불교와 미얀마의 여성불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9세기말 스리랑카의 불교가 다시 일어나는데 적극 기여한 스리랑카의 여성불자들은 비구니 종단이 없는 상황에서 붓다시대 이래 가장 신심있는 불교인들이 수지해 왔다는 10계를 지키며 '다사 실 마타보(dasa sil mata-vo)'라는 여성불자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십계를 지키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있는 이들이 모여 1907년 '우바이의 사탕'이라는 불교운동기구를 만들어 오늘날까지도 어린소녀들을 위한 학교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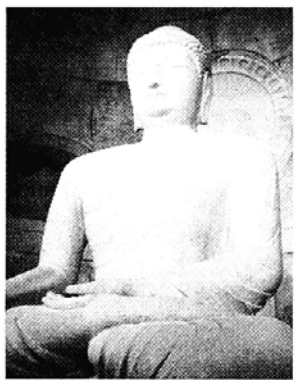
미얀마에도 불교인의 도덕적 생활규범인 10계를 지키는 여성불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틸라신(thila-shin)'이라고 부른다. 미얀마의 경우도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는 아니지만 스리랑카의 십계를 지키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경과 후원속에 활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부처님이 설한 평등주의가 남녀의 성차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미얀마 여성불자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인 아웅산수지 여사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기 위해 위정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진실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비구니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독일에서 법회를 가진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의 법회현장과 현지 독일언론의 반응, 강제수용소에서 학살된 무주고혼의 천도재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은자 기자

비디오 '한국의 국보' 日서 인기

NHK 제작…석굴암 서산마애불 등 소개



◇일본 NHK방송에서 한국의 불교 및 국보급 문화재를 소개한 비디오가 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경주 석굴암(국보 제24호)내에 있는 본존불상.

한일 양국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의 불교 및 국보급 문화재를 일본 NHK 방송이 비디오로 최근 제작해 일본인들에게 구입문의가 쇄도 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국보의 여행'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진 이 비디오는 불상과 불탑 등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보를 고화질 영상으로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영상물에는 '서산마애삼존불'과 '경주 석굴암',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등이 들어 있다.

일본에서 한국의 불교 문화재와 국보만을 담은 영상물이 제작되기는 처음이다. 시대별로 상하 2권으로 만들어진 이 비디오는 NHK가 10년전 한국에서 촬영해 방영한 프로를 토대로 최근 자료를 추가해 새롭게 구성했다.

제작자는 NHK 계열사인 'NHK 소프트웨어'에서 유일한 한국인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차영미씨(28)로 "지난해 10월 김대중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착안해 제작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차씨는 오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된 작품등 앞으로도 불교 및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방송단신

'BBS 돕기' 따주기 봉사
불자 1천여명 동참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후원 성금 마련을 위한 '수효암 영주스님 1일 따주기 봉사 활동'이 8월 30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수효암 영주스님은 불교방송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불자 1천여명에게 '따주기 침술 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27일 3층 대법당에서는 수원 용화정사 주지 성관스님 초청법회가 '부처님 자비실천 수행방법과 장애인들을 위한 불교 포교'를 주제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각 종교 상징 · 신화 소개
10, 17일 EBS TV '종교문화…'

EBS-TV는 10 · 17일 양일간 정진홍교수(서울대 종교학과)의 '종교 문화 읽기'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에 녹아 있는 상징 문화와 신화적 의미, 올바른 신앙관 등을 조명한다. 또 종교를 문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만이 종교를 맹신하지 않는다는, 정진홍교수의 특정 종교에 치우침 없는 종교관도 소개된다.

종교 문화…'는 △10일 신화속에 들어 있는 종교의 의미 △ 17일 상상력과 신앙 등의 순으로 방영된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주문전화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마하 쇼핑몰 신청 기획 상품 특판전

경상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시간의 절약 · 스승 모시듯 · 불자로의 경건함과 · 자녀들의 학습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 크기 : 가로720 x 세로340 x 높이320 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천연칠목
- 가격 : ₩85,000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브랜드 필요 없습니다

등의브라감 신침 神枕 비장 한장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에 의하면 그는 중국의 황제에게만 바칠 진상되어 옥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성약을 찾나므 함께 넣은 베개로서 7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년이든 체내에 모든 병이 가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름 높은 이 '청경하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고중한 업무 상황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편히를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육중스럽거나 고민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자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밤을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단방부통 불안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돌리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고민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침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크림이 많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크림이든 코고는 분인에게 더 유익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근산옥(신강성) 초산옥(호북삼양) 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이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나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복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 가가 수암옥으로 판명되었다.

· 그래서 브우스님련을 찰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말노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천옥으로 만든 목대를 만들어 보내어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천산지 중국 ■ 가격 : ₩98,000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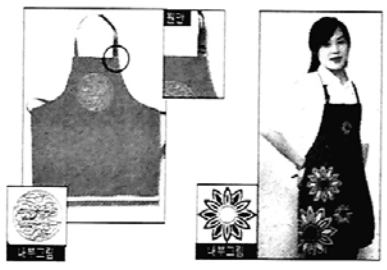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서브흘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알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시진다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숨이 짧고 기도에 가래 숨이 많으신분께 효과적이며 지속
2. 목이 자주 붓는 분이 복용하고 효과적이며 입니다
3. 아기 목욕에 물과 함께 아기 얼굴이 보기에 좋아집니다
4. 혈액이나 혈액 검사시 혈액이나 혈액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피로가 혈액 질환과 기분이 상쾌하여 한다섯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연꽃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앞치마

색상 : 자주색
재질 : T/C면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 가격:₩5,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달마도의 대가 여천 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판(99.9%) 위에서 드러브셔으 가린스지 백갈이을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목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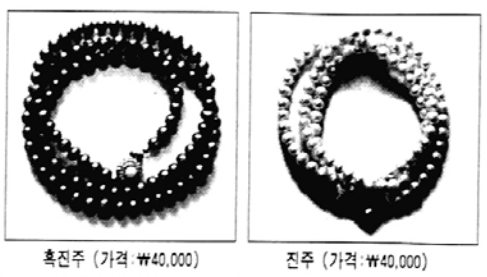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556 호

상반신 전신

■ 가격:₩120,000

108진주 목걸이

신상품



천연 담스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흑진주 (가격:₩40,000) 진주 (가격:₩40,000)

바라밀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치약을 나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물질할 치약을 덜어 므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타이벡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덜어 므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찌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같으에 따라 적정양을 놀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이 선물용으로 이랑 주문시 참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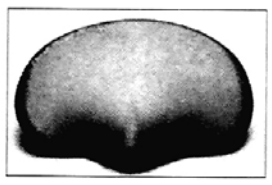
■ 가격:₩3,900

실용신안 제182653호 / 의장 제163396호 / 상표 제28424호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엄덩이 부분을 높여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최적의 편리와 혈액순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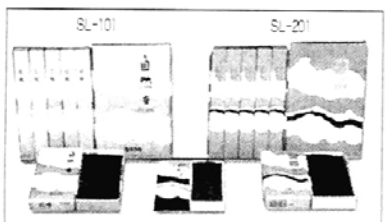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영장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영장이 부드러고 고르분와 최음부를 있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최적의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된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여 기존의 좌복 · 방석 외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며 장시간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선원단체 신장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 39×43(cm) ■ 가격 : ₩27,000

머리가 맑아지는 순수 자연향(참나무 숯탄가루)



가격 : SL-101 ₩10,000/1장 ₩2,000 · SM-201 ₩12,000/1장 ₩2,400
SL-102 ₩4,200 SM-301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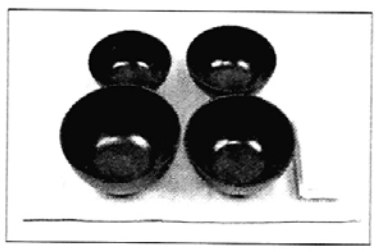
본제품을 함은 근나초고 암품와 참소상한고 서저적인 최고급 천연 향료만을 사용 오랜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었고 항제품으로 특유역향등을 가발 청정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사용하는 지역은 전화가 들어지고 등시에 자기 (핸폰 도 강하지며 전자장이 많은 환경지역으로 든다는 과학적 근거로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규격 : (가로×세로×높이)

· SL-101 26.5 X 16.5 X 5㎝
· SL-201 26.5 X 16.5 X 3㎝
· SM-102 16.5 X 8.5 X 3㎝
· SM-202 16.5 X 8.5 X 3㎝
· SM-301 16 X 16 X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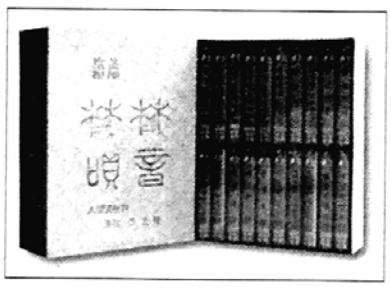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 와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팔다라 鉢多羅-patra 인데 저희나 석철 같은 금정된 말이 따라야 하므로 '양이 찾는 그릇 應量器' 이라 하석한다.
(옹장)에서 흔히 금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철발 鐵鉢 이나 와발 瓦鉢 을 사용하기 하였다.
본 제품은 한인사 올원의 철저한 그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 瓦鉢로 이다.

■ 와발우 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 와발우 3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4kg
개을제 : 물제품은 일주 입니다

문구암스님 법음 · 법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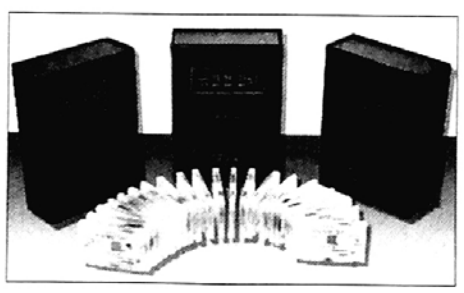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쓰셨던 하이프 (불

· 불공의식 삼신이은 영산작법 · 관욕의식 등 콘아벨트 묶음입니다

1불공의식 2삼신이은 3시장청 · 신중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불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산 · 푸징스크 · 다천스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대승 18은신게 19법사이은 영전점안 20중성 · 천수작법 · 오합

■ 가격 : ₩60,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화잠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하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솜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뛰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솜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 양면 손 자수(소장용 작품)



여러가락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자님 손안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작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아져 세거진 걸작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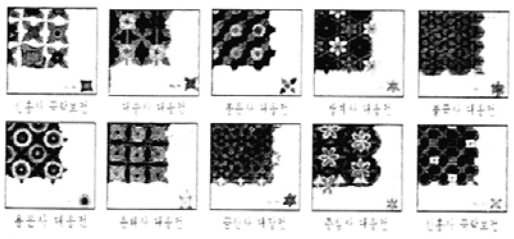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실현을 기울여 서거놓은 불고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 뒤를 유리로 특명화하여 작품 및이나 훈볼이 어우러짐다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치않은 달마도 걸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양금할이 필요합니다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내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 (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남)

■ 액자크기 : 25 x 25cm(립홈과 포함)
■ 가격:₩5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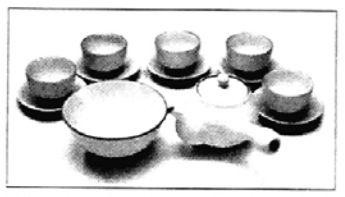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하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크기 와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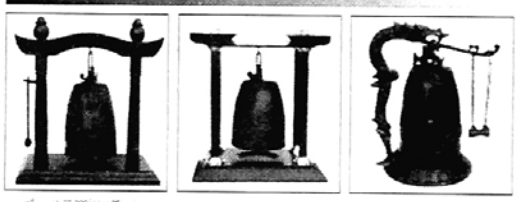
고산 이규보 선생은 임진왜란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의 도공들 일선의 초을 사례하고자에 한국에 도몰래 돌려가다 일선의 심을 사로잡은에 그분장선생이 그 조선전통 차장과 도예술을 그에게 전수 하였다 이때문이고가 한국의 도예문가들 전통의 수법은 지방을 중심에 신합하여 일본으로 이하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하였다 그 수제자가 이규보 선생이다

이러하여 이규보 선생은 그 도예조수를 일본하여 문나라 전수로서 추앙하여 존경을 나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보선생은 일본삼십가의 예술혼과 불꽃을 한머한을 것나 그로서 옮겨들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도 몰고 서서 만들어 진 도자이다

■가격:₩120,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27,000 (15 X 6.5㎝
중 ₩25,000 (13 X 4.5㎝
소 ₩7,000 (5 X 3㎝

대 ₩23,000 (15 X 6.5㎝
중 ₩15,000 (13 X 5㎝
소 ₩12,000 (5 X 3㎝

신라의 그 위대한 기술 정신 심혈이 깃든 숭고한 예술품을 간직하고픈 불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줄인 그대로 재현한 고급 도자기 입니다 실물 크기 (높이 25cm) 무게 2.5kg 이며 종을 울릴 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맑은 음색을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기존으로는 물에는 무리가 있으나 실질적 한국의 전통적인 최상 도료인 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또한 칠은 방부 방충 효과가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인정됩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워줍니다 · 한자의 무늬는 보살의 지혜력을 상징하며 한쪽으로 흘러는 힘찬모습의 용무늬를 조각 합니다

실버제품
· 전면 (금박, 청색유 도금처리) · 측면 (금박, 청색유 도금)
· 전면 (금박, 청색유 도금처리) · 측면 (금박, 청색유 도금)

실버제품에 새겨넣기
· 지원 (금박, 청색유 도금처리) · 원하는 문구
· 원하는 문구 · 불교 관련 문구 · 원하는 문구
· 반려 문구 · 사랑 문구 · 원하는 문구
· 원하는 문구 · 신혼부부 문구 · 축하 문구 (도금)
· 원하는 문구

■ 재질 골드도 및 실버 제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일분 통 300정)
■ 가격 : ₩80,000 (2일분 2통 6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점이 이유
1. 통증과 효과가 아주 좋아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자들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거려하는 남녀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효과는 보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부모님이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년 고시호 승이 더욱 할 때 중환 자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숨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3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30%로 그룹점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 저희 지점 시장이 부족하고 또한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많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 하달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농약 무비료로 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년 이하에서 보관하세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우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쌈밥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갑 장아찌	12,000원	· 송의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 (1L)	5,000원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 (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므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법회안내

'인간성 회복'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15일 오전 10시 꿈바위불교교육원 초청 '인간성 회복을 위한 마음가짐' 주제 법회.(02)739-5007

'금강경 공부' 법회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부산불교교육원 〈금강경〉공부 법회.(051)466-4080

장흥원당서 철야정진



행산스님(영산법화사 주지) 16일 오전 11시 월례법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12시 장흥원당 철야정진법회.(02)762-4922

초하루 유마경강의



일연스님(동학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유마경〉법회.(042)825-7809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8일 (수)

■정심사 대웅전 건립 개토식=성철스님이 수행했던 하남시 정심사가 오전 8시 대웅전 개토식을 봉행한다.(0347)791-7732

■건강과 유전자 조작식품 다보문화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강국희 교수초청 '건강과 유전자 조작식품' 주제 9월 다보문화강좌를 연다.(02)703-0108

9월10일 (금)

■능인선원 불교도농공동체생협 개장=능인선원 불교도농공동체 생협 매장이 개장한다. 도시와 농촌을 살려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생활문화, 환경 보호의 첨병역할을 하게 된다.(02)577-5800

9월11일 (토)

■정안사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및 음악회=해인사 백련암 서울 선원으로 단장한 정안사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11일에는 1주년 기념 축하음악회도 연다.(02)523-8005

■강원 삼대 보궁 순례=용진신행회는 오전 5시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등 삼대보궁으로 순례를 떠난다.(02)2279-1191

■제18차 전국불교청년 전국대회=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제18차 전국불교청년 전국대회가 12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다.(02)730-9108

9월12일 (일)

■성주사지·무량사 답사=터사랑은 오전 7시 성주산 성주사지와 만수산 무량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02)725-1284

■'맑고 향기' 경남모임 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오전 7시 경남 고성 옥천사와 용화사를 찾아 생태기행을 떠난다.(0551)266-0170

■서울불교청년회 무료투약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불자약사보리회와 함께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실직자 및 노인을 위한 무료투약봉사를 전개한다.(02)730-9108

9월14일 (화)

■'맑고 향기' 부산모임 이미용봉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지역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펼친다. 동참자도 기다린다.(051)898-2672

불교와 여성의 눈으로 본 세상



◇지난 6월 열린 '여성불자의 새 흐름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불자들.

불교여성개발원주비위 9-10월 토요강좌 개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주비위원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의 방향모색을 위한 전초작업의 하나로 '토요여성강좌'를 연다.

9월 11일~10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는 토요여성강좌는 11일 참교육연구소 김남선소장이 '자녀와의 참 만남'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18일 전 교육개혁위원장 김종서 박사가 '교육개혁과 불교'에 대해 강연한다.

또 10월 2일에는 운문사승가대학 일진스님이 '불교사상과 21세기 여성'에 대해 강의하고, 이화여대 여성학박사 김정희씨의 '생명, 보살핌 그리고 여성' 강좌는 10월 9일 진행된다.

'지혜로운 여성 보살피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불교여성개발원은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적 시각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여성불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여성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전화예약 선착순(02)737-7589 이은자 기자

게 시 판

알림

▲자연산 멸치·멸치액젓 판매=강남포교원 생협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신토불이 자연산 여수 멸치와 거제도 멸치액젓을 주문 판매한다.(02)539-2631

강좌

▲불교교리·천수경등 강좌=금화사가 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연다. 불교교리,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 초심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51)582-3042

▲보리수선원 경전반·수행반=보리수선원에서는 제1림 경전공부반과 수행반을 연다. 경전공부반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수행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실시하며 미얀마 참매수행센터 붓다락키타스님이 지도한다.(02)928-2844

▲김병조의 '명심보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방송인 김병조씨를 초청, '명심보감에서 배워보는 삶의지혜' 주민대강좌를 연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02)2282-1100

▲무료 불교학개론=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불교학개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0342)716-4215

▲노인사회문화교육=은평노인조합복지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착순 접수며, 건강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3장을 구비해야 한다.(02)385-1351

▲원효학당 가을강좌=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에서 가을학기 강좌를 개설했다.

대승불교의 이해, 선기공, 대승기신론연구, 삼국유사, 한국승려의 삶과 수행등의 강좌가 진행된다.(02)3411-6167

▲불교학 초급반·경전반=대구 원효불교대학에서 제6기 강좌를 연다. 4개월 과정으로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야간 오후 7시30분)에 경전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야간 오후 7시 30분)에 각각 실시한다.(053)563-9154

▲추석맞이 교잣상차림 특강=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가을을 맞아 추석 교잣상 차림 특강을 연다. 1개월 과정으로 참가비 2만원, 재료비는 별도다.(02)2282-1100

모집

▲사회복지사·특수교사·치료사 등=한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장애아치료 특수교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등을 모집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을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0562)248-6165

▲유치원 정교사=합동마을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 정교사를 모집한다. 서울 강북 노원 도봉 성북중랑 지역거주자여야 한다.(02)931-0219

▲독거노인 일대일결연후원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역내 무의탁독거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맺을 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월 1만원이상 후원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02)2203-3677

▲무료한글교실 자원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2회 2시간이상 봉사가능해야한다.(02)2282-1102

▲지체장애직업적응훈련생=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만18세이상 29세이하의 지체장애 및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생을 모집한다.(02)989-4215

▲자비의떡나누기후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한가위 이웃과 넉넉함을 함께 나누기위해 자비의 떡나누기 후원을 모집한다. 쌀이나 현금으로 동참하면 된다.(0342)716-4215

▲무료급식 후원=맑고향기롭게에서는 결식아동과 무의탁노인, 실직노숙자 등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무료급식사업에 동참한 후원자를 기다린다.(02)2203-3677

▲장애인등 후원자=자비원에서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 할 후원자를 모집한다.(0391)647-9292

답사

▲진부령·화진포·건봉사=여래지답사회는 12일 오전 7시 30분 강원도 진부령, 거진, 화진포, 김일성이승만별장 전시관, 건봉사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02)3445-0202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봉선회 임총

남양주 봉선사 운악산문 봉선회(회장 인묵)는 11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봉선회 활성화 방안과 장학금 지급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0346) 527~5974.

금산사 점찰법회 시연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8월 31일 본말사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산스님초청 점찰법회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금산사는 이날 시연행사를 토대로 불교의 대중화 토착화를 위한 참회법회인 점찰법회를 9월말이나 10월초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명락사 윤장대 낙성

서울 명락사(주지 도원)는 12일 오전 10시 윤장대 낙성 및 봉불식을 갖는다. 종단 최초로 갖는 윤장대 설치 낙성행사는 도용 종정스님의 증명으로 운덕 총무원장스님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한다.(02)889-7272

선각종

예비교역자 현장 실습

올 연말 발령을 받게될 예비교역자 8명의 현장실습교육이 1일부터 10월 셋째주까지 7주에 걸쳐 각 교구청과 심인당에서 실시된다. 실습교육은 △심인당 관리(희사금 관리 교도가정 방문, 교도 면담, 심인당 환경관리) △교화방편교육 △불사집전체험 △수행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법륜종

포교사·교화사 연수

총무원은 제1차 포교사 및 교화사 연수교육을 8월 31일 종로구 수송동 총무원 건물 3층 법당에서 실시했다. 50여명의 포교사와 교화사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 효성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교리와 포교사·교화사의 의무 △예불의 통일과 우리말 의식 등에 대해, 혜봉 종회의장스님은 '마음법문'에 대해 강설했다.

대승종

종단스님 하계 수련회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3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도암 종정, 일오 총무원장, 법정 교육원장, .법련 감찰원장 현각 종회의장 등 130여 종단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계수련대회(사진)를 개최했다. '대승사상의 실현화' 등 특강과, 초발심자경문 강의, 염불과 참선 실수 등과 총무원장스님의 종단운영방침과 법계고시도 실시됐다.

조동종

日조동종과 결연 추진

총무원(원장 학봉)은 8월 27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30여 간부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운파스님 입적으로 인한 새 종정추대위원회 구성을 9월 29일 승정원 소희문도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본 조동종과의 자매결연을 10월 한중일 교토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심소희선사 위수사법기념비를 종로구 평창동 청련사에 건립키로 하였다.

무량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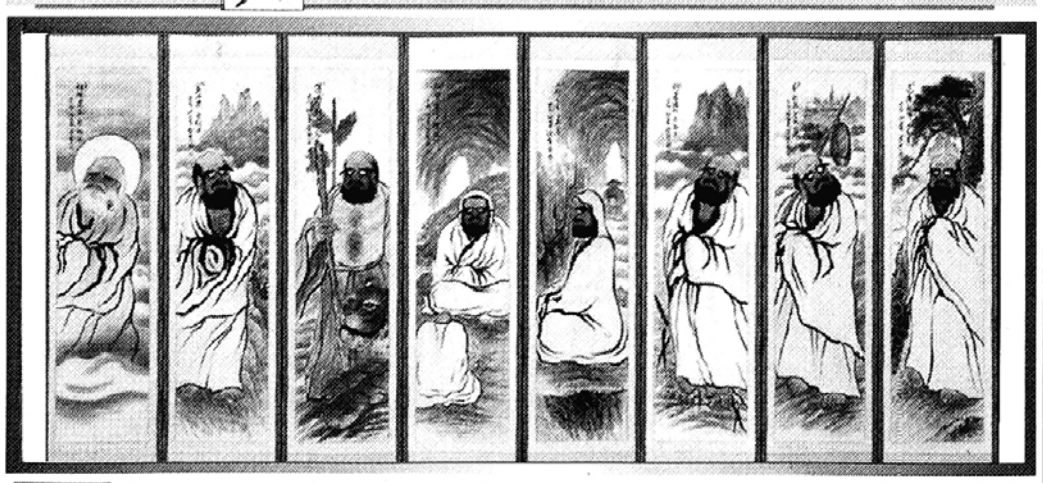
총무원장에 지은스님



8월 30일 40여명의 종단 중진 및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원로원장에 파옹스님(봉불사), 총무원장에 지은스님(부산 은암정사·사진), 종회의장에 혜안스님(칠보정사)을 추대했다. 종단 총림은 부산 은암정사, 총무원은 서울 무량정사, 총본산으로 지리산 칠보정사, 교육원은 충주 성주사로 확정했다. 이날 선출된 종단 간부는 다음과 같다. △총무원장임부원장=령관 △교육원장=무운 △감찰원장=만오 △수원종무원장=대산 △인천종무원장=성안 △충주종무원장=고담 △감포종무원장=도안 △경남종무원장=지암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달마도 (병풍), 佛字 특별가격보시





⊙달마도가격
소지용(15×15) 15,000원
액자용(70×37) 25,000원
액자용(70×45) 30,000원
액자용(140×37) 70,000원
액자용(140×74) 100,000원
佛字 (140×37) 20,000원

⊙8폭병풍완제품
(고급비단표구) (360×182cm)
- 단면 85만 → 76만원
- 양면(뒷면 반야심경) 98만→ 88만원

※10점 이상 구입시 20% 할인
※병풍 홍보기간 중 10% 할인
※작품이 마음에 안드실 경우 반품 가능

卍 천만불자 가정에 한점씩 걸기 운동
창혜(滄慧)거사, 김성은 화백이 직접그린 작품을 재료비 및 홍보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코져 전국 어디든지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물용 적합(액자없이 선물 가능)
권24시간 공휴일에도 접수 받음
권입금처(온라인 번호)
농협 148-12-032751 김병구
권연 락 처 :
TEL 032)656-3089
H.P 011)9043-3089
滄慧 金盛垠 합장

韓國禪畫研究院

· 본원에서는 결식아동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불교와의 새로운 만남

1999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원효학당

본 학당은 동·서양의 철학사상으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올바르고 소중한 삶의 진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 각 과정별 법사학위 수여
- 수강자의 희망에 따른 자유선택
- 타 교육기관의 이수경력 인정
- 깨끗한 음질·편리한 통신과정

특전 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된자, 서류전형 우수자는 장학혜택 있음.

모집안내
· 입학자격/제한없음
· 모집과정/동장과정 00명
· 제출서류/입학원1부, 사진 3매
· 원서접수마감/8월30일
· 문의처/본 학당
사무국 3411-6167,8

99년 2학기 강의 시간표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교시 (10:30~12:00)	삼국유사 V 정병조 (본원원장)	선기공 적운스님 (골굴암)	한국승려의 삶과 수행 김종명 (동국대)
2교시 (13:30~15:00)	대승기신론 연구 II 송찬우(중앙승가대)	대승불교의 이해 정병조(본원원장)	서경III 진성규(중앙대)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
Fax (02)3411-6169 (지하철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앞)

남원 호기리 마애불 '멸실위기'

보호조치 없이 도로 확장공사 강행
전북도 여론 못이겨 우회계획 취소
고려초 불상…문화재적 보존가치 높아





◇남원 호기리 마애불이 도로공사로 멸실위기에 놓였다. 원안은 마애불이 있는 부처모퉁이 바위. 고려초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기리 마애불(사진왼쪽)

지역민들의 집단 이기심으로 고려초기 마애여래좌상이 훼손위기에 놓였다.

당초 전라북도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남원-주천간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3월 기초공사로 마애불이 있는 부처모퉁이바위 일부분만 남기고 산허리가 파헤쳐져 멸실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실상사 선원사등 남원지역 사찰들과 남원향토문화연구회등이 남원시와 전북도에 문제를 제기, 전북도는 곧바로 담당국장을 현장에 파견하여 도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추가로 책정했었다.

그러자 남원시 주천면 주민 6백여명은 8월 중순경 정준식 남원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연대서명운동을 펼쳐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마애여래좌상을 우회할 경우 자연을 훼손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마애여래좌상을 다른곳으로 옮겨 원래 계획대로 도로공사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북도와 남원시에 제출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건설 시행부서인 전라북도 도로교통과는 8월 31일 주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 도로변경계획안을 폐기하고 주민다수안을 집약,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남원시에 다시 지시, 마애여래좌상이 옮길 처지에 놓인 것.

남원 선원사와 실상사 남원향토문화연구회등은 "문화재는 원래위치에 있어야 역사적 지역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며 "이미 결정된 내용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공사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을 우려한 관이 주도하여 주민서명운동을 전개, 원래계획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선원사 정도스님, 남원향토문화연구회 임명택총무등이 남원시청을 방문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문화유산인 마애불이 제자리에 보존되도록 하고 주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어 '문화재보존을 위해 도로를 우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전북도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남원향토문화회 '임명택총무는 "호기리 마애여래좌상이 위치한 곳은 현재 남원-순천간 산업도로 고가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이미 훼손돼 있는데다 남원-주천간도로까지 원래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문화재의 현장보존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상사 원주스님도 "빠른시일내 남원지역 각 사암을 비롯한 지역사회·문화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마애불을 보호할 수 있고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앉은키 117cm, 견폭 60cm의 호기리 마애여래좌상은 산줄기 맨아래 3m높이의 자연바위에 동향으로 앉아있다. 고려초기 조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자연미가 돋보이며 지정은 안돼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마애불을 조사한 이홍재씨등 학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마애불이 소재한 부처모퉁이는 정유재란당시 남원성이 함락하자 조경남장군이 마애불앞에서 의병을 모아 왜적을 무찌른 장소여서 보존가치가 높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목아박물관이 새로 건축한 대웅전. 내부에 탱화와 윤장대 등을 봉안, 불교문화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목아박물관 대웅전 건립

일주문·사천왕상등 연말까지 조성

우리나라 목조각의 역사와 다양한 조각품들을 볼 수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이 대웅전과 개천궁 사천왕문 일주문을 새로 건립하고 불교문화재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7월 17일 4동의 건물 낙성식을 가진 목아박물관은 올해말까지 내부공사를 완료,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사찰의 대표적 당우인 대웅전 사천왕문 일주문의 뜻을 널리 알린다.

큰 말씀의 집(大藏殿)은 고려시대에 애용된 주심포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로 내부에는 아미타탱화와 열반탱화 등진보살상, 예천 용문사의 보물 제 684호 윤장대를 재현해 놓았다. 특히 우리나라에 희귀한 법구인 윤장대는 글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도 경전이 들어있는 이것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측은지심의 사상을 담고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또 사천왕문인 마음의 문은 수미산 중복에 거주하며 사방위를 지키는 불법의 수호신인 사천왕을 모셔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현재 사천왕은 박찬수(인간문화재)씨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중에 있다.

사찰에 있어서 사역과 외부세계를 나누는 경계이자 경내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도 건립하여 이곳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불법을 받들기 위한 준비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천궁은 익공 팔작지붕 건물로 중당과 좌우 2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국조 단군왕검을 중심으로 환인과 환웅을 조성했다.

김원우기자



'연꽃처럼 청정하게'

"우리도 오욕속에 살아가지만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거예요"

무안연꽃축제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무안군 일로읍 10만여평의 회산연꽃방죽에서 천운(향림사조실) 상명(전 선암사주지) 정평(무안불교사암련회장)스님, 이재현 무안군수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불교예술대제에 참가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의 공연모습.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주 남산 문화재 정비

13개 폐탑·절터등 복원

경주 남산에 소재한 일부 폐탑 및 절터에 대한 발굴정비사업이 실시된다.

경주시(시장 이원식)는 제1차 남산정비사업으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국·도비와 시비등60억원을 들여 13개 폐탑 및 절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8월 23일 발표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문화재전문기간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서남산에 있는 주차장을 3천평규모로 확장키로 했다.

정비사업기간동안 복원될 폐탑과 절터는 △절골 절터와 삼층석탑 △국사골 제1절터와 삼층석탑 △큰지바위골 제4절터와 삼층석탑등 13개소다.

41점의 지정문화재와 377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있는 남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나 무허가 분묘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다 산불이 난후에도 그대로 방치되는등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실직자 취업 알선
부산낙동복지관

진각종이 위탁운영하는 낙동종합복지관이 실직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9월 10일 관내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을 위한 무료취업상담 및 알선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낙동종합복지관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고 노동청 산하 인력은행 직원을 초청, 상담후 취업을 알선하게 할 방침이다. 051) 271-056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광' 인터넷서비스

월간 〈불광〉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불광 홈페이지(http://www.bulkwang.org)에는 국내 불교잡지 사상 최초로 서비스되는 '월간 불광' 사이트를 비롯 '광덕스님' '불광사·불광법회' '불광출판부' '불광유치원' 사이트가 제공돼 불광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광덕스님 사이트는 사진으로 보는 광덕스님, 행장, 생애와 사상, 법문 및 어록 등으로 구성했다.

김종근 기자

진각복지회 제천 청소년수련관 수탁

복지·문화예술활동 중점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가 충북 제천시로부터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을 지난달 28일 수탁했다. 이로써 진각복지회가 운영하는 수탁시설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및 낙동종합사회복지관, 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제천시 송학면에 위치한 제천청소년수련관은 연건평 6천2백여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소극장, 향토전시실, 예절교육실, 취미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4백명까지 숙박이 가능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불교를 통한 지역 청소년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복지회 하승현 부장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찾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더불어 자연과 환경, 예술활동을 통한 지혜와 지식의 장으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원 승련사 뒷산 바위서
유가심인등 밀교문양 발견



남원 승련사(주지 경헌) 뒷산 일명 기차바위에서 밀교문양인 유가심인 2개와 옴마니반메훔 글귀(사진)가 발견됐다.

높이 2m, 길이 10m의 바위군에는 70cm크기의 화염무늬 2개가 조각돼 있으며 그 옆에는 '옴마니반메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한반도에 정통 밀교수행법이 들어왔음을 밝혀주는 유가심인은 극락 만다라의 세계를 표현한 것. 유가심인은 깨달음의 최고 순간을 공으로 표시했으며 그 윗쪽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등 우주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헌스님은 "12년전 폐사지인 이곳에 터를 잡고 바위를 보니 표시가 있어 부적인줄 알고 무심코 지나쳐왔다"며 "이제보니 옛스님들이 거처하며 부처님의 고행상처럼 모시고 공부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9월내로 동국대 오형근 교수가 승련사 현지를 방문하여 기차바위의 밀교문양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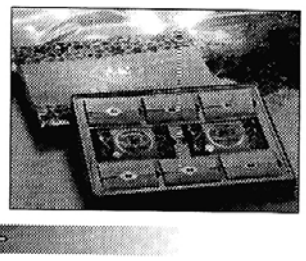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센터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사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황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황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귄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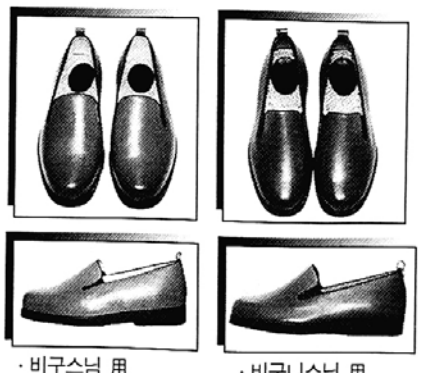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우료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귄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귄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불교상담교육원 10월 창립

불교상담이론 체계화…'상담불교대' 내년 설립도 검토

조계종에 불교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발족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단체 및 사찰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상담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상담원 확보도 쉬워짐은 물론 일반상담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불교상담의 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 자비의 전화,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불광사, 수원포교당, 교사불자연합회, 포교사단, 파라미타 등 10개 사찰 및 단체는 4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10월4일 (가칭)'불교상담교육원' 창립식을 갖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과 기본 사업방침을 잠정 확정했다.

불교상담교육원 창립은 몇년전부터 종단차원의 상담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자비의 전화를 비롯한 각 단체 및 사찰들도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데 따른 것이다. 상담교육원은 교계 상담기관 및 사찰의 연합체로 포교원 산하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며, 대표는 포교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각 단체 및 사찰 대표자들이 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사무실 및 상담실은 포교원 4층에 마련되며, 자비의 전화를 주축으로 한 실무진이 구성된다.

불교상담교육원은 우선 각 단체 및 사찰 상담기관에서 이뤄져온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교상담이론 체계화와 함께 상담원 기초 교육과정과 불교상담 교양강좌 개설, 사찰의 상담프로그램 및 자체 교육 지원, 일반상담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불교상담의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쯤 '상담불교대학' 설립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교육원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연구활동 및 상담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함께 불교상담교육원은 △상담원 기초교육 △사찰 상담원 및 임원진 인성검사 △사찰 학생회 성교육 △효과적인 공부법 배우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성장 대화법 △부부참만남 훈련 △사찰 임원진 리더십 훈련 △자기성장훈련 등의 단기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상담원 및 신도들에게 불교상담이론을 이해시키는 한편 불교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반 상담프로그램의 '불교화'를 시도한다. 실무를 추진해 온 자비의 전화 신희권 사무국장은 "불교상담의 발전은 곧 포교효과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며 "불교상담 교육원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교계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주 '디지털 상담실' 곧 개원

주민 문화공간 역할도

청주 지역의 새로운 포교신행공간 '디지털 열린 상담실(상담실장 홍자운법사)'이 오는 10월초 개원된다. 청주 관음사에서 활동중인 홍자운 법사가 주축이 돼 설립되는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현재 청주대 학생회관 옆 건물에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상담활동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앞으로 컴퓨터 운영시스템도 마련해 명실상부한 디지털 상담실을 구축하게 된다. 또 대형 텔레비젼과 오디오 비디오 시설, 2000여권의 양서 등을 구비해 상담실 기능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계획이다.

홍법사는 "청소년 상담은 물론 종교와 성별, 연령을 초월해 지역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돌봐주는 멀티 상담기능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청주지역 교수와 지도자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해, 포교방안도 기획하고 각종 법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조계종 17기 행자교육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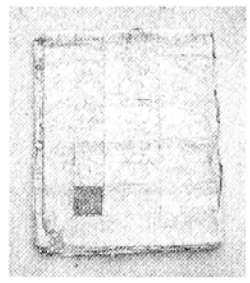
예비승려인 사미·사미니를 배출하는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이 8월27일 개원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직지사 만덕전에서 행자교육원 개원고불식을 봉행하고 23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고불식에는 교육원장 일면스님과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무관스님, 요주 계성스님 등 교육관계자 스님 50여명과 273명의 행자교육생이 참석했다. 남행자 156명, 여행자 117명은 18일까지 오후불식하면서 사미(니)율의 예식의궤 조계종사 초발심자경문 1배1보 3천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사미(니)계를 수지하게 된다.

김천=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조계사서 10월10일 '가사전시회'

세계불교국 가사 '한자리에'

9개국 80여종 선보여



◇통도사 소장 '석가여래가사'

한국 일본 태국 미얀마 등 불교국가들의 가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10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달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한국 일본 미얀마 태국 대만 북한 중국 스리랑카 등 9개국의 가사 80여종을 선보이는 '가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가사(袈裟)는 산스크리트어 Kasaya를 음역한 말로 인도에서 누더기옷을 카샤야라 불렀던 것을 불교가 받아들인 것. 〈대승본생심지관경〉에는 가사를 지니고 공경하여 얻을 수 있는 공덕을 "모든 죄가 소멸되고, 복덕이 생겨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켜 삿된 생각을 여의케 하며, 악업은 점점 소멸하고, 10선이 점점 증장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가사에 대한 이해도모와 함께 가사불사의 공덕을 불자와 일반에 알리고 새로운 사찰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대로 다양한 가사를 선보이고 이에 따른 부대행사도 열린다.

우리나라와 일본 가사는 최소 15개 종단의 20여 종류를, 미얀마와 태국 등 남방불교 가사도 10종 이상 전시될 예정이며, 대만의 재가자가 입는 만의가사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기간동안 각국 스님들이 자국 가사를 입고 그 나라 불교의식을 시연할 예정이어서 '가사축제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지난 8월초 입재한 가사불사를 전시회가 끝나는 날에 회향키로 했다. 또한 10월21일 큰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각 사찰을 찾아 가사불사 봉헌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신도들에게 가사의 의미와 가사불사의 공덕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명우 기자

오물투척사건 특수전 법당 '새모습'

특전교육단 백마호국사 낙성

법당 오물투척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 법당이 특전사령부 교육단 법당으로 새롭게 변모됐다.

육군 특전사령부 교육단 백마산호국사(주지법사 박동진)는 8월29일 부처님 점안식 및 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된 이날 법회에는 특전교육단장 최재환 대령과 서울 봉은사 신도를 비롯 불자 군장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백마호국사는 건평 115평에 법당이 63평이며, 대중방과 응접실, 법사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97년 법당(당시 가건물) 오물 투척을 비롯한 종교편향 사태를 겪은 이곳은 지난 3월 21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6월1일자로 특전사 예하 교육단으로 편입됐다.

김재경 기자

염주사기판매 '주의'

조계종, 주요사찰에 공문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고)는 8월 31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고가 염주 사기판매와 관련, 교구본사 및 직영 직할 사찰에 공문을 보내 신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라고 알렸다. 호법부는 또 피해발생시 호법부로 관련자료를 첨부해 보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 포교원 산하로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주비위원회는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가)불교여성교육원 명칭을 (가)불교여성개발원으로 합의 변경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구로서 출범할 것과 토요여성교육강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다져나가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은자 기자

■정통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기습인상

"지식 정보화 역행…재검토해야"

전문신문대책위 요구

지난 7월 정보통신부가 단행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기습인상과 관련해 이번 인상조치가 전문화를 역행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에도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2천여개 전문신문 및 각 대학신문들은 인상조치 발표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통부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불교를 비롯한 교계 신문들도 8월16일 정통부장관 앞으로 정책변경 부당성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정보통신부가 7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대상 및 감액율 변경조치'는 기존의 중량단위별 정액감액체제에서 일반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한 발행주기별 정액감액체제로, 일간(75%→75%)을 제외한 주간(73.6%→65.0%), 월간(66.4%→55.0%)신문의 감액율이 낮아짐으로써 발송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간은 40면 기준으로 변경전 170원에서 135원으로 21%가 인하됐으나 주간신문(100g기준)은 80원에서 115원으로 무려 44%가 인상됐다.

이를 1개사 1만부 발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월 1백42만원, 연간 1천7백4만원을 추가로 부담케 됨으로써 전문화를 저해하고, 일간과 주(월)간신문과의 차별을 둔 것은 주(월)간신문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공공성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명우 기자

경영정상화 적극동참

btn특위, 이사회 전달

조계종 btn 특위는 8월31일 제10차 회의를 갖고 16일에 불교TV 이사회를 열도록 허문도 불교TV사장에게 요청키로 했으며 경영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종단의 입장을 이사회에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반복돼오던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정휴스님의 사퇴로 공석인 특위 위원장은 여연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주일 기자

뉴스 & 뉴스

은해사 18일 산중총회

은해사 주지추천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8일 열린다.

은해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중총회 일정을 밝혔다. 은해사는 8월29일 긴급종무회의를 열어 총무국장인 법의스님을 주지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은해사는 4일 교구종회를 열어 궐위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교구종회에는 은해사 조실 일타스님이 참석해 법문했다.

정성운 기자

자비의집 '추석맞이 바자회'

경불련 자비의집은 무의탁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추석맞이 바자회'를 8~9일 이틀간 강북구 미아동 자비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삼성물산(에스에스패션)이 가을옷 3천벌을, 기타 중소기업이 젓갈류, 조기 등을 후원해 열리게 됐다. 자비의 집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송편을 만들어 13일 법당에서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주고, 11월말경 김장을 담궈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줄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26차 승려·교임 교육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8월 27일 - 2일 인곡총무원장을 비롯 종단간부 스님들과 각 종무원장 등 2백여 종단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선암사에서 제26차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3차에 걸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태고종사 △종단의현황 △신도회 관리와 교화방법 △사찰과 종단의 재무구조 및 재정확보 방안 △현대사회에서의 태고종도의 역할론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경숙 기자

태고종 선암사운영위 개최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8월27일 선암사 무우전에서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태고종과 조계종과의 화합분위기에 발맞춰 선암사 분제를 대화와 화해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규종식을 위한 종단의 종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종단에서 재구성하기로 한 위원회의 선암사 대표로는 정지허스님(태고선원장)이 선출됐다.

이경숙 기자

타태아기령 천도법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29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에서 '제4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연합법회'를 봉행한다. 타태아기령이란 고의로 유산시킨 아기영가를 일컫는 말로, 이번 법회는 이들 아기영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사경을 중심으로 한 천도재로 진행된다.

서울 신흥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한강광나루수상법당 연합으로 마련된 이번 법회는 29일 입재를 시작으로 19일 회향된다.

한명우 기자



청광화백 달마도(大,小)

365일 불심으로 생활합니다.

불심 가득한 원고와 질좋은 제품이 귀 사찰의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야불교달력

*** 품질만족 · 가격만족 · 서비스만족 ***


연화의향기 (大,小)


북한의명찰 (大,小)


심향 (大,小)


불리심 (大,小)

저희 가야기획은 불교카렌다 전문 제작업체로서 귀사찰의 이미지에 부합된 다양한 원고사용과 불자님의 취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꺽절한 규격등 타 제품과의 차별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사용된 원고의 작품수준과 가야 제품의 질을 확인 하시고 선택 하십시요.


팔상도(大)


한국의마애불(大)


부처님의성지(大)


용(大)


한국의탑(小)


동자요람(小)

불교카렌다전문제작업체

가야기획

서울 · 종로구 견지동 110-42 청송B/D201호

제작문의 전화(02)732-2461~2

팩스(02)732-2462

카렌다 가맹점및 주문사원 모집중

가까운 판매 가맹점(불교용품점)에서 주문 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견지동)길상원(02)722-4435,동일불교사 (02)722-9195,불서보급사(02)732-2829,불교서적사(02)732-8086,제일표구사(02)735-0918,연화사(02)733-7609,(강동)성인만물(02)487-8834,(강서)강서만물(02)604-7766,(구로)세운만물(02)864-1961,(답십리)대국불교전시관(02)2246-3471,(방화동)청진만물(02)661-3261,(상계동)동원만물(02)3391-4780,상계만물(02)936-0669,(제기동)경동불교(02)965-8276,(중랑)승강불교(02)496-3778,(풍납동)승궁불교(02)474-4466■부산 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부산불교전시관(051)647-7393,동방불교(051)464-1941,반야원(051)632-1470,관음불교(051)807-6265,불광불교사(051)525-7450,종합불교사(051)816-2926,해동불교사(051)337-6386 ■인천,경기(인천)극동만물사(032)765-0413,태극만물사(032)883-1339,현대만물사(032)762-9381,(부평)부평만물사(032)512-8877,종로만물사(032)516-8434,(김화)강화만물(032)933-0647,(김포)김포만물사(0341)982-0013,(구리)구리만물(0346)563-7554,(동두천)동두천만물(0351)865-6284,(부천)부천만물(032)656-0365,아리랑만물사(032)666-2227,원미불교사(032)656-8562,(성남)중앙고려만물(0342)751-0811,민속만물(0342)722-3369,(송탄)송탄만물(0333)662-0731,팔달만물(0333)665-6627,(수원)역전만물사(0331)247-7884,(안산)민속만물(0345)495-4848,(안산)관음불교사(0334)676-4828,(안양)일심불교사(0343)447-5685,(일산)금촌만물(0348)943-1363,(의정부)삼보불교사(0351)856-1020,의정부불교사(0351)842-8671,(용인)성원불교만물(0335)336-0337,(평택)원아불교사(0333)657-2300,(하남)신장만물사(0347)793-6139 ■강원도 (강릉)동해불교(0391)643-4058,(삼척)보문불교(0397)574-3971,(속초)광영불교(0392)631-7907,(원주)성심불교사(0371)742-3745,(태백)보성만물(0395)552-5323,(홍천)마하불교사(0366)434-8446 ■충북(청주)청주만물(0431)258-4226,(음성)백로만물(0446)883-6724,(제천)제천만물(0443-)645-7517■대전,충남 도솔천불교(042)585-2278,대구승복사(042)254-8776,백제불교(042)253-9907,보문불교서점(042)257-0161,(공주)백제불교(0416)855-5621,(광천)광천만물(0451)641-2073,(온산)법탑불교(0461)735-4045,연화불교(0461)736-4163,(보령)광성만물(0452)935-5175,(부여)부여반야만물(0463)835-2733,(서산)서산만물(0455)665-5136,(온양)민속만물(0418)545-4868,(조치원)현우불교(0415)865-0549,(천안)고려만물(0417)562-5952,충남불교(0417)557-3360,(청양)연희부만물(0454)943-5968,(홍성)홍성만물(0451)633-0762 ■대구,경북 대일불교(053)426-7486,보광불기사(053)254-4496,보현불기사(053)252-7005,봉은승복사(053)421-5451,부용당(053)321-4612,보광불기사(053)254-4496,(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경주)불교서점(0561)749-1580,(김천)대산불교(0547)432-5863,(포항)만덕불교(0562)241-2402 ■경남(김해)금강불교사(0525)337-5170,일광불교사(0525)325-0780,(밀양)밀양불교사(0527)355-5742,부용불교사(0527)352-3756,(마산)마산불교전시관(0551)255-6678,(진해)진해불교사(0553)545-6320,(거제)고현불교사(0558)633-2327 ■전북 (전주)조화불교사(0652)284-4396,(군산)원각만물(0654)446-1638,(익산)이리유기(0653)855-3883 ■광주,전남 김천유기(062)363-5219,만연유기(062)226-7786,호남혼구사(062)366-4917,(순천)대원불교(0661)743-6755,(여수)이화불교사(0662)643-7533 ■제주도 불교종합전시관(064)722-4878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금상

신행담

귀한 만남



그림 · 문병성

정월대보름.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새벽일찍 일어나셔서 그 시린 찬물에 머리를 감으시고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 입으셨다. 어머니 옆에 놓인 조그마한 대소쿠리엔 북어랑 과일 한 초, 흰콩이 등이 담겨있었다. 동틀 무렵 어슴프레한 새벽녘에 어머닌 갈 길을 서두르셨다. 어린 시절 누구나 그러하듯이 어린 난 잠오는 눈을 부비며 엄마의 치마자락을 놓칠 세라 종종 걸음을 치며 대문 밖을 따라나섰다. 도착한 곳은 동네어귀 개천. 흐르는 냇물을 앞에 두고 이끼가 끼지않은 깨끗한 장소를 선택하신 후 소쿠리를 내려놓으시더니 촛불을 밝히시고 두손 높이 합장해 절하시며 연신 무엇인가를 축원하며 기도하셨다. 엄동설한인데다 허허벌판 냇가에 부는 바람은 차고 매서웠다. 촛불이 쉴 사이없이 춤을 추었고 꺼질 듯 꺼질 듯 되살아나곤 하였다. 어린 마음에도 행여 촛불이 꺼지면 어떻하나 싶어 고사리손을 녹이듯 조심스레 촛불을 감싸쥐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아이를 착하고 귀하게 자라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한 기도는 없었다.

어머닌 늘 기도하셨다. 난 어머니의 신앙 생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지극해 보였다. 어머니의 신앙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았다. 오로지 가족의 건강과 행복만을 비는 기복불교였다.

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성당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 몰래 교리반을 다녔고 하얀 미사보를 쓸 수 있는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엄하고도 단호한 음성으로 "여자는 출가해서 시댁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고시절 천주교에 대한 관심은 대학을 졸업하자 곧 천주교 부설 유치원에 취업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이를 계기로 다시 교리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영세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일이면 언제나 미사보와 성경책을 들고 미사에 참여하였고 신부님과 수녀님의 따뜻한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지내왔다.

결혼을 할 때 종교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시댁의 종교는 불교적 성향만 나타낼 뿐 불교는 아니었다. 며느리의 종교생활도 인정해 주셨다. 남편은 종교엔 큰 관심이 없었으나 크리스마스 이브땐 함께 자정 미사에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결혼후 몇 년이 지나도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자 시댁어른들께서 걱정하시기 시작하셨다. 5년을 기다리다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셨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며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게 해달라는 불공을 드렸음에 틀림이 없었다. "아가야, 네가 계속 바쁘니 나랑 딱 한번만 절에 가자. 그 절에 가서 기도하면 아기를 꼭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 내 소원 한번 들어다오."하시며 간곡히 부탁하셨다. 처음엔 가볍게 피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삼아 시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했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렀고 세월은 어머님의 말씀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난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시골의 작은 절에 가게 되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무당집은 아니고 절도 아니고 부처님을 모셔두긴 했으나 너무 싫었다. 다시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그때 친정 언니에게 흔들리는 나의 심경을 털어 놓았더니 "너희 시댁에서도 기다려 줄만큼 기다리셨다. 어느 부모인들 걱정하지 않겠니"라면서 언니따라 단양 구인사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 이후 난 더욱 심한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 개종을 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인가. 마음을 정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개종을 하면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그간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까지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아 더 갈등이 심했다. 곁에 있는 언니는 항상 얘기했다. 부처님법은 정법이고, 인연법이고, 조화법이다. 부처님 법을 알고 따르고 실천하면 꼭 내게 좋은 일이 생길거라며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했다.

그간 친정어머니의 신심도 깊어져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고 경전을 외시고 관음정근을 열심히 하셨다. 나이가 드시자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천수경〉을 공책에다 매직으로 크게 한줄씩 적어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크게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써 드렸다. 어머니는 매일 쉬지 않고 한구절씩 외우셨다. 새벽마다 독경하시는 어머니의 소리가 나에게도 친숙하게 들렸고 때로는 잘 외웠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나도 몇 구절은 욀 수 있게 되었다. 주변의 가까운 분들이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명조차도 내것 없으니 무엇을 바라고 집착할까

이것도 공덕이 되었던가,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부처님 전에 귀의하고자 구인사로 향했다. 큰스님 전에 인사드리고 "개종하러 왔습니다" 말씀 드렸더니 "참 잘 왔구나. 이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없지"하시며 인자하게 맞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변절, 부처님에 대한 귀의, 엇갈린 내 마음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미묘함에 빠져 있었다.

"무심으로 기도해라. 잡념을 끊어버리고 욕심도 탐심도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기도해라. 어려움이 있거든 더욱 용맹하게 정진해라"고 당부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이 순간부터 난 불제자가 된거야' 굳게 마음을 다지고 4박5일 동안의 기도 정진에 들었다. 난 쉴없이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 '부처님 전에 반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직 그 마음뿐이었다. 난 변함의 무상함과 두려움을 너무 절실히 느꼈기에 나의 소원은 변함없는 마음 그것뿐이었다. 다시는 부처님을 버리지 않을거라고…

며칠이 지나자 기도중 신비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분명 4층 기도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5층 큰법당에 내가 있었고 큰스님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었다. 그때부터 난 모든 갈등과 마음속의 방황을 지워버릴 수 있었고 진정 변치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음에 자신감이 생겼다.

4박5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그간 모셨던 성모마리아상, 성경, 묵주, 미사보 등 성구를 잘 챙겨서 성당에 갖다 드렸다. 성당에 다녀오자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결혼 후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서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더구나 대학때 교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나를 교사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터라 너무 기뻤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절을 올렸다. 이곳과의 인연은 내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

3년을 지났을까 연중 실시하는 교직원 건강검진에서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에 너무 놀랐다. 지금까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선천성 심장병이라니…. 더구나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시간 이후의 생명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려움과 몸에 남게될 수술자국, 더구나 가슴 한 가운데를 광생 칼자국을 남기며 살아야 한다는게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다.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사는데까지 살다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울고 울고 또 울어 더이상 울 힘도 없었다. 기진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불현듯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생각을 바꿔라"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통한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여러 방편으로 인연맺게 해 주셨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생명조차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법,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바랄까.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며 다시한번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은 분명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할만한 소임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는 날까지 부처님과의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참 진리의 길을 따르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한다.

안영미(경북 경산시 사동)

눈 안마기



가격 : 49,000원

본 상품은 안마 및 지압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아래의 근거로 설계하고 여러해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제품입니다.

상품의 특성

1. **눈을 밝게 해줍니다.** - 현대 생물자성학(BIOMAGNETIC)과 전통적 경맥학 성과를 응용하여, 22개의 영구자석 침봉으로 눈 주위의 중요한 혈위에 작용하여, 안부세포의 생체 순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제거하며, 안근의 탄성을 회복하여 근시, 원시, 눈부심, 약시, 노안등 안질의 자연치유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 태양혈, 잔주혈 등 머리 부분 혈위를 고주파 마그네틱 침으로 눌러 마사지하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어지럼증, 눈앞이 아른거림, 건망증, 불면증등 머리피로 증합증세를 신속히 제거하여줍니다.
3. **미용효과가 있습니다.** - 눈 주위의 주름살, 검어지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제거하여줍니다.

사용 방법

1) 안마기 위쪽의 건전지 뚜껑을 열고, 건전지의 극성에 맞게 넣고 뚜껑을 닫는다.
2) 안마기를 얼굴에 편안한 상태로 끼고, 쇼파나 등받이 의자등 편안한 자세로 머리를 뒤로 붙이고, 눈을 감는다.
3) 안마기를 작동한다.(안마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시간을 미리 1분, 2분, 3분중에 맞추고 제품 정면 가운데 위치한 자동버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쁘신 분들, 평소에 머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6661 •팩스:02-737-05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사람을 찾습니다.

사진의 여성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남편인 재일한국인 김오남이라고 합니다.





◆이름: 한수림 (韓 秀 林) ◆ 생년월일: 1961년 12월 15일 ◆혈액형: AB형
◆년령: 39살(단지 39살처럼 보이지 않음 4~5살정도 젊어보임)
◆신장: 154㎝ (자그마한 체구로서 피부색은 보통입니다.)

머리카락은 길면서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므로 머리를 틀어올려서 모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어쩌면 머리스타일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은 사각형같은 얼굴형으로 턱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쌍커풀이 있는 눈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운 것 같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썹에는 파랗고 좁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화장을 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했을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돼지코 같은 코를 하고 있고, 입술 바로 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음.)
웃는 얼굴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후 눈 또는 코의 성형가능성 있음.

마지막으로 매우 실례합니다만 찾아주시는 사례로 개인에는 많은 보상금을,
사찰에는 감사의 사례로 사찰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시주토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연락처 송미영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서울 011-288-0712 / 일본 001-81-43-287-8228 송미영
한수림의 남편: 김오남(부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디 찾아주세요. 정말 부탁 부탁 드립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어 머리를 깎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모님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 수림은 일본에 있는 1년 6개월전부터 테이프와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저 김오남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기에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가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없으므로 한국에 금년 7월 22일부터 4회에 걸쳐 처를 찾으러 갔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구해준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의 수림의 동생 송미영씨랍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협심증입니다. 처 수림은 알고 있습니다. 3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굉장히 아픕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 체중도 7㎏ 말랐습니다.

여러분 부디 처 수림을 보면 아래의 서울과 일본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 수림을 본 사람은 처 수림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일본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찾는 광고의 신문을 처 수림에게는 보이지 말아 주세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처 수림이 알면 부모를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 수림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 수림은 스님이 되고 싶다고 대구의 보광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에게 7월 16일 밤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후 어떤 절로 갔는지 모릅니다. 처 수림은 이름을 바꾸어서 절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처 수림을 마음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 수림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